

2012 청소년상담연구 • 170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책임 연구자 : 정 현 주

공동 연구자 : 이 호 준

김 하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170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 쇄 : 2012년 12월

발 행 : 2012년 12월

발 행 인 : 구 본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71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기획

비매품

ISBN 978-89-8234-510-4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책임연구자: 정현
주 ; 공동연구자: 이호준, 김하나. --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2012
p. ; cm. -- ((2012) 청소년상담연구 ; 170)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됨
ISBN 978-89-8234-510-4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94330

학교 폭력[學校暴力]
청소년 문제[靑少年問題]

334.3-KDC5
362.7-DDC21

CIP2012005846

간행사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는 '학교폭력'이었습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 소식, 점점 조직화되고 폭력화되어 가는 학교폭력 양상 등으로 사회의 고민은 깊어졌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은 큰 후유증을 남깁니다. 학교폭력 피해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 심각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가해 청소년들은 공격적인 행동 등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견디다 못해 가해자가 되는 '가·피해의 악순환'으로 학교폭력 문제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학생들이 직접 연루되지 않더라도 학교나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이에 정부는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7대 대책을 시행하여 가정과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폭력문제의 해결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온 사회의 노력이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가 학교폭력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나아가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자와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서울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담당 선생님들과 참여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한 정현주 박사와 김하나 선생, 전주대 이호준 교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2012년 12월

원 장 구 본 용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초 록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로,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경험하며 고통받고 있다.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관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때로는 학교폭력 문제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개입노력 중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개입이 중요한 일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기획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라는 프로그램 목표를 수립하고, 학교폭력, 부모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현장의 요구와 학교폭력 경험 청소년 부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와 FGI를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경험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했다. 둘째, 기획단계에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원리 및 구성모형을 도출하고,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초안을 시범운영하여 효과성을 평가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 전문가와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감수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기획단계를 통해 도출된 프로그램 구성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학교폭력 가해/피해자녀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각각 상이하다는 선행연구 및 요구조사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가해자 부모용과 피해자 부모용으로 분리하여 개발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재발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갖춰야할 부모의 역할 3가지를 도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역할은 자녀 성장의 조력자, 합리적 문제해결 촉진자, 부모의 성장이라는 3가지 요소가 도출되었고,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역할로는 자녀 성장의 조력자, 자녀의 권익옹호자, 부모의 성장이 도출되었다. 셋째, 각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회기당 90분~110분이며 부모 6~8명이 참여하는 소집단 대상의 활동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단, 학교폭력은 사안처리 단계에 따라 교육 요구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부 회기를 선택활동으로 지정하여 필요에 따라 회기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듈식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를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참여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에 참여한 25명에게서 양육효능감의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고,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에 참여한 18명에게서는 양육효능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가해자 부모교육과 피해자 부모교육의 참여자 및 지도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 및 의견 등을 수집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고, 최종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교폭력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통해 부모의 인지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향후 양육행동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한편, 교육의 효과와 지속성을 고려할 때 6회기 이상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과 학교폭력 단계나 유형에 따른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후속 연구로 제안되었다.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I. 서 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
- 2. 연구의 과제4

II. 이론적 배경 | 5

- 1.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 이해5
- 2. 학교폭력 가해·피해 유형별 특성 분석22
- 3. 학교 폭력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26

III. 연구방법 | 43

- 1. 프로그램의 개발43
- 2.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75

IV. 연구결과 | 82

-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82
- 2.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91
- 3.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100
- 4.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110

V. 요약 및 논의 | 116

참고문헌 | 121

부 록 | 135



표

표 1.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개발원, 2012)	7
표 2.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자녀의 문제	15
표 3. Olweus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최인재, 김경준 외, 2007)	29
표 4. 각 국의 학교폭력 부모교육 프로그램	33
표 5.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35
표 6. 일탈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	36
표 7. 가해학생 부모대상 프로그램 구성(고성혜 외, 2003)	39
표 8.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대상 프로그램(최인재, 백혜정 외, 2008)	40
표 9. 피해학생 부모용 상담 프로그램 내용(부안동 초등학교)	41
표 10. 가해학생 부모용 상담프로그램 내용(총 1회기로 구성)	41
표 11. 현장전문가 대상 기초 요구조사 내용	45
표 12.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52
표 13.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52
표 14.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58
표 15. 심층면접 질문지	59
표 16.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모형	70
표 17.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모형	70
표 18.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내용	73
표 19.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내용	74
표 20.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측정도구	76
표 21.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특성	77
표 22.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특성	78



표 23.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구성	79
표 2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구성	79
표 25.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 구성	80
표 26. 부모 양육효능감의 대응표본 T검정	83
표 2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대응표본 T검정	84
표 28.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대응표본 T검정	85
표 29. 부모 양육효능감의 대응표본 T검정	86
표 3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대응표본 T검정	87
표 31.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대응표본 T검정	88
표 32.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및 현장활용성 평가(부모)	93
표 33.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및 현장활용성 평가(지도자)	95
표 34.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및 현장활용성 평가(부모)	98
표 35.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및 현장활용성 평가(지도자)	100
표 36.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회의 결과	102
표 37.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감수의견	104
표 38.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회의 결과	107
표 39.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감수의견	109
표 40.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정사항	112
표 41.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정사항	115



I 그림

그림 1.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	44
그림 2. 부모 양육효능감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83
그림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84
그림 4.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85
그림 5. 부모 양육효능감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86
그림 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87
그림 7.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88
그림 8.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부모)	91
그림 9.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지도자)	94
그림 10.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부모)	96
그림 11.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도자)	98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점점 더 심각성, 지속성, 폭력성에서 도를 더해가고 있다(박효정, 정미경, 한세리, 한경아, 200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학교폭력의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해, 피해 또는 가해/피해 반복의 악순환에서 고통당하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은 물론 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래와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인간관계 능력을 신장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관련된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공격성, 비행,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문제를 가지며, 성인이 된 후에도 반사회적 행동, 비행, 가정폭력, 범죄와 같은 공격적인 행동에 높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 Craig, Peters, & Konarski, 1998; Smokowski & Kopasz, 2005). 더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성인들의 자녀들 역시 가해자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Smokowski & Kopasz, 2005 재인용).

한편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극심한 우울과 불안, 두려움, 외로움과 극단적으로는 자살생각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게 되고 이는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박경숙 외, 1998; 한준상, 2002; Bond, Carlin, Thomas, Rubin, & Patton, 2001). 피해자들은 정서적(우울, 불안과 공포, 낮은 자존감, 분노, 죄책감 및 수치심), 인지적(해리나 환청과 같은 지각장애) 후유증을 가지며, 신체장애(신체화, 신경증적 증상)와 행동적인(자살행동, 물질남용, 인격장애) 후유증을 보인다. 또한 대인관계상의 문제(성문제, 피해의 반복, 폭력의 대물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Cann, 1998, 장맹배, 2011 재인용). 더 나아가 피해자였던 부모들은 자녀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녀들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Smokowski & Kopasz, 2005). 이렇듯 학교폭력 문제는 단일차원, 한 세대 안에서 끝나

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며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가해와 피해 청소년들 중 대략 40%가 넘는 청소년들이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다는 점이다(박순진, 2009). 이들 가해/피해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분노와 불안과 같은 정서수준은 높고 자아개념은 더 낮은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이들이 보이는 공격적 반응패턴으로 인해 또래로부터 배척당하여 외톨이로 지내기 쉽다.

이렇듯 다층적이고 복잡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은 관련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문용린 외, 2005).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학교폭력 행동을 개인적 특성과 개인이 속한 체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바라본다. 즉, 학교폭력 관련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물리적, 제도적, 공동체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특히 인간이 태어나면서 접하는 최초의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자녀의 발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ogers, 1961, 김연, 황혜정, 2005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예방하는 또는 주요하게 예측한다. 부모의 애정과 관심의 결여, 자녀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 자녀의 피해를 경시하는 태도, 부모의 권위적인 태도(곽영길, 2007), 부모의 감독부재와 방임과 학대(조유진, 2005) 등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행동 모두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들은 비일관적이고 변덕스러운 처벌, 신체적인 처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청소년들은 부모들로부터 칭찬이나 격려, 유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롤모델을 거의 받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동, 행방에 대한 지도·감독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Roberts Jr. & Morotti, 2000).

피해자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피해와 관련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녀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낮을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또래로부터의 친사회적인 행동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진, 2003).

그리고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부부간 갈등을 목격할수록 가해/피해 중첩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신희경, 2006).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 특히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막상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연관될 경우, 구체적으로 부모들이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자녀들을 지도해야 학교폭력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Rogers, 1961, 김연, 황혜정, 2005 재인용), 부모의 따뜻함과 자녀를 향한 긍정적인 표현, 공감(Zhou et al., 2002) 등이 자녀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나아가 자녀의 긍정적인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피해 행동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외에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초점을 둔 수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들은 책임감있고 권위있는 부모양육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학교폭력의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제(Rigby, 1993)아래,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방식의 향상(Lodge, 2008), 갈등해결과 같은 사회기술 개선 등의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즉,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자녀의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 감소와 관계증진, 의사소통의 향상, 부모의 자아효능감 증진과 자녀의 부정적 행동의 감소와 긍정적 행동의 증가 등 수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Burke, Brennan, & Roney,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의 촉진, 갈등의 해결 방법, 학교폭력에 관여하게 된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등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무엇보다 가해 부모들에게는 일차적으로 ‘우리 아이도 달라질 수 있고’,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달라지도록 할 수 있다’ 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피해 부모들에게는 ‘학교폭력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고긴 싸움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북돋아 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과제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가해자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피해자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학교폭력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 이해

가. 정의

노르웨이 학자인 Olweus(1978)가 자신의 저서 『Aggression in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래 간 괴롭힘에 대해 기술한 이래, 학교폭력 문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Smith, Cowie, Olafsson & Liefhoghe, 2002). 학교폭력은 집단따돌림, 집단괴롭힘, 또래괴롭힘, 왕따, 전따, 이지매, mobbing, bullying, harrasment, peer abuse, 그리고 victimization 등 매우 다양한 용어로 쓰이지만, Olweus에 의해 bullying이 정의된 이후, 이 용어가 학교폭력을 나타내는 뜻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Olweus는 학교폭력(bullying)에 대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Olweus, 1991).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은 신체적, 언어적 또는 심리적인 행동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타와 같은 신체적인 공격, 언어적인 공격(욕설, 별명 부르기), 얼굴을 찌푸리거나 심술궂은 제스처를 취하는 것, 협박, 조롱하기, 비방하기, 모욕, 물건을 훔치는 것,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 그리고 집단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다(Smokowski & Kopasz, 2005).

Galloway(1994)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oover와 동료들(1993)은 ‘한 명 또는 한 집단의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학대’라고 정의하였다(Bosworth, Espelage, & Smith, 1999).

이렇듯 학교폭력에 관한 정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지적된다(Cassidy, 2009; Olweus, 1996). 첫째, 공격적이거나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harmdoing)이라는 것이다. 즉, 또래를 괴롭히는 행동은 남을 해치려는 의도가 분명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행동임에 비해, 또래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남을 해하려는 의도

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시간흐름에 따른 행동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다. 학교폭력 행동은 기본적으로 힘이 강한 쪽과 힘이 약한 쪽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피해 청소년은 이러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학자에 따라 학교폭력의 정의를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의 범위 안에 학생간의 폭력 뿐 아니라 체벌 등 교사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며(김성환, 1999), 교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춘재, 1999)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김준호 등(1997)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폭력피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김용태 등(1997)의 연구와 한준상(2002)의 연구에서는 따돌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로 관계상의 따돌림을 지칭하고 있으며, 박효정 외(2005), 이상균(1999),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 등은 또래괴롭힘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하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간의 폭력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또래폭력과 학교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효정 외(2006)에서는 학교폭력을 '의도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한편, 이것이 일정기간 동안 반복되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사회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게 되었다. 그 후 학교폭력 문제는 주춤하는 듯 했으나, 최근들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던 학생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문제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정부는 한층 강화된 학교폭력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정의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 라고 정의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 의한 폭력 발생 시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하였다.

나. 학교폭력 실태와 특징

학교폭력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학교폭력의 양상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또는 피해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Olweus, 1995). 예를 들어, 미국심리학회의 학교폭력 개입에 대한 지침에 의하면, 학령기 청소년 중 약 40-80%는 학창 시절의 어느 시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하며, 중·고등학생 중 70%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하지만, 피해경험을 실제로 보고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이중 20-40%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PA, 2012).

학교폭력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대략 15%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관여하고 있었으며(Olweus, 1995), 미국의 경우는 6학년부터 10학년 까지 아동 총 15,686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29.9%에 달하는 학생들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참여하고 있었다(Nansel, Overpeck, Pilla, Ruan, & Simons-Morton, 2001). 영국의 경우는 11세- 15세 아동 중 29.3%(Cassidy, 2009), 심지어 이탈리아의 로마와 그리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략 반수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보고하고 있었다(Baldry & Farrington, 1999; Kalliotis, 2000).

국내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조사에 따라 발생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폭력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39만 명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15.2%, 중학교에서 13.4%, 고등학교에서 5.7%로 학교급별로 피해응답률이 다르게 나타났다(표 1).

표 1.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개발원, 2012)

구분	학생 수	피해응답 수	피해 응답률(%)
초등학교	607,552	92,212	15.2
중학교	422,494	56,568	13.4
고등학교	342,443	19,697	5.7
총계	1,396,566	171,637	12.3

한편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에 의해 2010년 총 3,560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율은 11.8%, 가해율은 11.4%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9년 조사에서 피해의 9.4%보다는 증가를, 가해의 12.4%와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재학기간 동안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22.6%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장난(27%), 상대학생이 잘 못해서(23%), 오해와 갈등(16%), 이유없음(13%) 순으로, 단순한 장난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문제해결방식의 하나로 폭력을 사용하는 양상이 많았다. 또한 피해를 당하는 장소는 75.2%가 학교교실, 복도, 화장실 등이라고 응답했으며, 폭력 피해를 당하는 시간 역시 68.8%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 등으로 나타나 학교 내에서의 폭력발생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이 일부 학생의 문제행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학교 사회 내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발생하며,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들어 학교폭력은 흉포화, 조직화, 저연령화 등의 특징을 보이며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우선, 학교폭력이 점차 잔인해지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흉포화, 범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들은 뚜렷한 이유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미안함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청예단, 2010).

둘째, 발생시기가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급은 중학교이지만, 가해학생들의 관계는 이미 초등학교때 형성된 친구관계에서 비롯된다(박효정 외, 2006).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1 청소년 유해환경 척측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초 학교폭력 피해연령은 전년보다 1.5세 감소한 11.4세이며, 최근 3년 동안 피해연령은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a, 2011).

셋째, 단독폭행보다는 2인 이상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연합모임을 구성하는 등 어른들의 폭력조직처럼 조직화, 집단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윤현영 외, 2007), 이러한 학교폭력의 집단성 경향은 학교폭력의 양상이 더욱 흉포화, 범죄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문용린 외, 2005).

넷째, 이전에 피해경험이 있던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거나 또는 가해자였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등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고(정현주, 2011; 청예단, 2011), 이제 학교폭력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학생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최인재, 김경준 외, 2007),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처럼, 청소년들의 사이버 세상은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이 알기 힘들고,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따돌림은 피해의 확산이 매우 빠르고, 집단적인 양상을 띠며, 점차 극심해지고 있다.

다.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학년이나 사회경제적인 배경, 성별, 종교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개인적 요인(공격성, 귀인 방식,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등), 가족적 요인(부모 양육태도, 양육행동, 부모 간 폭력 등), 사회적 요인(또래비행경험, 심리적 지지, 교사의 태도 등)이 학교폭력과 보다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요인

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인간행동의 동기적 요소로 작용하여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이은주, 2002).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주위 사람들의 사회적 피드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학령기에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또래들로부터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한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된 학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공적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아승인에의 욕구가 좌절된 아동·청소년들은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게 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들은 또래 간에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더 약한 아동들을 괴롭힌다고 설명되고 있다(김용태 외, 1997;

Espelage & Holt, 2001; Veenstra et al., 2007). 또래들로부터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한 가지는 우월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또래승인과 또래지위를 얻고자 하는 행동은 종종 또래를 괴롭히는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또래지위를 획득하려는 학교폭력 행동은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며(Nansel et al., 2001), 특히 초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

한편 낮은 자아존중감은 피해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어리석고 추하다고 생각하며,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그리고 또래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난한다(Carney & Merrell, 2001). 심희옥(2002)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았던 아동들이 2년 후 학교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기주장과 자기방어능력을 떨어뜨려 학교폭력 피해를 초래하는 순환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agan and Perry(1998)의 3학년에서 7학년 사이의 학생들을 6개월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도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교폭력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누적으로 인한 결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Slee(1995)의 오스트레일리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피해아동들은 현저하게 빈약한 심리적 안녕 즉 더 빈약한 자아존중감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나) 공격성

공격성은 어떤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며(Bandura, Ross, & Ross, 1963), “심각하고 만성적인 공격성은 개인과 환경적인 위험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Nash & Kim, 2007, p. 231). 청소년은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또래집단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목적을 가장 잘 방해하거나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공격성을 시도할 것이라고 여겨진다(Crick & Grotpeter, 1995). 예를 들어 소년들은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성을 주로 사용하여 또래들에게 해를 입히려는 경향을 보이며, 소녀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배제를 통해 해를 입히려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들이 보이는 공격성은 학교폭력 가/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조유진, 2005; Crick & Grotpeter, 1995; Crick, Ostrov, & Werner, 2006;

Nash & Kim, 2007). 폭력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경향을 보이며 그 결과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응적인 방식보다는 공격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조성호, 1999). 공격성이 강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규범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며, 지적인 판단력이나 표현력도 부족하여 폭력을 휘두른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2).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경향과 함께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권현용, 김현미, 2009)

다)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

불안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행동이며, 이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같이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무기력을 말한다. 불안은 사회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 행동과 심리적 기능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 불안 중 사회불안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징화된다. 청소년들 사이에 사회불안은 긍정적인 관계의 결핍과 연관되며, 우울, 부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ulos, 2007). 사회적 위축행동은 주변자극에 민감하지 못하고 반응이 느리거나 사회적으로 움츠러드는 행동이며, 수줍음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청소년들이 보이는 우울과 불안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힌다(Boivin, Hymel, & Bukowski, 1995). 일반적으로 전형적인(또는 수동적인)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좀 더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민감하며 조용하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들이 불안정하고 공격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는 가치없는 개인들이라는 신호를 주게 되어(Olweus, 1988),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표적이 된다. 피해자들 가운데서도 불안과 공격적인 반응패턴 모두를 보이는 도발적인 피해자들은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점에서는 수동적 피해자와 유사하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는 반격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다(이상균, 1999). 이들의 공격적인 반응은

또래들을 자극하게 되고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Olweus, 1996).

한편 청소년들의 우울·불안문제는 단일차원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현적인 문제행동과의 동반이환 또는 다양한 내면적인 문제행동과의 동시적 발생이 이루어진다. 공격성, 비행, 사회적 위축, 우울과 불안 등은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Costello et al., 1996; 오경자, 이혜련, 1990). 선행연구에 의하면 특히 심각한 폭력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집단에서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과 함께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적인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heidow et al, 2008). 즉,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가해청소년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거나 평균에 가까운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lweus, 1995).

2) 가정 요인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생태학적(ecological systems) 관점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대인관계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피해가 발생한 경우 청소년들은 교사보다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Rigby & Barnes, 2002; Smith, & Shu, 2000),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가족요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흔히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빈약한 가정환경 등은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가정의 빈곤함은 자녀들에게 무력감, 열등감, 사회에 대한 반발, 반항심, 공격성, 폭력성 등을 초래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우선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girdao et al., 2011). 송현숙(2011)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교폭력가해 또는 피해경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정의 빈곤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는 연

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도기봉, 2008). 예를 들어, 노르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특정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Olweus, 1978). 즉, 모든 사회계층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불우한 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더 취약하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상균, 2005). 더구나 최근들어 학교폭력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조건이 좋고 학교 성적도 우수하며 학급 내에서 또래 간에 인기도 많은 학생들이 가해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교폭력 가해/피해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청소년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영향요인을 연구하고 있는 이상균(2005)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가구에 속한 청소년들이 또래폭력의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학교체계 요인의 변수들이 투입된 모형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체계 요인이 빈곤과 또래폭력 간의 관계에 억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또래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변인을 비교한 연구로는 박경숙 외(1998)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이 춘재와 광금주(199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500명의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사회적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피해여학생에 비해 가해여학생의 경제적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족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온 변인이 바로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부모의 양육태도(Baumrind, 1991)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행동으로, 권위있는 부모양육태도, 무관심한 부모양육태도, 허용적이거나 권위주의(전제주의)적인 부모양육태도로 구분된다. 혹은 과잉보호 부모, 과잉허용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 완벽주의 부모, 무관심한 부모, 균형잡힌 부모로 구분하기도 한다(데이비드 클락, 2003, 손은주, 2008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를 촉발시키는 위험요인이자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억제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를 특징지운다. 즉, 부모의 애정과 관심의 결여, 부정적인 태도, 자녀의 피해를 경시하는 태도, 부모의 권위적인 태도(곽영길, 2007), 부모의 감독부재와 방임과 학대(조유진, 2005) 등은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 양자 모두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는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조혜진, 2003). 아동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낮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많이 하며, 또래로부터의 친사회적인 행동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결여와 부정적인 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중요한 친밀감이나 공감의 결여와 연결되어 또래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공격당하기 쉽다고 한다(Finnegan, Hodges & Perry, 1998, 조혜진, 2003 재인용).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 그리고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고 권위있는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더 잘 행동하며, 적응문제를 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Spera, 2005). 그들은 또한 더 큰 심리사회적 유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행동적 역기능은 낮은 수준을 보인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차별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비밀관적 양육태도 등)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체벌과 같은 공격적인 양육, 비밀관적 양육 전략을 경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arney, & Merrell, 2001; Espelage, Bosworth & Simon, 2000; Olweus, 1996). 가해자 가정의 양육태도를 보면 처벌이 중정 변덕스러우며 가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의 삶에서 칭찬, 격려, 유머와 같은 것들은 드물다고 이야기된다. 폭행, 빈정거림, 비난은 가해자의 가정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규칙이다(Greenbaum, Turner, & Stephens, 1989). 가해자들은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롤모델을 거의 받지 못하며, 자신들의 행방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Robers Jr. & Morotti, 2000). 가정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성장한 연유로 인해 반항심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비교적 강하며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사랑이 일방적으로 부족한 경우 자녀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의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첫째, 자녀양육기간동안 주양육자의 자녀를 향한 기본적인 정서적 태도가 무관심하고 따뜻함이나 참여가 결여되는 것 둘째,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특성 셋째, 신체적 처벌과 같은 권위적인 훈육태도 마지막으로 자녀의 기질이 활동적이거나 성미가 급한 특성 등이다(Olweus, 1995). 아래의 표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이와 연관된 자녀의 문제를(데이비드 클락, 2003, 손은주, 2008 재인용)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표 2.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자녀의 문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자녀의 문제
과잉보호 부모	자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양육태도	의존적이고 사고성이나 창의성이 부족하며,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
과잉허용 부모	낮은 행동적 통제 비일관적 규칙적용	위축행동, 낮은 또래동맹, 품행장애 등
권위주의 부모	높은 수준의 가혹하고 처벌적인 행동적 통제, 낮은 정서	부모에게 분노, 반항적 행동 매우 수동적이고 폐쇄적 성향
완벽주의 부모	자녀의 미성숙, 실수 미용납 자녀의 부정적 측면 부각	완벽주의자 모든 것을 포기
무관심한 부모	부모노릇을 귀찮아 함 자녀와의 상호작용 하지 않음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
권위있는 부모	사랑과 훈육간 균형과 조화 부모의 정서와 행동적 통제	건강한 자존감 형성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형성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이론을 강조하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들은 가족구성원 간의 일상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면서 힘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 공격적 행동을 가하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Patterson, 1986). 가해이동들의 부모는 흔히 자녀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복하고 반격하라고 가르친다고 한다(고성혜 외, 2003). 통제형 양육행동은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방임형 양육행동은 공격성, 학교폭력 가해, 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복실, 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대, 방임, 비일관적인 경우 학교폭력가해경험이 많았다(김정옥, 장덕희, 1999; 조유진, 2005; 송현숙, 2011).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방식인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rney & Merrell, 2001). Olweus(1980)는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어린 소년들 그리고 너무 많은 자유가 허용되고 공격적 행동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훈육을 받은 어린 소년들은 특히 공격적인 청소년으로 발전한다” (p. 657)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이 보이는 공격적이고 위압적인 행동들은 또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호주의 가정폭력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ational Crime Prevention, 1999, Lodge, 2008 재인용).

Zhou et al.(2002)는 부모양육과 자녀의 사회적 기능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감정이입은 공격성의 중요한 억제요인이다. 왜냐하면, 감정이입(empathy)은 사람

들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동기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의 감정이입을 촉진하는 부모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적 욕구에 반응적인 것을 포함하며, 정서적 표현을 가능하도록 한다(Barnett, 1987, Zhou et al., 2002 재인용). 또한 아동의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성을 장려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양육, 아동의 감정이입, 아동의 사회적 기능 간에는 이론적 관계가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부모의 따뜻함과 자녀를 향한 ‘긍정적인 표현’은 높은 수준의 아동의 감정이입과 연관되어 있었다. 차례로, 아동의 감정이입은 더 적은 교사보고의 아동의 외현화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Culp et al.(2003)에 의해 수행된 Head Start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따뜻함과 감정이입이 결여된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운동장에서 또래를 괴롭히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었다. 자녀에게 감정이입을 잘 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정서적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정서적 욕구에 잘 반응을 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감정이입을 억제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표현도 억제를 한다. 아일랜드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해자들이 일반 아동들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더 많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국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이 비가해자들/비피해자들보다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Curter-Smith et al., 2006).

이러한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으나, 아영아와 정원철(2007)은 문제적 양육태도를 포함한 부모위험요인이 공격성과 또래위험요인의 경로를 거치면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이나 또래위험요인을 증가시켜 학교폭력경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부모들이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반면 수용가능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경계를 제공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학교폭력 행동에 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Lodge, 2008).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들을 밀접하게 지도 감독하며, 자녀들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가족내·외부에서 자녀들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유효하다(Georgiou, 2008). 즉, 자녀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 따뜻하고 수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자녀들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 등과 같은 부모양육 실천은 자

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며(도현심, 최미경, 1998), 가해행동과 부적상관을 가진다.

학교에서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들도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또래보다 이동학대, 빈약한 애착, 그리고 빈약한 갈등관리와 같은 가족이력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Perry et al., 1991, Georgiou, 2008 재인용). 부모가 우울, 불안, 또는 분노와 같은 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부모의 정서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과 결합하여 자녀의 외현화, 내면화 문제행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Mulvaney et al.(2007)에 의하면, 화가 난 부모들은 좀 더 자녀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고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면 우울하거나 불안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내면화 문제를 좀 더 많이 보고하고 있었다(Georgiou, 2008).

일반적으로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주도성을 차단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나 다른 아동에 의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을 제한한다(Stevens, De Bourdeaudhuij & Van Oost, 2002; Georgiou, 2008). 아마도 높은 불안과 극단적으로 과보호적인 어머니들은 차례로 자녀들이 수동적이고 순종적 이도록 하고, 자녀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허약하고 귀찮게 조르는 행동은 가해자들의 표적이 쉽게 되어 피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한편 부모양육태도 중 허용적인 부모양육태도 역시 피해와 높은 연관을 가진다.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육행동 특성으로 '부모의 통제' 를 지적하고 있다(Perry, Hodges & Egan, 2001).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부모와의 분리와 독립성을 제한하고, 나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이다. 부모가 지배적이고 간섭을 많이 할 때, 아동은 위축되거나 수줍은 행동을 보이기 쉬우며, 아동의 수줍음은 학교폭력 피해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다(도현심 외, 2003).

한편, 학교폭력과 관련된 청소년들 중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피해와 가해행동 모두를 경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해자의 44%는 피해경험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54%는 가해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박순진, 2009). 이를 보면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인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여 가해자는 '나쁜 아이', 피해자는 '선한 아이' 라고 구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이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오히려 가해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이 참다 못해 가해자로 돌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가해/피해 집단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래집단으로부터 공격적인 피해를 당하고 이에 또 다시 공격적으로 반응

함으로써 피해와 가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이다(신희경, 2006). 이 공격적인 피해자 집단은 분노와 불안과 같은 정서수준이 높고 정서 및 행동조절 수준과 자아개념은 낮은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래로부터 배척되어 외톨이로 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박종호, 2003; Woods & White, 2004) 또한 이들은 학교생활 적응력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폭행이나 간접적 공격성 등에서는 더 높은 수준을 보고하고 있었다(정지민, 1998).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부부간 갈등을 목격할수록 이들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희경, 2006). 이는 무엇보다 부모의 공격적인 양육태도가 모델링 효과를 통해 자녀의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자녀의 공격성을 발달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를 예방하는 또는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부모의 가혹하고 처벌적인 태도, 불안정한 애착관계, 정서적 학대, 긍정적인 롤모델로서의 기능결여 등은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밀접히 연관된다. 따라서 자녀의 학교폭력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관계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민주적이고 권위있는 부모양육태도의 확립과 함께 자녀와 밀접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가정폭력 및 부모 간 폭력경험의 영향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은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영향을 주며(조준범, 2010),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할 위험이 높았다(김재엽, 정윤경, 이진석, 2008). 김재엽과 이순호(2011)의 전북 군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중 44.9%가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6%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은 학교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이 많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가 증가하였다. 이 경로에서 공격성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발견되어,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공격성이 높으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직접적인 폭력경험 뿐만 아니라 부모가 폭력에 대해 가진 태도 또한 자녀의 폭력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히 행동에 대한 지각(perceptions on behavior)이 강조된 사회인지학습이론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일련의 연구결과에서는 공격

성이나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들의 대인관계 대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lwell, Mize, Pettit & Laird, 2002; Solomon, Bradshaw, Wright & Cheng, 2008).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한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 자녀 간 유대감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또래괴롭힘 가해 또는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임정임, 김예성, 2010). 즉 자녀가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폭력, 가정에서 목격한 폭력,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등이 광범위하게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방식이나 의사소통 방식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부모 자녀 간의 문제적인 의사소통은 학교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아영아, 정원철, 2007), 부모 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교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학교폭력피해학생들은 우울증을 덜 경험하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ors-Burrow et al., 2009). 또한, 김재엽과 이근영(2010)은 음주와 흡연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갖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함으로써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긍정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학교폭력피해경험 하에서도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2001)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높아지는 조건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낮아질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조절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낮으면 자녀의 학교적응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높으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모들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해야할지를 모를 수 있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대처양식을 지시할 수도 있다(Mishna, et al., 2006; Rigby, 2008).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를 직접 만

나는 것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심화시키거나, 부정적인 대처양식을 모델링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nter, Boyle & Warden, 2004; Mishna et al., 2006). 그러므로 학교폭력피해학생의 부모에게 부정적인 대처를 줄이고, 효과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3) 학교 및 또래요인

학교는 또래집단을 사귀고 자신의 학문적·사회적 능력과 한계를 경험하는 장소이자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

학교요인과 관련하여 학교 규모와 학급의 학생 수, 그리고 학교내 경쟁상황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밝혀지지 않았다(Olweus, 1996). 그러나 학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가해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그러한 스트레스 중 학업수행이 주는 스트레스는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학교에 대한 관심이 적고 학업성취 정도가 낮은 경우 학교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해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용린 외, 2005).

이밖에 교사와의 관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사와 갈등관계에 있을수록, 그리고 교사에게 불만이 많을수록 폭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lweus(1995)는 교사의 애정과 긍정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교 당국의 학생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소홀, 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도에 대한 규제의 부재, 그리고 문제행동과 규칙위반에 대해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것과 같은 특성이 학교폭력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학교가 자신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고립되어 있고 또래와의 관계가 나쁠 것이라는 통념과는 반대로, 이들은 사회기술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된다. 가해 학생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우월함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전략을 선택하고(Bosworth et al., 1999), 또래와의 유대관계를 잘 맺는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사회기술의 결여로 또래와의 유대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기술이 결여된 아동·청소년

들은 좀 더 자주 괴롭힘 행동의 표적이 된다. 동시에 또래들은 피해자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어울릴 경우 자신들도 피해자가 되거나 또래지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Nansel et al., 2001). 아동·청소년이 홀로 고립되어 있어 또래들로부터 낮게 평가되는 것은 가해자가 그를 학대의 표적으로 삼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래거부 되는 아동·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처럼, 역으로 또래와의 유대관계는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설명된다. 학급 안에서 학교폭력 피해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친한 또래가 있을 경우는 이에 적절히 방어하거나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또래들과의 유대를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은 이후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호한다. 먼저 공격적인 아동·청소년들은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오는 보복을 두려워하게 된다. 둘째로는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은 혼자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친구가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갈등과 피해의 위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관해 친구의 충고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변귀연, 2002).

한편 일탈또래와의 접촉은 가장 강력한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예측변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중·고등학생(이상균, 1999), 초등학생(이문자, 2003) 등 모든 학령기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이다.

차별접촉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지역의 문화를 학습하여 그것을 내면화함으로써 동조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이 일탈행동을 하는 것도 자기 주위의 문화양식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일탈적인 친구들과 접촉함으로써 좀 더 일탈적인 신념을 받아들여지게 되며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일탈친구들과의 접촉은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주요한 예측요인이 된다(이문자, 2003; 조유진, 2005).

이렇듯 학교폭력은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감,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비행친구들과의 어울림, 공부에 대한 부담, 폭력적인 대중매체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특성만으로, 또는 가정만의 책임으로, 아니면 교사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함께 부모양육태도나 부모-자녀관계의 개선, 사회환경의 개선, 학력으로 인한 불평등의 해소, 또래상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2. 학교폭력 가해·피해 유형별 특성 분석

가. 가해 청소년들의 특성

공격성이 강하면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며, 지적인 판단력이나 표현력도 부족하여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향을 보인다(권오명, 2005). 대부분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과도하게 공격적이며 파괴적이고, 다른 아동들을 지배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며(NSSC, 1995, Smokowski & Kopasz, 2005 재인용), 성을 잘 내며, 충동적이고 좌절을 못견뎌하고, 피해자에 대해 공감능력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lweus, 2003). 또한 자신에 대한 낮은 통제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미래보다 눈앞의 상황에 대해 몰두하기 쉽고, 좌절감을 참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감이 공격적 행위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자신의 욕구충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미래의 만족보다는 현재의 욕구충족을 위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이상균, 2005).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가해행동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성격장애, 학교 및 사회부적응 등의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 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불안감, 사회적 고립감, 교사와의 관계 악화, 교우관계의 악화, 분노, 현실부정,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드러난다. 이러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한 가해학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행동이 심각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부적응 및 범죄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아동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은 신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그리고 과잉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표출하며, 성인이 된 이후 재산상의 범죄에 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raig et al., 1998).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음주나 흡연과 같은 다른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어(Nansel et al., 2001), 어린 학생들이 학교폭력 행동에 관여하는 것은 범죄나 알콜남용과 같은 이후의 더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행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6학년부터 9학년까지 가해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년들 중 대략 60%에 달하는 소년들이 한 번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35%에서 40%에 달하는 소년들은 24세가 되어 적어도 3가지의 범죄행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반면 가해자가 아닌 소년

들은 오직 10%의 소년들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Olweus, 1995). 또한 가해자들이 30세가 된 이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유죄판결을 더 많이 받으며, 교통위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배우자를 향해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신체적 처벌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2000).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미치는 더 큰 문제는 세대 간 전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아동기에 가해자였던 성인들의 자녀들 역시 가해자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Carney & Merrell, 2001, Smokowski & Kopasz, 2005 재인용). 따라서 학교폭력 행동은 단일차원, 한 세대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해자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가해자들이 대인관계 기술이나 사회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 가해자들은 사회의 흐름을 읽고 투시하는데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그 능력을 사회친화적인 행동에 쓰지 않고 또래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데 쓸 뿐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해자들을 공격적 가해자(aggressive bullies)라고 하는데, 이들은 가해자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체격이 좋고 충동적이고 쉽게 흥분하고 호전적이며 위압적이고 대담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감정에 무심하다. 즉,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은 공격성이 높고 힘이나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에 따라 행동하며, 성인을 향해서도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저학년층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 반면 소극적 가해자(passive bullies)는 공격적인 가해자보다 인기가 없고 자부심이 떨어지며, 가정환경도 불우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폭력적인 기질이나 격정적인 행동패턴으로 인해 이들은 피해자가 되기 쉽다. 주로 강자에게 충성하며 불안이 높아 불안해 하는 가해자라고도 한다(문용린 외, 2005). 한편, 학교폭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한 가지는 가해와 피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어 나타나기 쉽다. 가해행동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가 가해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해와 피해의 경협이 중첩되어 있는 가피해자들의 경우는 가장 복잡한 심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김주희, 2005). 이들을 가해-피해자(bully-victims)라고 하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운동적 능력에서는 가해자와 비슷하고, 학업적 능력이나 전반적인 자아개념은 피해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Austin & Josep, 1996; 김주희, 2005 재인용). 이들은 신경증 영역과 정신병적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피해자는 전형적인 피해자보다 신

체적으로 강하고 자기주장도 강하며 또래에서 가장 인기도 낮고 매우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도발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지적된다(김종미, 1997). 또 이들이 가해자나 피해자에 비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이야기된다. 한편 피해와 가해경험을 모두 가진 이들을 가해-피해자(bully-victims)라고 한다. 이들은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아동들은 공격성을 사회적으로 학습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아동보다 더욱 공격적이며 폭력적이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 중에서는 소수를 차지하며, 자기보다 약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이들은 우울과 불안의 심각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순수 가해자(pure bullies)집단이 있다. 이들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학교폭력을 활용한다. 일명 '냉정한 조정자' 라고도 불리운다. 자신은 학교폭력에 시달린 적이 없으며,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한다.

나. 피해 청소년들의 특성

전 세계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의 심리적, 신체적 손상과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산물을 가진다(Slee, 1995). 학교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외로움, 우울·불안 등의 내면적인 문제와 더불어 또래와의 관계상의 문제, 품행문제와 같은 외현적인 문제를 동시에 나타낸다(박효정 외, 2005; Bond et al, 2001; Olweus, 1995).

쉽게 울기, 과도하게 걱정하기, 심하게 불안해하기, 슬퍼하기 등 내면화 증상을 가진 학생들이 주로 학교폭력 행동의 피해자가 되기 쉽지만, 피해가 지속되어도 차례로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가져온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은 내면화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인식은 차례로 청소년들의 우울증상을 발전시킨다(van Hoof et al., 2008).

이들이 가지는 후유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정서적인 후유증(우울, 불안과 공포, 낮은 자존감, 분노, 죄책감 및 수치심)

둘째, 인지적인 후유증(해리나 환청과 같은 지각장애)

셋째, 생물학적 후유증으로 신체장애(신체화, 신경증적 증상)

넷째, 행동적 후유증(자살행동, 물질남용, 인격장애)

다섯째, 대인관계상의 후유증(성문제, 피해의 반복, 폭력의 대물림)(McCann, 1998, 장

맹배, 2011 재인용).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피해경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수동적 피해자'와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가지고 공격받을 때 반격하려는 '공격적 피해자'이다(Olweus, 1996). 이 중 대부분 즉 2/3가량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수동적 피해자(passive victim)로, 나머지 1/3은 공격적인 태도를 가진 공격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로 구분된다(Olweus, 1996; Salmivalli, 1998).

수동적 피해자는 이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더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민감하며 조용하다.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고통을 받는다. 수동적 피해자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 학교 생활에서도 외롭고 모두가 자포자기한 상태를 가지기 쉽다. 남학생들의 경우 신체적으로 허약한 경우가 많다.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종종 교사들로부터 과잉보호를 받는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자들은 자신과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들이 공격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는 가치없는 개인들이라는 신호를 주게 되어 지속적인 괴롭힘 행동의 표적이 된다. 수동적인 피해자들은 불안하고 복잡적인 반응패턴과 신체적인 허약함(소년들의 경우에만)이 결합된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빈약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그 결과 주장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불안과 공격적 반응패턴을 모두 보이는 공격적 피해자들은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수동적인 피해자와 유사하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적인 행동을 받았을 때 반격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다(이상균, 1999; Carney & Merrell, 2001). 이들의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은 학급의 다른 급우들을 자극하게 되고,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Olweus, 1996). 이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일방적인 태도가 주위와 어울리지 못하고 충돌함으로써 다수에게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공격적인 태도를 가진 피해자들은 학교에 무기를 가지고 오거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싸움에 더 많이 휘말리고 있다. 또한 심각한 장기적인 비행행동에 관여할 위험이 높다(Smokowski & Kopasz, 2005). 예를 들어 1999년 미국의 Columbine High School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가 지속적인 학교폭력 행동의 피해자였고, 나아가 미국의 총기사건의 가해자들 중 2/3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행동의 피해자였음이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부정적인 결과는 더욱더 주목받게 되었다.

학교폭력 피해와 연관되어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는 이전의 피해자들이 자녀를 가질 때 자녀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할까봐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보호의 세대간 전이는 자녀들의 갈등해결 기술의 발달을 억제하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위험을 높인다. 즉, 과보호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지속됨으로 인해 자녀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학교를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업수준이 다른 또래들보다 더 낮은 경향이 있고, 더하여 피해자들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성인들보다 더 우울한 경향을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 피해자였던 이들은 이전의 가해자들을 살해하는 것을 포함한 보복행위를 한다(Carney & Merrell, 2001; Loeber & Hay, 1997).

3. 학교 폭력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 부모교육의 이해

1) 부모교육의 정의

부모 교육의 정의는 목적, 대상내용 그리고 방법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며, ‘부모교육’ 이라는 용어 외에도 일반적으로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 부모개입(Parent Involvement), 부모훈련(Parent Training), 그리고 부모역할하기(Parenting)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된다(백순옥, 2001).

Kaiser와 Mahoney(1999)에 의하면 부모교육은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부모의 노력과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 부모학습활동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켜 부모와 자녀 모두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Pehrson & Robinson, 1990). Earhart(1980)도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위한 정보나 지침을 마련해 주는 모든 형태의 활동이나 경험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Croake와 Glover(1977)는 부모교육을 “자녀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 자녀들과의 상호작용 방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의 의도적인 학습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Becker(1982)는 부모교육을 광의로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행동양식을 교육하는 것이며, 협의로는 부모가 자녀를 성공적으

로 키우도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 조직화된 활동으로 보았다(김정옥, 구향숙, 2006).

신용주와 김혜수(2002)는 부모교육자의 자질향상과 부모의 역할수행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부모와 예비부모, 그리고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문제와 자녀교육 문제를 내용으로 모든 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Fine(1988)에 따르면 부모교육의 목적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돕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정보나누기(information sharing), 기술훈련(skill building), 자기인식(self-awareness),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등을 익혀서 부모들이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훌륭한 부모' 를 목표로 하여 자녀를 이해하고 돕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부모를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오영희 외, 2004).

황옥자(1987)는 부모교육의 목적을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먼저 부모를 위한 목적은 부모가 바람직한 인품을 갖추어 나가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 의식을 향상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태도와 책임감을 발달시키는 것 등이다. 자녀를 위한 목적은 자녀로 하여금 전인발달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부모교육은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종합하면, 부모에게 부모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오영희, 송영란, 강영식, 2004), 바람직한 부모의 자질을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자녀의 성장, 발달에 효과적으로 관여하는 전략을 구안하는 계획된 교육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을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도록 부모들이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구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보나누기(information sharing), 기술 훈련(skill building), 자기인식(self-awareness),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등을 익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2) 부모교육의 역사와 이론적 토대

가정은 청소년의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유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 방식,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 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비행,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고리의 시작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폭력

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정의 구조적 결손(송현숙, 2011), 가정폭력 및 학대의 경험(조춘범, 2010; 김재엽 외, 2008), 부모의 양육태도(곽영길, 2007; 이복실, 2007; Carney & Merrell, 2001; Georgiou, 2008), 부모와 자녀간의 건강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아영아, 정원철, 2007; Connors-Burrow et al., 2009) 등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를 예방하거나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모와의 유대가 강할수록 부모의 기대에 자녀들은 부응하고자 하며,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청소년의 일탈욕구를 억제한다(정진성, 2008). 부모와 사랑과 존중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 적어도 한 부모와 따뜻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청소년의 산물과 연관된다. 이렇듯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긍정적인 훈육방법, 모니터링과 슈퍼비전, 그리고 친사회적이고 건강한 가족가치와 기대에 대한 대화 등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한다(Ary et al., 1999;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2000). 가족의 위와 같은 요인을 보호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족의 적응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에서는 자녀가 삶에서 꿈과 목표를 가지도록 돕는 부모의 지지는 주요한 보호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Kumpfer, 1999).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 기반 하에 행동관리 훈련을 통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Burke, Brennan & Roney, 2010). 이에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발전되었다(Gorden, 2000; Leung, Wong, Chen WQ & Tang, 2008). 이들 프로그램들에서는 부모양육 실천의 향상과 청소년의 위험추구 행동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높은 수준의 공격성, 비행행동의 억제, 또는 마약남용과 같은 위험행동의 해결 등이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부모교육에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은 찾기가 힘들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된 ‘자녀에게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내용을 가미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강의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되었고, 피해청소년의 치유를 위해 피해자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도 요구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자 부모들의 욕구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특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국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1) 국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1995)은 가장 잘 알려진 규칙준수와- 승인 개입 방법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당국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동료관계를 개선하고 학교를 안전하고 즐거운 장소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다차원적인 학교-기반 프로그램으로, 학교환경을 재구조화하여 학교폭력의 기회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표 3 Olweus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최인재, 김경준 외, 2007)

영역	구성요소
일반 필수조건	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인의 참여(**)
학교 수준의 개입	설문조사(**)
	학교회의의 날(School Conference Day)(**)
	휴식 및 점심시간의 효과적인 감독(**)
	조정그룹의 구성(**)
	교직원과 부모와의 회합(*)
학급 수준의 개입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학급규칙(**)
	정규적인 학급모임(**)
	부모와의 화합(*)
개인 수준의 개입	폭력 가해 및 피해에 관한 진지한 대화(**)
	가담 학생 부모와의 진지한 대화(**)
	교사와 부모의 상상력의 활용(*)

※ 주 : ** 핵심 구성요소, * 매우 바람직한 구성요소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래관계 증진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슈퍼비전을 위한 협동적인 시스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부모회의와 가해자와 피해의 표적이 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의 개입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부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협의회(school conference day)에 교장, 교감, 학교폭력 전담교사, 학교폭력 위원회, 부모와 학생이 참여하여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장기계획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위원회에 부모 및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의 학교에서는 따라서 학부모와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부모가 전화통화나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부모에게 우편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따르는 행동을 하면 칭찬과 강화를 하고, 규칙을 위반하면 일관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부모를 교육하고 있으며, 자녀와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녀의 행동을 모니터하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집단 따돌림에 초점을 둔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세계 16개국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박효정, 2005).

영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보이는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또는 반항적인 행동에 주요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동기 행동문제가 이후 비행과 범죄와 연결되며, 행동문제를 보이는 사례 중 약 50%가 성인기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이어진다고 보고, 조기개입을 강조하고 있다(Eva-Maria et al., 2011). 이러한 문제해결에서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하며, 따라서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문제를 보이는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양육 태도와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자녀의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도록 개입하고 있다. 이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부모교육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략 8-12주, 1주일에 1.5시간-2시간동안 실시된다. 영국의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에 의하면, 영국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대략 두 가지로 초점이 나뉜다. 첫째는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며, 두 번째는 행동수정방식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후자는 Positive Parent Program(Triple P)과 Incredible Yeard를 들 수 있다. Eva-Maria et al.(2011)이 영국에서 실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아동의 품행장애 사례가 사전사후 검사 결과 약 34%의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중 부모와 관련하여서는, 학교기반으로 부모대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

며, 기능적 가족치료, 가족강화 프로그램 등이 실시된다(고성혜 외, 2003). 또한 폭력예방 심화커리큘럼(Second Step Violence Curriculum)은 유치원 이전부터 중학교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과정으로, 유치원 이전의 학생들의 부모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학부모용 프로그램은 비디오, 가족지침서 등이 제공되며, 학부모 집단미팅이 활용된다(Frey, Hirschstein, & Guzzo, 2000, 문용린 외, 2005 재인용). 프로그램의 목적은 관점 채택, 대인관계 문제해결, 충동 통제, 분노조절능력의 발달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한편 미국 비행예방사무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법무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주제와 영역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유타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소년의 비행, 공격성, 약물남용에 더하여 연관된 부정적인 행동의 감소를 위해 가족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하였다. 1989년부터 시작하여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8개 주정부 청소년 서비스 기관들이나 문헌에서 5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추출하고, 이중 35개의 가족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확인하였다(Kumpfer & Alvarado, 2003). 학교폭력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이에 포함되며, 기능적 가족치료, 다중체계 치료법처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기능적 가족치료 프로그램은 11-18세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며, 다중체계 치료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책임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가족성원들이 매일 혹은 매주 해야 할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부모양육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려는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 중 OJJDP에서는 미국의 가족을 강화시키려는 접근방식을 강조하지만(Alvarado, Kumpfer, Kendall, Beesley, & Lee-Cavaness, 2000),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에서는 가족-중심접근법(Family-Centered Approaches)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중심 접근법에서는 부모교육, 부모지지, 부모훈련, 가족기술훈련, 가족교육, 가족지지, 가족의 보호, 가정안에서의 가족지지, 과제활동을 통한 청소년 프로그램에의 가족의 참여, 가족 치료 등이 포함된다. 이들에 의하면, 인지행동적 부모훈련, 부모기술훈련, 간단하게 매뉴얼화된 구조적, 행동적 가족치료만이 강력한 효과성을 가진다고 한다. 이중 행동적 부모훈련은 부모집단만을 대상으로 6-15회기, 1-2시간동안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부모의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Patterson과 동료들(Patterson, Dishion & Chamberlain, 1993; Patterson & Narrett, 1990)에 의하면, 고위험 가족에게는 적어도 45시간의 행동적 부모훈련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부모에게는 읽기와 토론보다는 리더가 이끄는 롤플레이가 좀 더 효과적이었다. 그 외에도 The

Aware Parenting Model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지, 반응, 지도, 그리고 자녀의 정서에 대한 수용과 같은 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11주 동안 일주일에 한번, 한 회기에 2시간동안 운영된다. 각 회기마다 간단한 강의 후에 부모들과의 상호작용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 시간에 부모들은 습득한 기술을 연습한다. 모든 회기동안 코리더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주의, 지지, 반응성과 같은 것의 모델역할을 하게 된다(Bronseim et al., 199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의 부모들이 통제집단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 대한 지도가 증가하고, 자녀의 욕구에 좀더 반응적이 되었으며, 1년 후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부모들이 통제집단의 부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모지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더하여 실험집단의 자녀들은 추적조사에서 학업적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통제집단의 자녀들은 학업적응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자녀들이 자기개념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을,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에서는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Hoard & Shepard, 2005).

표 5는 각 국의 학교폭력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호주에서는 학교전체를 기반으로 한 학교폭력 개입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Friendly Schools and Families(Cross & Erceg, 2002, Lodge, 2008 재인용)는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실행과 맞춤형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개입에서는 직원교육과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 모두를 통합시키고 있다. 특히 과정 중에 가족의 참여를 강조한다.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팸플릿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지 또는 예방할 지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이 개입방안에서는 반응적이고 책임감있으며, 권위있는 부모양육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학교폭력의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제(Rigby, 1993)아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의 향상, 사회기술과 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자녀가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또는 방관자이던 간에 학교폭력에 관여되어 있다면, 자녀들은 특히 부모의 이해와 믿음을 필요로 할 것이며,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자녀들은 갈등해결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들을 지지하는 방법 중 하나로 부모들이 효과적인 경청기술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적인 대화를 하도록 촉진하고 있다(Lodge, 2008).

표 4. 각 국의 학교폭력 부모교육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적	내용
노르웨이	· Olwue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 안전 한 학교환경 조성 · 폭력에 대한 인식 · 성인들의 참여 · 또래관계 증진	· 부모의 학교폭력 대책논의 참여 촉진 ·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제공 · 규칙제정과 모니터링
영국	· Triple P · Incredible Year	· 부모양육 태도 수정 ·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 품행장애 수정	· 부모의 양육태도 수정 · 부모-자녀관계 향상 · 행동수정
미국	· 기능적가족치료 · 가족강화 프로그램 · 가족중심 접근법 · 폭력예방 심화 커리큘럼	· 학교의 안정성 증진 · 학교기반 부모교육 · 아동의 사회적 능력 향상	· 학부모 교육용 비디오 · 학부모 집단미팅 · 규칙제정과 실행 · 모델링, 리허설, 역할극, 언어 중재과정
호주	· Friendly Schools and Families · ABCD Parenting Program	· 직원교육, 부모, 지역 사회참여를 통합 · 권위있는 부모양육 방식 촉진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향상 · 사회기술과 전략 구축 · 상호작용적 대화
일본	· 학생지도	· 정보·도덕교육 ·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이들 보호 · 연계체제 구축	· 가정교육 수첩, 비디오 자료 작성 및 배포 · 가정내 인터넷 감시 시스템 보급

이외에 부모-자녀간 관계를 증진시켜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호주 멜버른 북서부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된 ABCD Parenting Program이 있다.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멜버른 북서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9-14세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한 행동적 가족개입 프로그램으로, 수용-기반 전략을 통합시킨 심리교육적 개입프로그램이다(Burke, Brennan & Roney, 2010).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들에게 신뢰롭고 긍정적인 수용적인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차례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경계 안에서 독립성을 기르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6주동안 총 6회, 한 회기당 2시간동안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다음 4가지 주제하에 진행된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발달시키는 것, 두 번째,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세 번째, 청소년기 자녀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셀프-케어.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모두 21개 ABCD 부모교육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총 180여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의 감소와 관계의 증진, 의사소통의 향상, 부모의 자아효능감과 심리사회적 웰빙의 향상, 청소년의 부정적 행동의 감소와 긍정적 행동의 증가 등이 나타났다.

일본 역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행위와 이지메는 여전히 ‘학생지도’의 시급한 현안과제이며,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개입방안을 살펴보면, 가정에 정보·도덕교육과 유해정보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가정교육 수첩과 가정교육 비디오 자료 등을 작성, 배포하고 가정에서의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보급, 확산시켜 유해정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정·지역·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구축을 위해 문부과학성뿐 아니라, 후생성,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일원화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학생 개개인의 문제에 맞는 적합한 대응을 위해서 학교, 교육위원회, 관계기관으로 이루어진 서포트 팀을 구성하여 지역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전국 47도도부현에 각 4개씩), 문제행동과 연결되는 부등교 학생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내외의 현황과 기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김미란, 2005). 즉,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아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재 국내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심리상담연구소, 한국심리교육센터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심리상담연구소는 PET 프로그램을, 한국심리교육센터는 AP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보급하고 있다. 반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1993년부터 총 6종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급하여 왔다.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인간중심 상담이론에 근거하여 부모 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의 증진,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바탕을 둔 부모-자녀관계 개선방법, 그리고 행동주의 이에 근거한 훈육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 대한 이해(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특성, 개인적 특성)

둘째,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중년기 위기를 맞이하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자녀에 대한 기대, 개인적 욕구)

셋째, 의사소통 기술(나 전달법)

넷째, 갈등해결 방법(효과적인 훈육방법)

다섯째,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

한편 국내에서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

일반적인 부모교육에서 자녀와의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회기	주제	내용
1	나는 어떤 사람일까?	- 성격유형검사 및 해석을 통한 자기유형 파악 - 우리들의 약속
2	“부모-자녀” 대화하기	- “대화의 장애물 체험하기” 실습 -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하는 효과적인 방법 및 실습 - 말하는 사람의 역할 : 내마음 전달하기 실습
3	“부모-자녀” 눈높이 맞추기	- 청소년기의 발달특성 - 5 가지 상황예시 (예시에 따른 자녀의 감정과 부모의 감정을 파악 하여 공감하며 들어주기와 내마음 전달하기 실습)
4	자녀와의 갈등해결은 이렇게	- 분노조절 : 화 가라앉히기 순서 - RET의 주요개념 - 성격의 ABC이론 -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단계
5	“부모-자녀” 함께 세상바라보기	-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 청소년과 연예인 - 청소년과 소비문화 - 청소년과 외모, 패션

국외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주로 비행과 관련하여 개입하며, 국내에서도 학교폭력이라는 범주보다는 비행의 범주에서 개입이 실시된다. 예를 들어 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들어 사용되고 있는 일탈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일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 대화법에 관한 교육, 가족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억제와 교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 표6과 같다.

표 6. 일탈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

차시	주제	프로그램 목표	교육내용	과제
1	O.T	오리엔테이션	· 훈련과정 소개	
	프로그램 개관	· 자녀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반성한다. · 자녀에 대한 올바른 사랑 실천 방법을 강구해 보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 사회적 부모상에 대한 이론 제시, 습득 후 설문 ⇒ 자신이 어떤 부모에 속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 · 소집단 토론활동 ⇒ 올바른 자녀 사랑 방법에 대한 소집단별 토론, 발표(PPT) ⇒ 잘못된 사랑법과 올바른 사랑법을 구분 하는 방법 강의 · 돌아보며 ⇒ 자신의 잘못된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1. 자신의 잘못된 사랑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사랑법의 계획을 작성 2. 자녀들에게 사랑의 문자 메시지 보내기 (주3회)
2	인간 이해 & 자기 이해	· MBTI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개 개인의 성격과 특성의 차이를 인정한다.	· MBTI 검사를 실시 ⇒ 각 성격 유형에 대한 강의 · 성격유형별 그룹 활동 ⇒ 자신이 속해있는 그룹의 성격 파악, 자기이해활동 ⇒ 다른 그룹의 성격을 알고 각각의 성격유형의 차이점 인정 · 부모와 자녀 간의 성격역동에 대한 강의	자녀의 성격유형을 파악하여 자신의 성격 유형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정리하기
3	청소년의 특성 이해	·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 알기 · 자녀가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이해하기	· 2차 성장과 청소년의 변화 ⇒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본 변화 양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 · 소집단 토론 ⇒ 강의 후 자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본 변화 양상을 적용하여 조별 발표 (PPT이용)	자녀의 발달상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첩 만들기
4	청소년 문화이해	· 청소년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 일탈 청소년 문화를 파악하고, 자녀가 일탈 청소년임을 인정한다. · 영화자료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한다.	· 동영상 보기 ⇒ 청소년 문화와 관련(공연) · 소집단별 토론 ⇒ 토론을 통해 청소년 문화 알기 ⇒ 청소년 문화에 대한 생각 · 일탈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자료 ⇒ 일진회, 청소년 흡연에 대한 보도자료 제시 · 영화 ‘몽정기’ 시청 · 자유 토론 ⇒ 감상 후에 청소년 문화에 대한 토론	1. 자녀의 일탈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아 보기 2. 자녀들의 문화생활, 취미 활동을 같이 해보기 3. 자녀와 함께 영화보기

차시	주제	프로그램 목표	교육내용	과제
5	또래 집단 구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또래 집단이 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일탈 청소년의 집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한다. · 내 자녀의 또래 집단 구성을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교사의 강의 ⇒ 청소년 또래 집단이 구성되는 과정 확인 ⇒ 또래 집단 구성 후 일탈 청소년들의 집단이 이루어지는 과정(구조화 하여 PPT자료) · 소집단 활동 ⇒ 한 반을 예로 들어 또래 집단이 구성되는 과정을 직접 파악 	자녀의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정보를 구하여 자녀의 또래 집단 구성을 파악하여 과제로 제출
6	일탈 청소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탈 청소년의 실태를 바로 안다. · 일탈 청소년인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프로그램 상영 ⇒일탈 청소년들의 실태 · 통계자료 보기 (일탈청소년들의 폭력, 흡연, 성문제 등의 자세한 실태) ⇒ 일탈청소년의 문화를 좀 더 심화하여 확인하여서 정확하게 그들의 문화를 인지 · 반성의 시간-사랑의 편지쓰기 ⇒ 자녀가 일탈 청소년의 행동에서 다른 학생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부모의 도리로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녀가 일탈 청소년이 된 이유에 대해 파악 	자녀에게 사랑의 편지 전하고 꼭 안아 주기
7	효과적인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내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으로서의 대화에 대해 탐색한다. · 반영적 경청의 방법을 습득한다(역할연습을 겸하여 반영적 경청을 실습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갈등 이해하기) ⇒갈등 해소 방안으로서의 대화 · 역할극 (반영적 경청 실습) ⇒ 소집단별로 2명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부모의 역할을, 한 사람은 자녀의 역할을 한 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의 상황을 가정한다. 부모 역할, 자녀 역할을 한 조원은 그 때의 상황을 재연하고, 다른 조원이 이를 경청하고 메모한다. (모든 조원이 똑같이 하도록 한다.) · 역할극 이후 느낌 발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읽어오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를 읽고 칭찬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강의-대화법 ⇒ 칭찬을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던 사례를 소개 ⇒ 칭찬하는 대화방법 · 소집단 토론 ⇒ 칭찬의 중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토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 자녀에게 칭찬 해 주기 2. 내 자녀의 장점 생각해 보기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와 듣기기술을 습득하여 자녀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술 강의 ⇒ 적극적인 대화, 기분 좋은 대화 방법 강의 ⇒ 화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 자녀와 대화하기 (1시간 이상)

차시	주제	프로그램 목표	교육내용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숨은 감정을 읽고 표현함으로써 자녀와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억누를 수 있는 대화와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방법 강의 · 역할극 ⇒ 앞에서 배운 대화법을 최대한 이용하여 상황을 재연 · 토의 ⇒ 다른 조원들은 앞에서처럼 조원들의 역할극 중 대화내용 분석 · 조원들의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대화상 장점과 문제점 파악 	2. 자녀와의 대화 내용과 이후 자녀와의 관계를 과제로 작성
10	가족 공동체 역할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공동체란 무엇인가? 파악하기 · 우리 가족의 구성과 역할 파악 후 가족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학습 ⇒ ‘가족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각자의 생각 발표하기 · 강의 ⇒ 가족 공동체의 올바른 개념 확립 ⇒ 강의를 듣고, 각자의 개념에 대한 비교·반성하기 · 가족에 대한 동영상 시청 ⇒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 각 구성원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들의 고충을 느낀다. · 다짐문 쓰기 ⇒ 가족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다짐문 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 신문 만들기(반드시 온 가족이 참여) 2.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예) 외식, 영화 보기, 등산 등
	수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증 수여 및 다과회 	

외국에서 비행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논의되는 비행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중 가족과 관련하여 가족체계치료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가족체계치료 프로그램은 가족이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가족의 상호작용이나 구조, 생활방식은 청소년의 비행을 중재하거나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전제아래, 사회학습이론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과 부모의 의사소통 기술, 행동계약, 규칙 명세서 작성, 토큰강화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Kazdin, 1987).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며, 자녀의 바람직하고 친사회적인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강화하고 비행행동에 효과적인 벌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파괴적 행동문제(불순종이나 분노발작 혹은 과잉행동)에 초점을 두고 거부적, 적대적, 도전적인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과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

아동 상호작용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는 Eyberg(1979)가 개발한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이하 PCIT)를 국내에 적용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아동 양자가 치료에 참여하여 치료자가 제공해 주는 실시간 코칭을 통해 부모들이 권위있는 양육방식으로 아동을 훈육하는 방법과 아동의 행동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 PCIT 프로그램은 애착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에 기초를 두고, 부모-아동관계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아동과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의 파괴적인 행동은 억제되고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두정일, 2010).

국내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고성혜 외, 2003)에서 개발한 '가해학생 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 구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 7. 가해학생 부모대상 프로그램 구성(고성혜 외, 2003)

프로그램 내용			회기
탐색 및 문제 인식 단계	내 자녀 바로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해 ·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수용 (가해 학생으로서의 수용) 	1
	부모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훈육방식에 대한 반성 · 자녀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의 문제점 인식 	1
문제 해결 및 종결 단계	바람직한 부모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간의 규칙 정하기 ·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모색과 다짐 	1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의 변화와 적극적인 지지없이 가해 학생의 변화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부모들의 변화를 이끌어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녀들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을 예방하도록 하고, 부모-자녀관계의 향상, 나아가 보다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공격성, 그리고 가족지지도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여 이를 부모대상의 프로그램 운영시 자녀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가해학생 대상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한 후 탐색단계가 끝나면 부모 대상의 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이 다 끝

난 후에는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마지막 회기에 쓴 서약서와 다짐의 글을 서로에게 읽어주는 활동을 하여, 서로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한 팀임을 인식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에서 실시한 해밀스쿨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초·중·고교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선도프로그램에 의한 특별교육으로, 가해학생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만이 아니라 가해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고, 학부모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한 치유 및 성장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방학 중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개입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와 감정표현하기,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타인 이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방학 중 2박 3일간의 농촌봉사활동으로 실시되었으며, 부모교육이 병행되었다. 즉, 부모상담을 통해 부모의 분노감과 좌절감을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작용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최인재, 김경준 외, 2007). 아래 표 8은 프로그램 내용이다.

표 8.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대상 프로그램(최인재, 백혜정 외, 2008)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해밀스쿨	초·중·고교생 및 부모	가족관계의 회복/ 대인관계 향상/ 자존감 향상/ 진로탐색/ 정체성 확립
학교폭력 개입프로그램 (방학중)	가해 청소년	자기이해하기/ 내 마음의 분노, 갈등 표현하기/ 넓은 세상 보기/ 타인 이해하기

해밀스쿨과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의 학교폭력 개입프로그램은 주로 가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자기이해 및 표현영역에서 분노조절이나 자아존중감의 증진,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등 가해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대부분 활동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었다. 또한 타인 이해의 영역에서는 공감훈련, 역할연습 등을 통해 피해자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이해증진 훈련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의미와 심각성, 결과 등에 대한 교육

과 부모교육이 병행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교육이 중심이 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부모교육이 일부 실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안동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유에 초점을 두고, 피해학생 부모용 프로그램과 가해학생 부모용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내용에서는 부모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지만, 피해학생 부모는 2회기, 가해학생 부모는 1회기라는 짧은 회기동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효과성에서 한계를 가진다. 아래 표 9와 10에서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9. 피해학생 부모용 상담 프로그램 내용(부안동 초등학교)

회기	제목	활동내용	소요시간	비고
1	MBTI 검사	- 자기소개 - O.T - 검사 실시 - 채점 및 각 지표 설명	2시간	준비물:명찰, MBTI검사지
2	나를 알고 너를 알기	- E-I 그룹작업 - S-N 그룹작업 - 소감나누기	2시간	준비물:OHP, 유성펜,유인물, 풍경화

표 10. 가해학생 부모용 상담프로그램 내용(총 1회기로 구성)

프 로 그 램 내 용		
탐색 및 문제 인식단계	내 자녀 바로 알기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해 -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수용 (가해 학생으로서의 자녀수용)
	부모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	- 자녀 훈육방식에 대한 반성 - 자녀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의 문제점 인식
문제해결 및 종결단계	바람직한 부모역할	-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

이상과 같이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최인재, 김경준 외, 2007).

첫째, 국내 프로그램은 가해와 피해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는 데 반해, 외국은 피해와 가해가 혼재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외국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로 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실시중인 프로그램의 경우는 대체로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혼합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외국은 특성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내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반면, 심층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앞서 지적하고 있듯이,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교육은 주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회기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모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집단상담뿐아니라, 게임, 노래, 비디오 상영 등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과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특징을 알아보았다. 국내의 프로그램은 특히 단회기, 교육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교육의 이론적 토대와,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의 특성과 욕구, 이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초점을 두어 학교폭력의 가/피해 경험으로 인한 자녀의 심리·정서적, 행동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의 경험으로 인한 자녀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과 다양한 행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자녀관계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긍정적인 훈육방법,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슈퍼비전,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처기술 등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 역시 자녀의 가해, 피해경험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부모들의 분노와 무기력, 죄책감, 스트레스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과제할당, 역할훈련, 실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습득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프로그램의 개발

가.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

프로그램의 과정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는 준비단계, 수행단계, 종결단계로(우수명, 2005), 또는 준비/기획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정무성, 정진모, 2001)로 구분할 수도 있다. 준비단계는 프로그램 수행이전에 필요한 문제인식이나 욕구사정,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적절한 자원의 배분 등이 포함된다. 수행단계는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종결단계는 프로그램을 종결하며, 이에 따른 평가와 환류(feedback) 과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김창대(2002)는 목표수립단계, 프로그램 구성단계, 예비연구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단계를 프로그램 개발의 주요한 절차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이들 선행 연구에서 프로그램 개발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전조사 및 문헌연구, 현장의 요구 분석,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내용 구성, 프로그램 내용의 안전타당도를 위한 예비연구,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한 수정 및 보완 등을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학교폭력의 정의 및 실태와 특징,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가족요인, 학교폭력의 가해/피해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부모교육에 대한 이해와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이후, 현장 실무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학교폭력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황 파악을 위하여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둔 부모와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을 상담해 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의 내용을 분석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부모교육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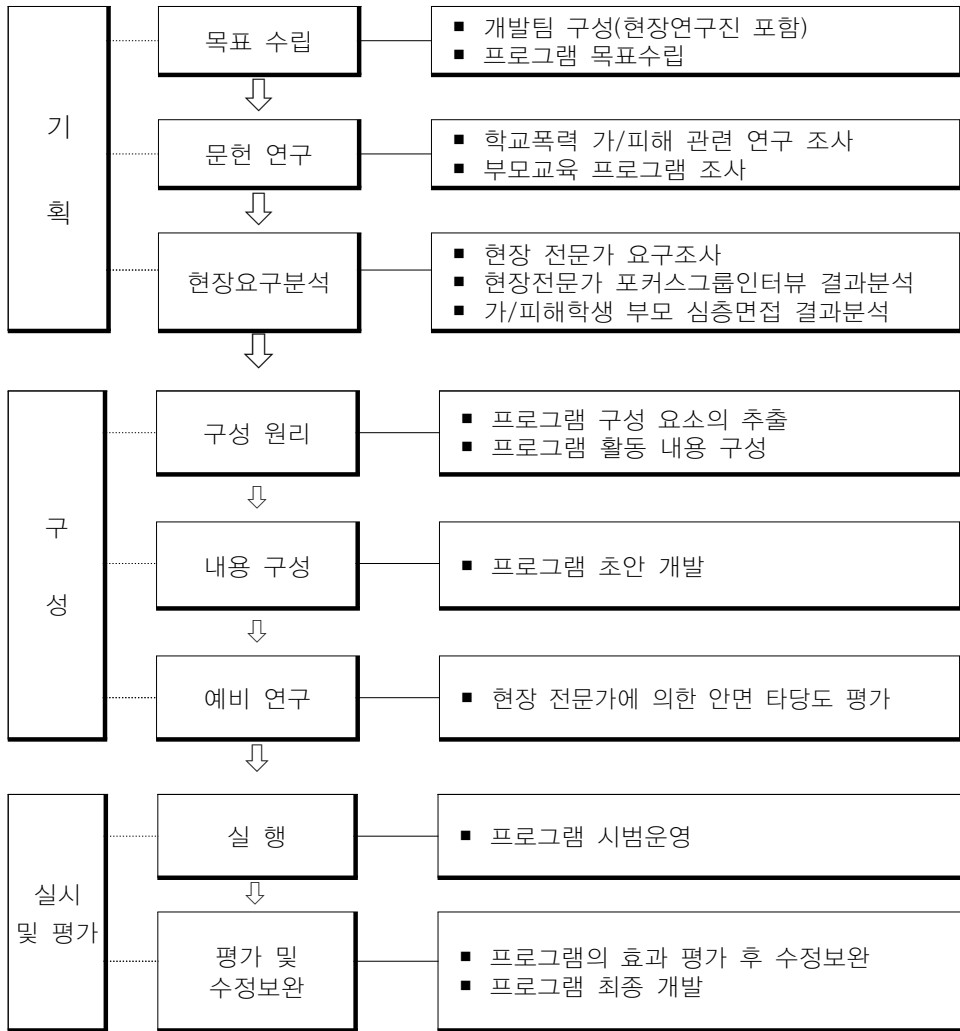


그림 1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일차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차 전문가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절차 모형은 위의 그림과 같다.

나. 기획 단계

1) 문헌연구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특징 및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가족요인, 학교폭력이 가해 청소년과 피해청소년 각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일반적인 부모교육을 고찰하고, 학교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발된 국내·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방향을 모색하였다.

2) 현장전문가 대상 요구조사

가) 조사대상 및 방법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14일까지 CYS-Net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된 본 요구조사에서 총 85명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현장 전문가들이 응답하였다. 요구조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 현장전문가 대상 기초 요구조사 내용

구분	조사영역	문항별 세부 내용
공통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령 / 성별 / 근무경력 / 전공 / 상담현황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1. 부모가 겪는 어려움
		2. 상담자가 피해부모 상담 시 겪는 어려움
		3. 프로그램 실시 시 예상되는 어려움
	프로그램 운영 방식	1. 프로그램 개발 필요도
		2. 프로그램 형식
	3. 프로그램 실시 회기	
	4. 프로그램 1회기 당 시간	
	5. 프로그램 집단 구성원 수	

구분	조사영역		문항별 세부 내용
	프로그램 교육 내용별 필요도	학교폭력 이해	1.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2. 학교폭력 가해 징후 파악하기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사안처리 절차
		자녀 이해	4. 학교폭력 가해 자녀의 분노 조절 방법
			5. 학교폭력 가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6. 학교폭력 가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배려, 공감하기 등)
		부모 이해	7.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8.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감정 다루기
			9. 자녀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어려움(음주, 가정폭력 등) 다루기
			10.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과 관련된 부부 갈등 해결 방법
		부모 자녀 상호작용	11.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12. 학교폭력 가해 자녀와의 갈등 시 대처방법
			13. 학교폭력 가해 자녀와의 친밀감 제고 방법
	14. 자녀와의 효과적 대화방법		
의견사항		1. 부모교육 시 부모들의 피드백	
		2. 프로그램 제안점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1. 부모가 겪는 어려움
			2. 상담자가 피해부모 상담 시 겪는 어려움
			3. 프로그램 실시 시 예상되는 어려움
	프로그램 운영 방식		1. 프로그램 개발 필요도
			2. 프로그램 형식
			3. 프로그램 실시 회기
			4. 프로그램 1회기 당 시간
			5. 프로그램 집단 구성원 수
	프로그램 교육 내용별 필요도	학교폭력 이해	1. 학교폭력 피해자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2. 학교폭력 피해 징후 파악하기
			3.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처리 절차

구분	조사영역		문항별 세부 내용	
	자녀 이해		4.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정서·심리적 상처 다루기	
			5.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6.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자기 주장하기 등)	
			부모 이해	7.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8.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감정 다루기
				9.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소진 방지하기
	10. 자녀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어려움(음주, 가정폭력 등) 다루기			
	부모 자녀상호 작용		11.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과 관련된 부부 갈등 해결 방법	
			12.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13. 학교폭력 피해자녀와의 갈등 시 대처방법	
			14. 학교폭력 피해 자녀와의 친밀감 제고 방법	
			15. 자녀와의 효과적 대화방법	
	의견사항		1. 부모교육 시 부모들의 피드백	
			2. 프로그램 제안점	

나) 요구조사 결과 요약

본 조사는 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었고, 응답자는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근무자 총 85명이었다.

(1)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조사 결과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23.4%), 부부 갈등 혹은 가족 구성원의 갈등(16.2%),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13.0%),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12.3%), 어려운 경제적 여건(0.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둘째, 상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 상담하는데 겪는 어려움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 중 평균 3.29점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를 상담하는데 ‘보통’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종류로는 부모의 무기력 등의 부모 정서 문제, 자신의 자녀는 잘못이 없다는 등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왜곡된 지각,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 비일관적이거나 폭력 행사 등의 양육 방식 문제, 대처기술 부족 등의 문제해결 능력 부족, 상담에 대한 거부 등 상담에 대한 낮은 동기, 열악한 가정 환경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적절한 교육 형식으로는 개인 형식(50.6%)과 집단 형식(49.4%)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의 적절한 실시회기로는 3~4회기(42.9%), 5~6회기(3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 시 1회기 당 시간으로는 60분~90분(57.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집단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적절한 구성원 수로는 4~5명(45.2%)이라는 응답과 6~8명(38.1%)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대상 확보의 어려움(38.6%)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부재(26.5%),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 대한 낙인감이나 편견(26.5%), 지도 인력 및 예산 부족(7.2%) 기타 의견(1.2%)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별 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은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4.79점),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감정 다루기(4.75점), 학교폭력 가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배려, 공감하기 등)(4.75점) 등이었다.

여섯째,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으로는 부모 스스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자기 이해, 가족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 부모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대한 공감 등 부모 마음 다루기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된 정보, 대화법 등 양육방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2)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 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21.6%),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18.8%), 부부 갈등 혹은 가족 구성원의 갈등(9.7%),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9.1%), 어려운 경제적 여건(3.9%), 기타 의견(1.3%)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둘째, 상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 상담하는데 겪는 어려움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 중 평균 3.15점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를 상담하는 것보다는 점수가 낮지만,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상담에서도 '보통'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종류로는, 부모의 분노, 스트레스, 죄책감 등의 정서 문제, 부모가 상담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거나 소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 상담에 대한 낮은 동기, 생계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적절한 교육 형식으로는 집단 형식(58.8%)이 개인 형식(41.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의 적절한 실시회기로는 3~4회기(38.8%), 5~6회기(3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 시 1회기 당 시간으로는 60분~90분(55.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집단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적절한 구성원 수로는 4~5명(45.9%)이라는 응답과 6~8명(38.8%)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부재(36.9%)가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대상 확보의 어려움(34.5%),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에 대한 낙인감이나 편견(25.0%), 지도 인력 및 예산 부족(3.6%)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의 요구도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정서·심리적 상처 다루기(4.87점),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4.87점),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자기 주장하기 등)(4.80점) 등이었다.

여섯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으로는 부모 자신과 가족 역동에 대한 이해 등 부모의 자기 이해, 부모의 불안이나 아픔에 대한 마음 다루기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피해 자녀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역량 강화, 자녀와의 대화법 등 양육태도, 비밀보장을 통한 신변 보호 등이 지적되었다.

다) 요구조사 결과 시사점

현장전문가 대상 프로그램 요구조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부모가 겪는 어려움이 다소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 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경우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 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녀일지라도, 그것이 가해경험인지 피해경험인지에 따라서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이 더 요구될 수도, 혹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대한 개입이 더 요구될 수도 있기에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및 피해자 부모 모두 2순위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할 때, 가해자 부모교육 및 피해자 부모교육 모두에서 대화법이나 양육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는 다소 다르나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과 피해자 부모교육 모두에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부재' 와 '대상 확보의 어려움' 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요구조사에서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 모두 상담 및 교육 참여의 동기가 낮고,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하여 참여가 저조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프로그램 초반에 부모의 동기를 높여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형태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및 피해자 부모 교육 모두 개인 형식과 집단 형식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 부모교육의 경우 개인 형식의 요구가 다소 높았으며, 피해자 부모교육의 경우 집단 형식의 요구가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를 모집하거나 교육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의견들을 반영할 때, 프로그램 형식이 보다 유연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즉,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는 집단 형식으로 개발되었을지라도,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개인상담 형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및 피해자 부모교육 모두 3~4회기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6회기에 대한 요구도 비슷하게 높았다. 또한 1

회기당 시간은 가해자 부모교육과 피해자 부모교육 모두에서 60분~90분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원의 수로는 4~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과 피해자 부모교육 모두, 5회기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소집단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3)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가) 조사대상 및 내용

학교폭력 관련기관의 현장전문가, 교육청 비행청소년 대안교육 담당 실무자,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을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본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결과 참여 의사를 밝힌 총 6명을 대상으로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연구진들은 논의를 통해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을 구성하였다. 질문의 형태는 Krueger &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과 과정을 참고하여,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 소개질문(Introductory questions), 전환질문(Transition questions), 주요질문(Key questions), 마무리질문(Ending questions)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표 13 참조). 질문내용은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들의 특성과 유형구분, 이들이 보이는 심리상태와 양육태도, 가/피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내용 등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질문 등이다.

면접자들은 본 연구의 연구진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인, 교육상담을 전공하고 질적연구의 수행경험이 있는 상담심리전문가 1인과 교육상담을 전공하고 대학에 있는 교수 1인이다. 면접자들은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모임을 갖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검토하였으며, 면접에서 각각의 면접자들의 역할 조정을 마친 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청소년상담원 회의실에서 이루어지거나, 면접참가자가 원하는 장소로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면접 시간은 1인당 90분에서 120분정도였다.

면접자들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인 현장전문가들에게 사전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자료수집을 위한 녹음의 허락과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녹취록 작성 및 참가자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면접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비고
1	여	50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팀장, 부모교육 담당
2	여	40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팀장, 가족관계개선사업담당
3	남	30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부모교육 담당 실무자
4	여	30대	교육청 대안교육 담당 실무자
5	여	50대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현장전문가
6	여	40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팀장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조사영역	문항별 세부 내용
도입 질문	1. 현재 근무처, 경력, 전문적 배경에 관하여
소개 질문	2-1. 학교폭력 가해사례의 발굴경로는 어떠한지? 2-2. 학교폭력 피해사례의 발굴경로는 어떠한지?
전환 질문	3-1. 상담했던 학교폭력 가해 부모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3-2. 상담했던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주요 질문	4-1. 학교폭력 가해 부모들이 보이는 심리상태는 4-2.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이 보이는 심리상태는
	5-1. 학교폭력 가해 부모들의 양육태도의 특성은? 5-2.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의 양육태도의 특성은?
	6-1. 학교폭력 가해 부모들과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6-2.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과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7-1. 학교폭력 가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방식 7-2. 학교폭력 피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방식
마무리 질문	8.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과 부모를 돕기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할 내용

나) 자료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이 담긴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축어록을 정독하고, 면접용 질문을 토대로 같은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영역부호화 작업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모여 각각의 면접 축어록에 대해 토의를 하면서 주제별로 자료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는지 검토하고, 선정된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영역부호화 작업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을 모두 모아 가가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화내용을 하위범주별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부록3 참조).

다) 조사결과 요약

(1) 학교폭력 가해/피해 사례 발굴경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상담사례는 법원과 경찰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개별적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사례는 법원의 수강명령과 경찰서, 학교로부터 주로 의뢰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가해부모에 대한 교육을 지원센터에서 담당하기로 한 곳도 있었다.

반면 피해 사례는 학교를 통해 의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모가 개별적으로 전화로 개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해/피해부모의 심리상태와 특성

가해 부모들은 많은 경우 생활고로 인해서 교육의 참여 자체를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부모들 역시 가해자녀와 유사하게 분노조절의 어려움이나 공감능력의 결여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가해부모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학교폭력행동을 하는 자녀에 대한 수용을 어려워하며, 누구에게도 자녀의 문제행동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창피함과 가슴속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녀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 인격까지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서러움과 함께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 가해자녀의 문제행동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 복합적인 심리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부모들 역시 생활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거나 부모의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자녀의 증상이나 상처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부모들 역시 자녀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들은 당혹스럽고, 불안하며,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녀에 대한 분노와 흥분 등 복합적인 심리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구나 제 3자로부터 자녀의 피해사실을 듣게 되는 경우

에는 상황 자체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고, 자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된다. 한편 부모의 현명하지 못한 대처는 자녀에 대한 보복이나 전체 따돌림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었다.

(3) 가해/피해부모의 양육태도

가해부모는 훈계형과 과보호형, 방임형 등 다양한 유형의 양육태도를 보인다. 훈계형은 권위적이거나 처벌적인 양육태도로 자녀에게 심하게 야단을 치는 유형을 말하며, 방어형 또는 과보호형은 자녀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린다. 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부모들은 방임형인 경우가 많았다.

피해 부모들 역시 과보호형, 무기력한 유형, 억압형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융통성없이 규범적으로 키우는 과보호와 기대형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가 속상해 할까봐 이야기를 못하고, 과잉반응 부모는 당장 쫓아가서 일을 더 벌려 놓을까봐 자녀들이 불신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억압형 부모들의 경우는 자녀에게 강하게 이겨낼 것을 요구하면서 자녀가 더욱 위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들이 사회기술이 부족할 경우, 학교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함으로 인해 더욱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무조건 참다가 자녀에게 폭발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무기력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참으라고 종용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자녀의 불신을 사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가해/피해부모의 자녀와의 의사소통

일반적으로 가해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방임형은 대화 자체가 부족하고, 자녀의 생활에 대한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위적이거나 처벌적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적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거나 규칙준수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과잉반응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신을 가지고 있어, 부모에게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무기력한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가 힘들어해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거나, 자녀가 문제라는 반응을 보여,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구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해부모든 피해부모든 자존심에서 시작하

여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모들의 기준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5) 가해/피해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내용

먼저 학교폭력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적절한 교육형식으로는 가해의 경우는 대단위교육도 가능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습득을 위한 교육과 부모의 치유를 위한 상담이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반면 피해부모는 대단위 교육은 불가능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과 부모들의 치유를 위한 집단상담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모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로 융통성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가해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는 비교적 짧은 회기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초기에 흥미와 만족을 느끼면 계속적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피해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가해부모보다는 장기간의 회기구성이 가능하며, 가해/피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교육대상과 상황에 따라 회기별 내용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강의식보다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해와 피해 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부모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흥분된 감정을 공감해주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가해부모의 억울함과 속상함 등을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시간이, 피해부모의 분노를 달래주고 심정에 대한 공감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가해자 부모의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한 부모의 인식개선에 초점을 두어, 학교폭력의 개념이나 소년법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이때 책임에 관한 정확한 교육과 부모의 관리가 필요함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비난이나 처벌이 아니라 정보제공과 교육이라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간의 의사소통이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수용, 자녀의 발달적 특성 등과 관련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가해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자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초점 맞추기, 공감하기, 이해하기, 자녀와의 대화법 등에 관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피해자 부모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사안처리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처방안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자

녀의 욕구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양육태도, 자녀와 대화하는 법, 갈등해결방법, 무엇보다 부모의 치유를 위한 내용이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의 시사점

학교폭력 가해/피해 부모들을 돕기 위한 현장전문가의 수렴된 의견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피해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어려움에 초점을 둔 특화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원센터에서는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에 학교폭력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부모교육 및 상담, 예방 교육 등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부모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상담센터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둘째, 초기단계에서 가해/피해부모들 모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며, 불안한 부모들의 감정이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번 종합대책과 법률 개정을 이후로 강화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그리고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안의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후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사안이 처리된 이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고통은 아직 남아있다. 가해/피해 부모들 모두 불안해하고, 자녀의 고통에 상처받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의 재발방지와 자녀들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 가해/피해 부모 모두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도록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회화의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기관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과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가해부모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자녀의 마음 이해하기와 공감적 대화 등이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해 부모의 경우 자신의 양육방식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피해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에 대한 이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마음 이해하기 등이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와 피해의 징후를 파악하고, 징후가 보이는 자녀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 지 등을 연습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폭력 가해/피해 자녀의 부모 대상 심층면접 분석

가) 조사대상 및 내용

우리나라의 현실과 학교폭력 가해자녀와 피해자녀의 부모들의 요구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가해/피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자용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자녀를 둔 부모들 각각을 만나 이들의 실제 경험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가해/피해 자녀의 가정,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해/피해 자녀의 특성, 가해/피해경험으로 인한 자녀의 반응이나 태도, 학교폭력의 징후들, 부모들의 심정과 처리방법, 부모의 노력, 학교의 대응, 학교폭력 경험과 처리절차,사안처리 후 자녀의 변화, 학교폭력의 징후들, 요구사항 등을 알아보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2012년 4월~6월 전국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로, 지역의 센터 현장전문가들에게서 추천을 받았다.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부모들을 모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다른 기관의 현장전문가에게도 추천을 받았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부모들은 총 10명으로 피해자 어머니 5명, 가해자 어머니 4명과 아버지 1명이었다. 면접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4.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 구분	자녀 성별	가/피해 구분	자녀 학년/가해 · 피해기간	학교폭력 유형
피해	a	남	피해	중2/초5부터 지속	신체폭력/언어폭력/따돌림
	b	남	피해	고2/중3부터 지속	신체폭력/금품갈취/괴롭히기
	c	남	피해	중1/초5부터 지속	신체폭력/금품갈취/괴롭히기
	d	남	피해	초등부터 고등까지 간헐적 지속	놀리기/따돌림/무시하기/심한 장난
	e	남	피해	고2/고1부터 1년간	신체폭력
가해	f	남	가해	중2/중1부터 시작	신체폭력/괴롭히기/협박
	g	여	가해	중3/중1부터 시작	금품갈취/괴롭히기
	h	여	가해	중2/초5부터 중1까지	금품갈취
	i	남	가해	중1/초5부터 지속	집단폭행/금품갈취
	j	남	가해	중2/중1부터 1년간	신체폭행

심층면접을 위해 본 연구진들은 사전 논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표 15).

질문내용은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자녀의 특성, 가해/피해 경험에 대한 자녀의 반응이나 태도, 학교폭력 징후들, 폭력내용, 부모의 심리상태, 부모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과 노력 등이다.

면접자들은 본 연구의 연구진으로,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한 인력과 동일하다. 심층면접 참여자 선정에 관해서는, 센터의 상담자와 관련기관 현장전문가가 추천을 하고, 이들이 부모에게 ‘면접의 목적과 절차’ 를 안내했을 때 참여의사를 밝힌 부모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전화면접을 통해 본 연구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면접은 청소년상담원 회의실에서 이루어지거나, 면접참가자가 거주하는 장소로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면접 시간은 각 사례 당 120분에서 150분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자들은 면접참여자인 학교폭력 가해/피해 부모들에게 사전에 심층면접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자료수집을 위한 녹음의 허락과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녹취록은 연구를 위해 작성되지만,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가 끝난 후에는 파괴되며, 참가자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심층면접에 사용된 질문지는 표 15와 같다.

표 15. 심층면접 질문지

문항	문항별 세부 내용
도입 질문	1. 평소 가정의 분위기,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소개 질문	2. 부모의 특성과 양육태도는 어떠했습니까? 3. 자녀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전환 질문	3. 자녀가 경험한 학교폭력 가해/피해 사건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주요 질문	4. 사건의 처리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의 대응, 가해자녀에 대한 조치, 피해자녀에 대한 보호 등)
	5. 학교폭력 사건을 맞이하여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6.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행동이나 노력, 잘못된 대응이나 반응)
	7. 학교폭력 사건 후 자녀와 가족이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모두 포함)
마무리 질문	8.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 자료분석

본 연구자들은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추출하기 위해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심층면접 내용이 담긴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면접 축어록을 읽고, 면접용 질문을 토대로 같은 주제 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영역 부호화 작업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진들이 함께 모여 총 7 사례의 축어록에 대해 토의를 하여 영역부호화 작업을 한번 더 실시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을 모두 모아 각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적인 개념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가정배경과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등에 관련한 개념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처리절차, 자녀의 반응이나 문제행동, 부모의 심리 등에 대한 개념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노력과 사안이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변화한 모습 등 사안 이후와 관련한 개념 등이 도출되었다. 이들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화내용을 하위범주별로 분류하여 기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5에 나와 있다.

다) 조사결과 요약

(1) 학교폭력 가해부모 심층면접 분석결과

(가) 가정배경과 부모-자녀 관계

가해청소년의 가정배경이나 부모-자녀관계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로 바쁘지만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라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부모-자녀관계도 특별히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제없이 행복한 가정, 특히 한 가정의 경우 부모-자녀관계가 매우 돈독하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헌신적인 경우도 있었고, 반면에 결손가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가정배경과 상관없이 학교폭력 가해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특성

다만 양육태도는 심한 체벌을 동반한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와 과잉보호와 과잉허용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분석되었다. 심한 체벌을 주요한 양육수단으로 삼았던 가정에서는 체벌과 함께 비난과 모든 잘못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모습이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태도를 가진 가정에서는 부모 특히 체벌과 비난을 자주 사용하는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과잉보호와 과잉허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우기면 규칙준수에서 자꾸 허용의 폭을 넓혀주는 마음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관계는 매우 좋은 편으로, 자녀가 비행과 일탈의 내용까지도 어머니에게 거리낌 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해가정의 아버지들 역시 대체적으로 허용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자녀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고, 일탈또래들과 어울려 음주, 흡연 등의 비행,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체격도 건장하고 학교의 일진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이들이 보이는 문제행동, 반항적인 행동으로 인해 교사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가정의 자녀는 자아개념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교폭력이 시작되는 징후들

자녀들이 학교폭력에 관련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비행또래와 어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가해자녀들은 비행친구들과 함께 노래방, 피씨방을 전전하며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훔친 자전거를 같이 탄다거나 음주와 흡연과 같은 소소한 비행을 시작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줄기, 무단조퇴, 귀걸이 착용 등의 규칙위반 행동을 한다. 또한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교사와의 긴장관계가 고조된다. 또한 비행행동으로 인해 부모와 관계가 악화되면 가출을 감행하기도 한다.

(라) 학교폭력의 내용과 처리절차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들은 주로 학교에서 신체적인 폭력과 금품갈취, 심부름 시키기, 협박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관련되어 있었다. 비록 형사처벌 수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연관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 조사를 받고 선도위원회에서도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서 자녀들이 일으킨 문제로 인해 교사가 집에 전화하여 학교로 방문해 주길 요청할 때, 강압적인 권위주의적이며 자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부모의 경우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허용적이며 자녀와의 관계도 좋았던 어머니의 경우는 담임교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부모 못지않게, 가해부모들 역시 학교 및 교사의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로 수업결손이 생기거나, 처벌이 효과없다고 보았다. 또한 일관성 없는 처벌,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자녀가 피해자 부모에게 맞았음에도 피해부모 편만 들어주는 모습 등에서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번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이후에는 문제아로 낙인찍혀 학교생활을 어려워 하기도 했다.

(마) 가해자 부모들의 심정

학교폭력 가해자녀의 부모들은 매우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보면서 심리적 충격과 함께 가정교육을 잘못시켜서 자녀가 비뚤어졌다는 죄책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가 하는 회의감, 무기력함, 캄캄한 긴 터널을 걷는 듯한 느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자녀에 대한 분노와 같은 복합적인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자녀의 앞날이 잘못될 것에 대한 걱정, 낙인이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의한 불이익에 대한 염려, 자녀가 또다시 사고를 칠까봐 불안한 마음 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

로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바) 부모의 노력

일차로 부모들이 하는 노력은 긍정적인 방식이든, 부정적인 방식이든 간에 자녀의 문제행동을 통제하고 가정과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자녀의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연스럽게 남편과 자녀의 문제를 상의하고 자녀의 양육을 분담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자녀와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교사와 과외활동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노력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면서 치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 잘못된 대응

위의 노력이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면, 부모의 잘못된 대응은 문제를 악화시킨다. 가해부모들의 가장 흔한 모습은 자녀에 대한 체벌과 비난이다.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자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부모의 경우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가지고 거의 매일 심한 체벌과 싸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녀와 매일 싸우는 행동은 부부간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 부모와 자녀의 변화된 모습

부모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자녀도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제일 먼저는 규칙에의 순응이다. 자녀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공부나 다른 활동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꿈을 가지기도 한다. 전에는 화냈을 일에도 스스로 자제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부모들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무관심하거나 허용적이었던 아버지들도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반면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낙인을 경험한 경우, 성적이 저하되거나 반장선거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자) 변화의 요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변화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점, 자녀와 대화하려고 노력했던 점, 규칙의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성을 허용했던 점, 교사, 상담 등 주변의 자원을 활용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2) 학교폭력 피해부모 심층면접 분석결과

(가) 가정배경과 부모-자녀 관계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가정배경으로는 맞벌이로 바쁨,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분석되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의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성향이 강한 특성도 분석되었지만, 대체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특성

대부분의 피해자녀의 부모들은 성실하고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부모가 있는 반면, 여리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부모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면접참여자들의 피해자녀들은 대부분 모범적이고 나무랄 데 없는 행동을 보였기에 부모들의 양육태도가 특별히 분석되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녀의 특성

피해자녀의 성격적 특성으로는 여리고 착한 성격, 순하고 소심한 성격, 모범생, 자존심이 강하고 이상이 높은 특성들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어머니들의 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녀들은 피해를 경험하기까지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면서 말쑥한번 피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자존심이 강하면서 외골수인 점을 보이는 것도 지적되었다.

피해자녀의 신체적 특성으로 일부에게서 신체적 왜소함이 분석되었으며, 기타 가벼운 언어장애와 같은 신체장애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2사례에서 피해자녀의 형제에게서도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형제들도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격적 특성들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학교폭력의 징후들과 피해자녀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많은 경우 피해의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수업시간에 발로 툭툭 치는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녀가 지적을 하거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때 부모가 성급하게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상의하는 경우에 교사의 서투른 대응은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되게 한다.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멍이 들거나 신체의 일부를 다치거나 물건이 망가지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 징후를 보인다. 또한 짜증이 늘고 부모에게 반항과 분노를 표출하거나, 시무룩해지고 의욕을 상실하며, 게임에 몰두하거나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성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의 정서, 행동적 징후도 동반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신체화 증상, 자살생각의 표현이나 시도, 자아개념의 저하, 수치감, 불안과 스트레스, 짜증과 우울, 교사에 대한 불신, 게임에의 몰두 등 다양하며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학교폭력의 내용과 처리절차

학교폭력의 피해내용을 보면 신체폭력과 협박, 따돌림, 장난을 가장한 폭력, 금품갈취, 놀리기, 대놓고 무시하기, 담배피우기 강요, 고자질했다고 욕박지르기, 보복하겠다는 협박 등 유형도 다양하고, 대부분 2-3가지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던 자녀들은 건디다 못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 특히 경찰에 의해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 피해자녀나 부모 모두가 만족스러움을 나타내었다. 피해부모들은 증거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청, 경찰, 학교를 쫓아다니며 자녀의 피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과를 받고 보복방지를 위한 다짐을 받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반면 학교에 의해 사안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녀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사건이 축소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다. 심지어 왜 여기서 처리하려고 하나며 화를 내는 반응도 있었다.

(바) 피해자 부모들의 심정

자녀가 학교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들은 미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울타리가 되지 못한 미안함과 부모가 뭘 잘못해서 그

런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 또한 가해아이들에 대한 분노, 자녀의 피해가 재발될까봐 불안한 심정과 우울, 자녀가 자살이라도 할까봐 극도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한다. 더구나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우울은 극대화되어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 부모의 노력

부모들은 자녀가 피해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녀와의 대화, 자녀와 스킨십, 자녀의 상처를 달래주기, 자녀의 마음 들여다보기, 기다려주기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유머 가지기, 지지세력 되어주기, 자녀가 원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기, 유연한 아이로 키우기, 폭력일기 쓰기, 처리절차나 보호를 위한 정보들을 습득하기, 드러내고 주변에 도움청하기, 자녀의 치유를 위한 상담 진행하기, 자녀의 학교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기,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생활태도 가지기 등의 개념들이 분석되었다.

(아) 잘못된 대응

반면 부모의 노력은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부모의 잘못된 대응으로는 아버지의 무관심한 태도, 자녀에게 화내기, 방치하기, 학습에만 매진하기,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등의 개념들이 분석되었다.

(자) 부모와 자녀의 변화된 모습

사건이 처리된 이후에 자녀들과 부모들은 안정을 되찾고 자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전에 모범적이고 나무랄 데 없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자녀의 행동이 지나치게 경직된 규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녀와 나의 문제를 재인식하게 되기도 하고, 부모의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요즘 청소년기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아가 무관심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노력들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변화의 요인

부모들이 지적하고 있는 변화의 요인으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건처리,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 확장, 자녀와의 대화, 사건 처리를 위해 주변에 도움 청하기, 자녀의 치유를 위해 상담기관에 도움 청하기, 부모 자신이 상담받기, 교사의 지지, 처리절차나 자녀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습득 등이었다.

라)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 심층면접 내용 분석결과의 시사점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가해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심한 체벌을 동반한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와 과잉보호와 과잉허용적인 부모양육태도를 보였다. 체벌과 비난을 자주 사용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과잉허용적인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는 좋았지만, 자녀들이 규칙준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권위적인 태도(곽영길, 2007), 체벌과 같은 공격적인 양육(Carney & Merrell, 2001; Olweus, 1996), 빈정거림과 비난(Greenbaum, Turner & Stephens, 1989), 자유가 허용되고 공격적 행동에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훈육(Olweus, 1980) 등이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연관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피해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양육태도가 분석되지는 않았으나, 부모가 지나치게 융통성없이 부모세대의 규범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청소년들의 문화와 인식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의 처리절차와 구체적인 도움 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가해자녀들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동에 관여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학교폭력 행동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가해행동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재인식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교육과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해자녀들의 부모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되면 자녀와 부모 모두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부모들에게도 학교폭력에 대한 재인식과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안 처리절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야 한다.

셋째, 사안이 처리된 이후에도 부모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을지 여전히 불안하다. 그리고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벗어나는 길은 매우 길고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 경험에서 자녀들 못지않게 상처받은 부모들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가/피해 경험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녀의 힘을 북돋아주어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힘을 북돋아주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방식, 대화법 등에 관한 기법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 프로그램 구성단계

1) 프로그램 구성원리

가) 프로그램 구성원리

기존의 문헌연구와 현장전문가 요구조사, 가해청소년, 피해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도출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교폭력은 일회적인 비행이나 범죄와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등 순환적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자녀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일차적인 역량은 자녀가 학교폭력의 순환고리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부모 역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부모 역할 습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학교폭력 가해/피해 자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장전문가 대상 요구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부모 대상 심층면접의 결과, 가해부모들은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부모들은 학교폭력의 경험으로 인해 자녀가 경험하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의 재발방지와 자녀들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자녀간 대화방법, 자녀와의 갈등관리 방법, 자녀의 마음을 이

해하기 위한 방법 등을 연습해보고 가정에서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들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미안함,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부모의 상처를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이어 가해부모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양육방식을 점검해 보는 시간, 피해부모의 경우에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넷째,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개선을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의 징후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프로그램 구성모형

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분리되어 각각의 집단으로 운영된다. 앞의 구성원리에 의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하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각각의 하위 목표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부모역할에 해당한다.

첫째, 자녀 성장의 조력자 역할을 습득한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발달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아픈 경험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에게 가해자녀가 보이는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의 원인 및 맥락,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자녀의 문제를 발달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모가 자녀성장의 조력자로 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양육기술을 배우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피해로 인한 상처를 가진 자녀의 마음 위로하고, 나아가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자녀의 장점 찾아주기를 통해 재발방지를 이루고자 한다.

둘째, 피해자 부모의 경우, 자녀의 권익옹호자 역할을 습득하고, 가해자 부모의 경우에

는 합리적 문제해결 촉진자 역할을 습득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광범위하고,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교사, 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과 전문가 FGI에서는 종종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문제가 심화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돕는 능력과 함께, 실제로 벌어진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이후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후유증의 심각성이나 향후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피해자녀의 부모들은 학교폭력 법, 사안처리, 해결절차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문제해결과 관련된 판단 및 의사결정의 원칙들, 도움추구 행동을 위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 피해자 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교사, 경찰, 친구 등과의 협력관계 조성을 통해 자녀를 보호해야하므로 '자녀의 권익옹호자' 역할습득이 강조된다. 가해자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경우 책임감있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모델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된다.

셋째, 부모의 성장이다. 심층면접 결과, 학교폭력 인한 부모의 상처와 고통은 자녀들 못지않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부모의 경우, 반복되는 피해와 자녀가 겪는 고통으로 인한 소진과 낙담이 컸으며, 가해자 부모의 경우에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과 반복되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상처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모들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통해 부모의 상처를 치유하고, 소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위한 구성 모형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표16 및 표17과 같다.

표 16.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모형

목표	부모역할	구성요소	프로그램 세부내용
학교폭력 재발방지	자녀 성장의 조력자	자녀의 문제행동 이해	- 자녀의 문제 인정 - 자녀의 문제행동 원인 및 배경 이해
		청소년 이해	- 청소년의 특성 : 발달단계 - 독립된 자아의 형성, 분리개별화 이해
		의사소통 기술	- 관심, 경청, 공감, 수용의 중요성과 훈련
		양육기술	- 칭찬과 훈육
	합리적 문제해결 촉진자	학교폭력 지식	- 학교폭력의 특성, 가/피해 관계의 특수성 - 학교폭력 법, 사안처리, 해결절차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 학교폭력과 관련된 판단 및 의사결정 원칙
		도움추구 행동	- 사회적 지지망의 인식과 활용
	부모의 성장	상처치유	- 상처와 아픔에 대한공감 - 가해자녀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공유
		양육자의 자기 이해	- 부모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 - 양육태도 점검 - 자녀와의 상호작용 패턴 점검
소진 방지		- 성공경험 나누기 - 전략 세우기(action planning) - 도움추구 행동의 실행	

표 17.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모형

목표	부모역할	구성요소	프로그램 세부내용
학교폭력 재발방지	자녀 성장의 조력자	자녀의 상처치유	- 자녀 마음에 대한 이해 - 자녀의 강점 찾기
		청소년 이해	- 청소년의 특성 : 발달단계 - 독립된 자아의 형성, 분리개별화 이해
		의사소통 기술	- 관심, 경청, 공감, 수용의 중요성과 훈련
	자녀의 권익옹호자 (advocate)	학교폭력 지식	- 학교폭력의 특성, 가/피해 관계의 특수성 - 학교폭력 법, 사안처리, 해결절차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 학교폭력과 관련된 판단 및 의사결정 원칙
		협력관계 조성	- 교사, 학교, 경찰 등과의 협력관계 조성
		도움추구 행동	- 사회적 지지망의 인식과 활용
	부모의 성장	상처치유	- 상처와 아픔에 대한공감 - 피해자녀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공유
		양육자의 자기 이해	- 부모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 - 자녀와의 상호작용 패턴 점검
소진 방지		- 성공경험 나누기 - 전략 세우기(action planning) - 도움추구 행동의 실행	

다) 프로그램 운영원리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운영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주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이들의 바라는 도움과 욕구에 근거하여 특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부모교육의 형태로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피해의 경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6회기 90분-110분, 주 1회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지도자 1명과 부모 6-8명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 6회기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과 처리상태, 부모의 특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센터의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참여의 조건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프로그램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개인상담, 집단상담 모두 진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모듈식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회기를 선택,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구성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되며, 매회기 초에는 진행될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이전 회기에 부여된 과제를 점검하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부모들이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참여동기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매회기 프로그램 후반에는 가정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자녀에게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내용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법,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강의식보다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PPT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게임, 역할극 등을 활용하였다.

2) 프로그램 초안 구성

가) 프로그램의 초안 구성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부모교육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대상 교육과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대상 교육으로 구분하여 각각 구성하였다. 가해자 부모교육과 피해자 부모 교육 모두 부모 6~8명이 참여하는 소집단 대상의 활동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며, 1회기 당 90분~110분 가량 진행되도록 설정하였다. 총 6회기로 구성하되, 학교폭력 사안의 단계나 부모의 특성 등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부 회기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모듈식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전체 목표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익힌다.
2. 부모 자신의 성장을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단, 첫 번째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1. 자녀 성장의 조력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익힌다.
- 1-2. 합리적 문제해결 모델로서의 부모 역할을 익힌다.

또한 첫 번째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1. 자녀 성장의 조력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익힌다.
- 1-2. 자녀의 권익옹호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익힌다.

표 18.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내용

회기	회기 명	회기별 목표	세부 내용
1	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 부모의 어려움을 공감 ▪ 문제해결 및 프로그램 참여 동기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옆의 학교폭력 ▪ 우리 아이들과 학교폭력 ▪ 다시 한번 일어서는 마음
2	우리 아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경험 청소년의 어려움 이해 ▪ 학교폭력 절차 및 조치사항 이해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부모의 자세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에서 출발하기 ▪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3	아이와 말이 안 통할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관심 갖기의 중요성 인식 ▪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경청의 중요성 인식, 연습 ▪ 공감적 대화의 중요성 인식,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와 말문뜬기 ▪ 아이와 통하기
4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의 갈등 상황을 탐색 ▪ 갈등 상황에서 대처방법 습득 ▪ 칭찬 및 훈육 기술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글부글 100°C ▪ 따뜻한 40°C ▪ 우리 아이의 보석 찾기
5	부모도 지칠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어려움 공감 및 지지 ▪ 부모의 사회적 지지망 인식, 활용 ▪ 부모의 양육 자신감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도 괜찮은 부모! ▪ 나의 지원부대 ▪ 전문가 도움받기
6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결과 점검 ▪ 학습 내용의 지속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fore & After ▪ Action Plan ▪ 전하고픈 이야기

표 19.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내용

회기	회기 명	회기별 목표	세부 내용
1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 부모의 어려움을 공감 ▪ 문제해결 및 프로그램 참여 동기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옆의 학교폭력 ▪ 우리 아이들과 학교폭력 ▪ 다시 한번 일어서는 마음
2	왜 우리 아이가 말 안 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특성 이해 ▪ 학교폭력 피해자녀 특성 이해 ▪ 부모와의 상호작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 맘 속에서는 무슨 일이? ▪ 부모와는 무슨 일이?
3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학교생활 도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대응절차 습득 ▪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정보 습득 ▪ 자녀 학교생활을 위한 협력관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부모의 다른 자세 ▪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녀의 다른 자세
4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집에서 도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상처치유를 위한 공감의 중요성 인식 ▪ 관심, 경청을 통한 의사소통 기술 습득 ▪ 자녀 강점의 발견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通)하였느냐? ▪ Bully Diary 쓰기 ▪ 우리 아이 보석 찾기
5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부모도 지칠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어려움 공감 및 지지 ▪ 부모의 사회적 지지망 인식, 활용 ▪ 부모의 양육 자신감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도 괜찮은 부모! ▪ 나의 지원부대 ▪ 전문적인 도움받기
6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결과 점검 ▪ 학습 내용의 지속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fore & After ▪ Action Plan ▪ 전하고픈 이야기

2.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

가. 프로그램 시범운영

1) 시범운영 개요

개발된 프로그램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피해자 부모를 모집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센터 모집 결과,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총 8개 센터,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총 5개 센터가 신청하였으며, 이 중 가해자 부모교육과 피해자 부모교육을 모두 신청한 지역이 5개였다. 시범운영 신청 센터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27일에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 시연 등 시범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시범운영 신청 센터들은 각 지역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2012년 8월 16일부터 2012년 9월 20일까지 약 한달 동안 전국 6개 센터에서 실시되었다.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2012년 8월 14일부터 2012년 9월 27일까지 약 한달 동안 전국 4개 센터에서 실시되었다. 이 중 가해자 부모교육과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모두 실시한 센터는 3개소였다. 각 센터별로는 최소 2명~최대 10명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총 참여 인원은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43명,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23명이었으나, 개인 신변상의 문제 등으로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할 수 없었던 참여자들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이수 및 평가를 모두 마친 인원은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25명,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18명이었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효과성 검사를 위하여 1회기 이전 및 6회기 이후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매 회기별로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시범운영 지도자들 역시 매 회기별로 만족도 설문에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프로그램의 시의성, 적절성 등에 대한 총괄 평가를 참여자와 지도자 모두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지도자들 간의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회의가 2012년 10월 4일에 실시되었다.

2) 프로그램 평가

가) 연구설계

프로그램 효과는 참여자들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사전 검사는 시범운영 센터별 일정에 따라 1회기 프로그램 전에 측정하였고, 사후 검사는 6회기 이후에 측정하였다. 측정 변인은 부모의 양육행동척도, 부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등으로, 측정도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0.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측정도구

대상	측정도구	문항수	하위영역
가해자 부모 / 피해자 부모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을 신숙재(1997) 번안)	16	부모로서의 효능감,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Barnes & Olson(1982)을 김윤희(1990) 번안)	20	개방형, 문제형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MBRI) (Schaefer(1961)를 이원영(1983)이 번안, 배문주(2005) 수정·보완	48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및 지도자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족도 측정이 실시되었다. 회기별 만족도는 프로그램의 각 회기가 끝난 직후, 총 6번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6회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 1번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와 함께 본 프로그램의 시의성, 현장활용성, 적정성 등에 대한 총괄평가가 실시되었다.

나) 연구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대상은 본 프로그램을 1회기부터 6회기까지 참여한 부모 25명이었다. 총 6개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의 참여자들로, 각 센터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에서 부모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부모 및 자발적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 시범운영 참여를 안내

하고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5명, 경기 지역이 11명, 충청지역이 5명, 경상지역이 4명이었다. 성별은 남성 4명, 여성 21명이었고, 청소년과의 관계는 부 4명, 모 20명, 조모 1명이었다.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37세부터 74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5.08세였다. 참여자들의 학력 현황은 고졸 15명, 대졸 9명, 중졸 1명이었다. 참여자들의 자녀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20명, 여자가 5명이었고, 자녀의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1학년 까지 분포하였다.

표 21.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특성

항목	빈도(명)	백분율(%)	
지역	서울	5	20
	경기	11	44
	충청	5	20
	경상	4	16
성별	남	4	16
	여	21	84
자녀와의 관계	부	4	16
	모	20	80
	조모	1	4
연령	30대	3	12
	40대	21	84
	70대	1	4
학력	고졸	15	60
	대졸	9	36
	중졸	1	4
총 인원	25	100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의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대상자는 총 4개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된 본 프로그램을 1회기부터 6회기까지 참여한 부모들이다. 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여 시범운영 참여를 안내하고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4명, 경기 지역이 8명, 충청지역이 6명이었다. 성별은 남성 3명, 여성 15명이었고, 청소년과의 관계는 부 3명, 모 15명이었다.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38세부터 56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3.83세였다. 참여자들의 학력

현황은 고졸 8명, 대졸 9명, 석사 졸 1명이었다. 참여자들의 자녀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10명, 여자가 7명이었고(무응답 1명), 자녀의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 분포하였다.

표 22.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특성

항목	빈도(명)	백분율(%)	
지역	서울	4	22.2
	경기	8	44.4
	충청	6	33.3
성별	남	3	16.7
	여	15	83.3
자녀와의 관계	부	3	16.7
	모	15	83.3
연령	30대	1	5.6
	40대	16	88.9
	50대	1	5.6
학력	고졸	8	44.4
	대졸	9	50.5
	석사 졸	1	5.6
총 인원		18	100

다) 측정도구

(1)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부록 6)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 9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 4문항,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3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정말 그렇다' 까지의 5점 척도로 총점 범위는 16-80점이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부모로서의 효능감 Cronbach's $\alpha = .78$,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Cronbach's $\alpha = .67$,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Cronbach's $\alpha = .82$ 로 보고되었다(신숙재, 1997).

표 23.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구성

부모양육효능감 하위유형	문항수	문항번호
부모로서의 효능감	9	2, 3, 7, 8, 9*, 10*, 11, 12, 15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4	4*, 5*, 6*, 16*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3	1, 13*, 14

* 역채점 문항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PACI 부록 7)

부모의 의사소통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고 김윤희(1990)가 변안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로서, 하위요인은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은 세대가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한다. 본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 10문항, 문제형 의사소통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문제성이 적음을 뜻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문제성이 많음을 뜻한다. Olson 등이 1,841명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검사에서 개방형은 Cronbach's $\alpha = .87$, 문제형은 Cronbach's $\alpha = .78$ 가 나왔으며, 김윤희(1990)가 277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검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를 나타냈고, 개방형은 Cronbach's $\alpha = .82$, 문제형은 Cronbach's $\alpha = .72$ 로 나타났다.

표 2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구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하위유형	문항수	문항번호
개방형	10	1, 3, 5, 7, 9, 11, 13, 15, 17, 19
문제형	10	2, 4, 6, 8, 10, 12, 14, 16, 18, 20

(3) 어머니의 양육태도(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 부록 8)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는 Schaefer(1961)이 개발한 척도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고, 배문주(2005)가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4가지 하위변인으로 구분하는데,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가 그것이다. 각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이 가능하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애정적 태도 점수, 거부적 태도 점수, 자율적 태도 점수, 통제적 태도 점수를 구하게 되며, 평정 점수가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그 하위요인에 해당한다(이진희, 2011). 배문주(2005)의 연구에서는 동일질문에 대하여 부, 모를 각각 '아버지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중 부와 모가 모두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여 문항 중 '어머니' 라는 표현을 '부모' 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배문주(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경우 애정적 태도 Cronbach's α =.81, 거부적 태도 Cronbach's α =.74, 자율적 태도 Cronbach's α =.72, 통제적 태도 Cronbach's α =.68로 나타났다.

표 25.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 구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애정적 태도	12	1, 5, 7, 23, 24, 25, 26, 27, 28, 35, 36, 37
거부적 태도	12	3, 4, 14, 16, 17, 19, 29, 30, 31, 32, 33, 34
자율적 태도	12	2, 6, 11, 12, 13, 15, 38, 39, 40, 41, 42, 43
통제적 태도	12	8, 9, 10, 18, 20, 21, 22, 44, 45, 46, 47, 48

(4)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시범운영 이후 프로그램 참여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회기별 만족도는 프로그램의 매 회기가 끝난 시점에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는 6회기 실시 이후에 측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시의성, 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총괄 평가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평가는 전반적 회기 만족도 및 세부 활동별 만족도로 나누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회의에서 도움이 된 점과 아쉬웠던 점을 서

술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시의성, 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총괄 평가 역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라) 분석방법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 대하여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 자료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paired-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 버전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하고, 이를 시범운영한 후 효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효능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동일 집단에 대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를 활용하였다.

가.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1) 부모 양육효능감 변화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참여자들의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모 양육효능감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997, p<.01$). 즉,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부모로서의 효능감 요인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t=2.781, p<.05$).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요인 및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각 요인의 평균점수는 다소 증가하여 본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양육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26. 부모 양육효능감의 대응표본 T검정

		N=21			
부모 양육효능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부모 양육효능감	사전	51.86	6.06	-2.977**
		사후	56.29	8.16	
하 위 요 인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사전	11.14	2.46	-1.667
		사후	12.48	3.46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사전	11.90	1.51	-1.530
		사후	12.43	1.78	
	부모로서의 효능감	사전	28.81	4.45	-2.781*
		사후	31.38	4.99	

*** $p < .001$, ** $p < .01$, * $p < .05$

※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요인은 역채점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 및 좌절감이 낮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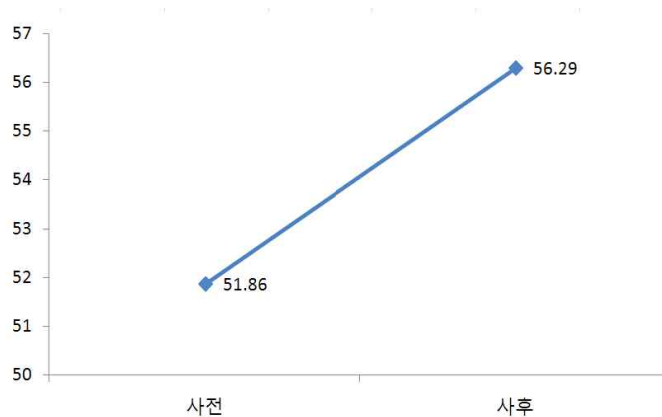


그림 2. 부모 양육효능감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화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참여자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중 개방형 의사소통 요인과 문제형 의사소통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평균 점수 상으로는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가 다소 증가하고,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대응표본 T검정

N=2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개방형	사전	36.19	4.43	-.842
	사후	37.14	4.69	
문제형	사전	23.29	6.60	1.053
	사후	21.81	6.48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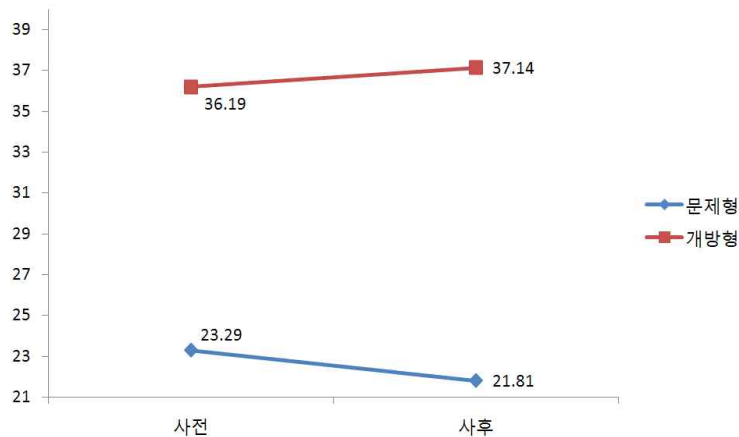


그림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3)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참여자들에게서는 양육태도의 4가지 유형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다만 평균점수 상으로는 긍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의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 소폭 상승하였고, 부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다소 낮아졌다.

표 28.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대응표본 T검정

N=21				
어머니의 양육태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애정적 태도	사전	43.90	5.90	-.871
	사후	44.76	5.60	
거부적 태도	사전	33.38	5.22	.670
	사후	32.57	6.59	
자율적 태도	사전	39.95	4.51	-.859
	사후	40.81	5.27	
통제적 태도	사전	40.24	5.37	.739
	사후	39.24	6.34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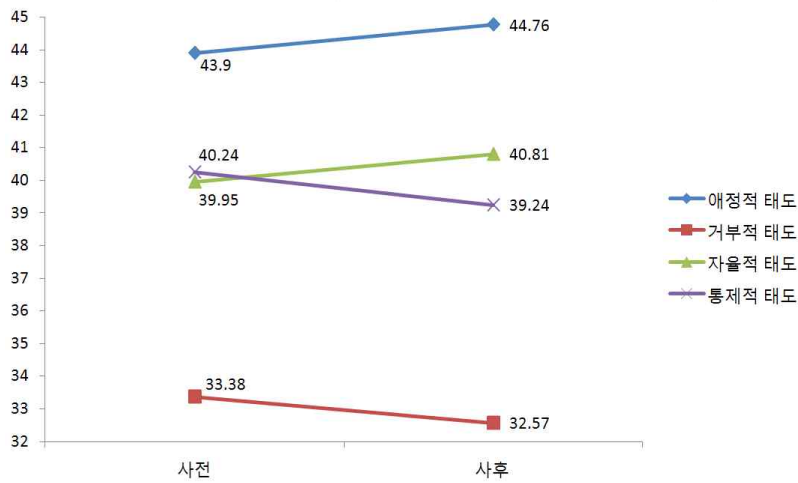


그림 4.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나.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1) 부모 양육효능감 변화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부모 양육효능감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검증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 참여자들에게 부모 양육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t=-3.079$, $p<.05$). 이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로는 부모로서의 효능감 요인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t=-3.323$, $p<.0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 참여후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요인과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요인의 평균 점수 역시 다소 상승하였다.

표 29. 부모 양육효능감의 대응표본 T검정

N=13					
	부모 양육효능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부모양육효능감	사전	49.62	6.83	-3.079*
		사후	55.92	10.48	
하 위 요 인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사전	10.77	2.77	-1.879
		사후	12.54	4.16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사전	11.23	1.92	-1.046
		사후	11.62	1.94	
	부모로서의 효능감	사전	27.62	4.89	-3.323**
		사후	31.77	5.51	

*** $p < .001$, ** $p < .01$, * $p < .05$

※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요인은 역채점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 및 좌절감이 낮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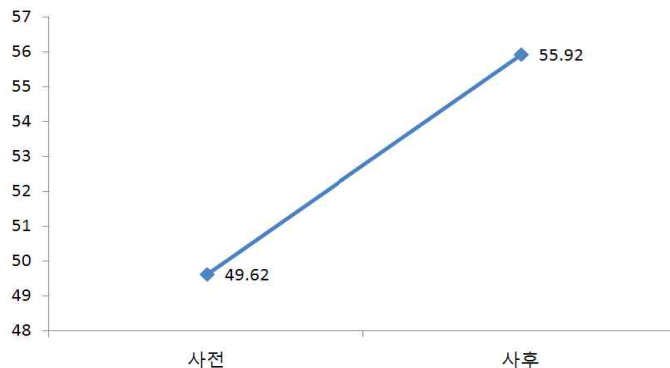


그림 5. 부모 양육효능감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화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변화가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의사소통 유형 중 긍정적 의사소통 유형에 해당하는 개방형 점수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t=-3.267, p<.01$). 부정적 의사소통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유의하게 낮아졌다($=-3.267, p<.01$). 즉, 프로그램 처치 이후 참여자들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대응표본 T검정

N=1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개방형	사전	35.18	6.57	-3.267**
	사후	38.29	6.02	
문제형	사전	24.00	7.19	2.416*
	사후	21.06	6.83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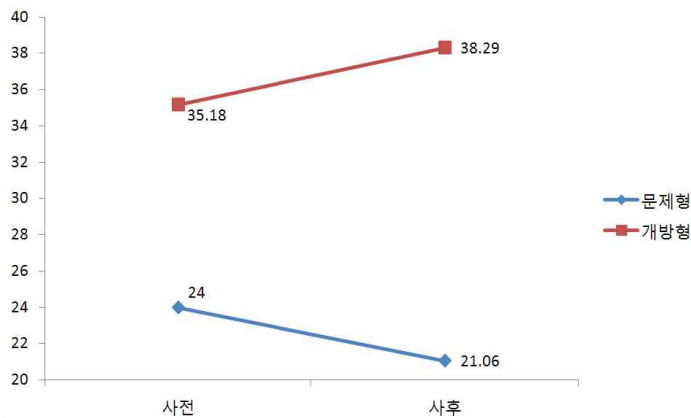


그림 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3)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에 따른 양육태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양육태도의 4가지 하위유형 모두에서 변화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긍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애정적 태도($t=-3.106, p<.01$), 자율적 태도($t=-4.411, p<.001$)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거부적 태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후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t=3.290, p<.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통제적 태도의 사후점수가 사전 검사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대응표본 T검정

N=14				
어머니의 양육태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애정적 태도	사전	41.57	5.56	-3.106**
	사후	44.36	6.80	
거부적 태도	사전	38.43	4.99	3.290**
	사후	34.07	6.96	
자율적 태도	사전	38.29	4.14	-4.411***
	사후	42.71	5.17	
통제적 태도	사전	41.29	5.76	1.031
	사후	40.07	4.10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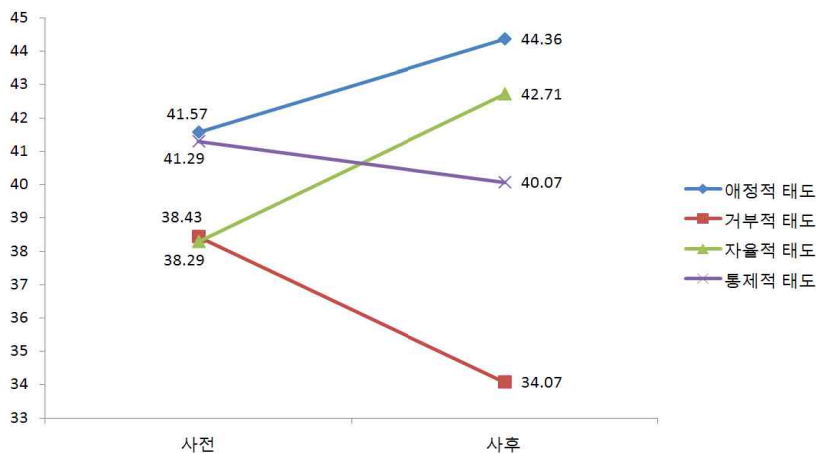


그림 7.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

다. 결과 요약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25명,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18명이었으며, 참여자들은 각각 주 1회 총 6회기로 구성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척도는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부모 및 피해자 부모 각각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시도하였으나, 비교가 가능할만큼 충분한 통제집단 인원이 모이지 않았다. 이는 대상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해자 부모 중 부모교육 이수 명령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조치이행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하므로 대기집단 활용을 통한 통제집단 운영이 어려웠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효능감의 경우, 가해자 부모집단과 피해자 부모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다. 하위요인별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도, 가해자 부모집단과 피해자 부모집단 모두 '부모로서의 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로써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부모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양육유능감에 대해 더 높게 지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전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피해자 부모집단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증가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부모집단 역시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가 증가하고,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녀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방식의 사용이 증가하고,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의 사용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피해자 부모집단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양육태도의 변화 역시, 가해자 부모집단에게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피해자 부모집단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부모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고, 거부적 태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통제적 태도의 평균점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가해자 부모집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 점수는 증가하고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의 점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교폭력 경험 청소년의 부모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긍정적 양육태도가 증진되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감소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프로그램 참여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해부모들의 경우 특별교육 이수명령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프로그램 참여도와 몰입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비자발적인 부모들은 끝까지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는 지도자들의 피드백이 있었다. 반면에 피해부모들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도와 몰입도에서 차이를 가져오며, 나아가 효과성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부모들의 경우 모든 측정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이룬 반면, 가해부모들의 경우 양육효능감이라고 하는 인식수준에서의 변화에 그쳤다. 하지만 가해부모들의 비자발성을 생각해 볼 때 이는 향후 인식-정서-행동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변화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2.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평가는 참여자와 지도자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매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회기별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6회기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와 프로그램 적합성 및 현장활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평가는 '매우 불만족' 부터 '매우 만족'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었다.

가.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1) 부모의 평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4.40점이었고, 각 회기별 만족도 역시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중 부모를 지지하고 스트레스 해소 전략 등을 다루는 5회기('부모도 지칠 때는 어떡하죠? ')의 만족도가 4.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는 6회기('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의 만족도가 4.4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 경청, 공감적 대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3회기('아이와 말이 인통할 때는 어떡하죠? ')의 만족도가 4.43으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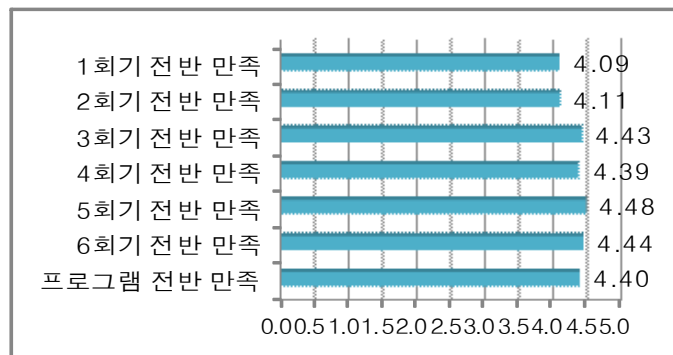


그림 8.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부모)

각 회기별로 부모들이 응답한 피드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세한 의견은 부록 9에 제시하였다.

1회기의 경우, 비슷한 문제로 만난 부모들 간의 공유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를 다시금 알게 되고, 가해자 요인과 관련한 교육을 통해 자녀를 보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시간이 부족했고, 학생처럼 글로 표현하거나 강의를 듣는 부분이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회기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 이후 대처방법을 알게 되었고, 사소한 부모의 행동이나 말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실제 참여자들의 사례를 다루기 원했다는 의견 및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3회기에서는 자녀와의 대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이를 실천해야겠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이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고하였다. 4회기의 경우, 칭찬과 격려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자녀의 강점을 다시금 발견한 계기가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참여자 간 대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활동 내용이 인쇄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5회기의 경우, 이전까지 자녀에 대해 생각하다가 부모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괜찮은 부모였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어서 위로가 되었고, 전문적 도움 받기 활동을 통해 도움 받을 곳을 알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아쉬운 점으로는 각 활동별 참여자 간 대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6회기의 경우, Action Plan 활동을 통해 목표의식과 실천의지를 다질 수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대하는 방법을 조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참여자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도움이 되는 점으로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 지침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부모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반면에 아쉬운 점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 단계에 따라 초범 자녀, 재범 자녀 등으로 분류하여 단계별 다양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워크시트 등에 글로 적어야하는 점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참여자들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감과 대화법을 습득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 목표하고

있는 ‘자녀 성장의 조력자’ 역할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침, 실태 등을 알게 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합리적 문제해결 촉진자’ 역할과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문제를 가진 부모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점 등은 ‘부모의 성장’이라는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회기별 진행시간이 부족하고,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것 등이 다소 어려웠다는 점은 공통적인 한계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참여자가 평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현장활용성은 표 32와 같다. 프로그램의 유익성이 평균 4.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현장에서의 실용성 4.31점, 현장 기여도가 4.31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시의적절성은 4.11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전에 교육을 받았다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의견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참여자들이 더 빨리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접하지 못한 아쉬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2.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및 현장활용성 평가(부모)

질문	만족도
1 본 프로그램 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1
2 본 프로그램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29
3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31
4 본 프로그램을 부모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4
5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31

2) 지도자 평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했던 지도자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4.00점이었고, 각 회기별 만족도는 3.50점부터 4.50점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는 모든 회기의 만족도가 4.0점 이상이었던 부모들의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 중 부모를 지지하고 스트레스 해소 전략 등을 다루는 5회기(‘부모도 지칠 때는 어떡하죠?’)의 만족도와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는 6회기(‘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의 만족도가 4.50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폭력 실태, 동기부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1회기 (‘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와 적극적 경청, 공감적 대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3회기 (‘아이와 말이 안 통할 때는 어떡하죠?’)의 만족도가 각각 3.50점, 3.6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3회기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모들의 평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평가회의 시 일부 지도자들은 대화법의 강의와 실습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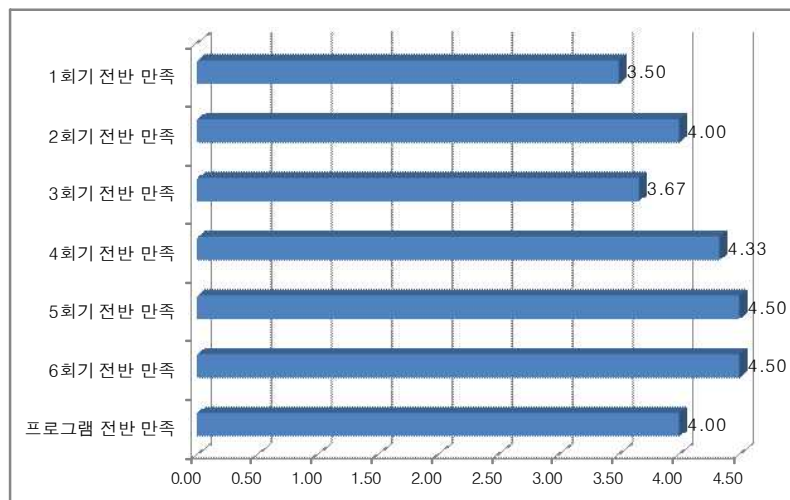


그림 9.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지도자)

각 회기별로 지도자들이 응답한 피드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세한 의견은 부록 10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전반적으로는, 가해자 부모로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회기가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반성의 노력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되었다. 청소년기의 이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칭찬과 훈육의 방법 등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워크시트 작성이 많은 점이 어려웠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각 회기별로 살펴보면, 1회기의 경우, 가해자라는 낙인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점과 교구재로 사용된 동영상에 도움이 됐다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내용이 많고, 사전 검사를 미리 하지 못한 경우 특히 시간이 촉박했던 점과 워업인 텔레게임이 부모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

은 아쉬웠던 점으로 제시하였다. 2회기에서는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사례를 분석하면서 객관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가해와 피해가 순환될 수 있다는 점이 공감을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까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에 진행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공통된 한계로 지적하였다. 3회기의 경우, 부모가 자신의 말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된 점,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다룰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고, 감정코칭 설문지와 I-message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회기의 경우,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칭찬과 훈육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부모들 간에 더 토론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평가하였다. 5회기의 경우, 전문기관 등의 안내가 부모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주어 마음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고, '나도 괜찮은 부모' 활동을 통해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참여자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경우 위축될 수 있으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6회기에서는 Action Plan을 통해 실천사항을 구체화 할 수 있었고, 참여자들이 지도자의 기대보다 실천계획을 잘 작성했다고 평가했다.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현장활용성을 평가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 부합 정도가 평균 4.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익성과 현장 기여도가 4.50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실용성은 3.8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피드백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분량을 제한된 시간 내에 소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3.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및 현장활용성 평가(지도자)

	질문	만족도
1	본 프로그램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7
2	본 프로그램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67
3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83
4	본 프로그램을 부모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0
5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50

나.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1) 부모의 평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4.61점이었고, 각 회기별 만족도 역시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중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는 6회기(‘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의 만족도가 4.7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자녀와의 대화법, Bully Diary 쓰기, 강점 찾기 등이 포함된 4회기(‘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에서 도와주기’)의 만족도가 4.59점으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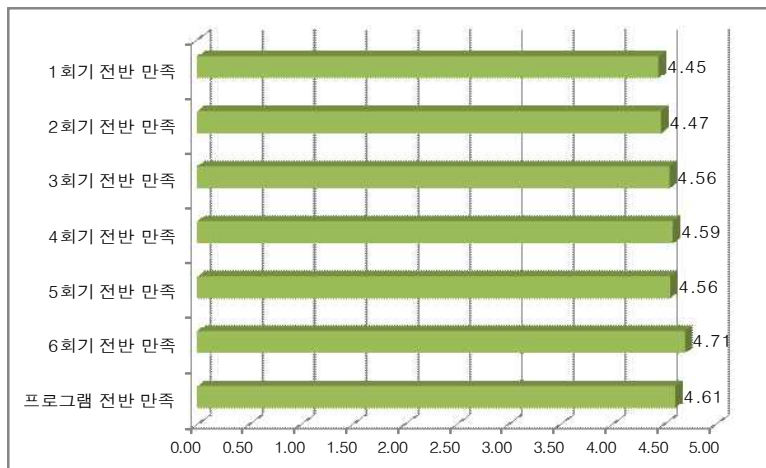


그림 10.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부모)

각 회기별로 부모들이 응답한 피드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세한 의견은 부록 9에 제시하였다.

1회기의 경우, 사소한 일들도 학교폭력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참여자들 간의 경험 나눔을 통해 공감할 수 있었다는 의견 또한 많았다. 반면에 프로그램 시간이 부족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사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2회기에서는 아이의 뇌구조 그리기 활동을 통해 자녀의 생각을 알게 되고, 공감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

견이 있었다. 3회기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고, 지침서를 비롯한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진행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되었고, 이러한 교육을 더 빨리 받았더라면 학교폭력 사안에 더 잘 대처했을 수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4회기의 경우, 보석찾기 활동을 통해 자녀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의견과 Bully Diary를 통해 자녀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시간이 부족하여 참여자 간의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점과, 프로그램 내용이 책자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5회기에서는 부모의 장점을 찾으며 자신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뿐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음을 알게 된 점 등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적 도움받기의 기관들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6회기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적었던 보물상자를 Action Plan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도움이 된 점으로는, 자녀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감정에 공감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다는 점,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과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아쉬운 점으로는, 각 회기별로 진행 시간이 부족했고, 참여자별로 깊이있는 탐색이 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참여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의 목표 중 ‘자녀 성장의 조력자’ 역할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지침, 자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 등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목표 중 ‘자녀의 권익 옹호자’ 역할의 구성요소인 학교폭력 지식,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움추구 행동 등에 대해 도움을 얻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협력관계 조과 관련된 언급은 없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전달되기에는 부족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다른 부모들과의 대화, 공감대 형성, 부모로서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성장’ 이라는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하는 측면이다. 반면에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부족하여 집단상담처럼 개개인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해결하기에는 부족했다는 면이 아쉬운 점으로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현장활용성을 평가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프로그램의 유익성이 평균 4.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현장 기여도 4.50점, 실용성이 4.44점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 부모교육 참여자들은 모든 문항에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34.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및 현장활용성 평가(부모)

질문	만족도
1 본 프로그램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41
2 본 프로그램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33
3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44
4 본 프로그램을 부모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72
5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50

2) 지도자 평가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했던 지도자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4.50점이었고, 각 회기별 만족도 모두 4.0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 중 학교폭력 대처 방안에 대해 다루는 3회기('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교생활 도와주기')의 만족도가 4.7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는 4회기('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에서 도와주기'), 5회기('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도 지칠 때'), 6회기('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4.50점으로 비슷한 정도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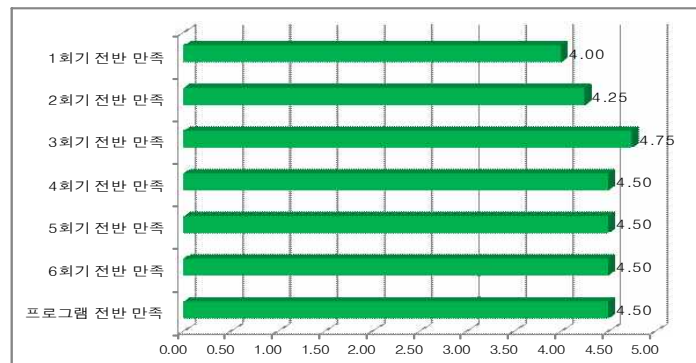


그림 11.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도자)

각 회기별로 지도자들이 응답한 피드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세한 의견은 부록 10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전반적으로는, 참여자들이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 점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하였다. 특히 기존에는 대처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자책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부모로서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회기별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으며,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소규모 교육프로그램이므로 많은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회기별로 살펴보면, 1회기의 경우 참여자들 간의 공감적인 개방과 상처 치유에 대한 기대가 동기부여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기개방을 끌어내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교육 시간을 충분히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회기에서는 부모의 행동에 따른 자녀의 행동을 고민하고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스스로 대안을 찾는 시간이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양육태도 점점 척도가 신뢰도 및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임을 확인시켜주었으면 한다는 점과, 자녀들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교구재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3회기의 경우 구체적인 지침서를 제공한 점과 자신의 대응 방식을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었고,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계속해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고, 자녀의 학교생활 수칙과 관련한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4회기에서는 상황별 대화 연습을 워크시트가 아닌 실습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또한 Bully Diary라 새로운 시각에서 피해자녀와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Bully Dairy를 자녀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5회기의 경우, 그간 자녀에게 집중되었던 에너지가 부모 자신을 향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지지망과 스트레스 대처법을 통해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단, 전문기관 리스트에서 부모를 위한 기관이 보다 추가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시간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6회기의 경우, 서로에게 칭찬 카드를 활용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의견과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도전을 받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Action Plan 작성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예시를 제공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현장활용성을 평가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프로그램 유익성이 5.0점으로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 부합 정도와 현장 기여도가 평균 4.75점으

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프로그램의 시의적절성은 3.7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빨리 개발, 보급되었어야 한다는 지도자들의 피드백을 고려해볼 때, 현장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은 만큼 더 조속히 보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5.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및 현장활용성 평가(지도자)

	질문	만족도
1	본 프로그램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75
2	본 프로그램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75
3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25
4	본 프로그램을 부모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0
5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75

3.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지도자들의 평가회의와 학교폭력 및 부모교육 전문가 감수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회의에는 가해자 부모교육 시범운영을 진행한 지도자 6명과 프로그램 개발자 2명이 참여하였고,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회의에는 피해자 부모교육 시범운영을 진행한 지도자 3명과 프로그램 개발자 2명이 참여했다. 또한 전문가 감수에는 청소년 및 부모 상담 경력이 5년 이상 되었으며, 상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가 2명이 참여하였다.

가.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

1) 지도자 평가회의

지도자들과 평가회의를 진행한 결과는 표 36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및 회기별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참여자의 모집 및 참석과 관련하여, 가해자 부모의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나 학내 선도위원회 등에서 징계조치로써 교육에 참여한

부모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참여자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직장에 다니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학교의 징계로 5시간 부모교육 조치를 받은 경우, 본 프로그램은 80분~90분에 6회기로 구성되어 조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참석해야하므로 부모님들에게 양해와 동의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5시간만을 채우고 이후 회기는 참석하지 않은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1회기~6회기 중 필수회기와 선택회기를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일부 회기를 선택하여 구성 및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 강의식 교육과 집단상담식 활동을 분리하여 필요한 경우 강의식 교육만 진행하거나 집단상담만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회기별 시간의 경우, 참여자 부모들의 의견처럼 80분 이내에 주어진 내용을 다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깊이 듣거나, 프로그램 내용 외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회기별 활동 내에서도 필수활동과 선택활동은 구분하여 선택활동은 지도자가 상황에 따라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특히 워업 활동의 경우, 남녀 성별이 섞인 경우 어색해하며 진행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많고, 지난 회기나 과제 점검 등에서 시간이 많이 할애되면 워업 활동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 경우 워업 활동은 선택활동으로, 주 활동은 필수 활동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 회기 시간을 120분으로 늘리는 방법, 2회기씩을 묶어서 120분 내로 진행하되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세부 회기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일부 회기별 활동 사항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회기별 활동 중 워크시트의 활용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작성해야하는 워크시트가 다소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모의 특성 상 필기하기보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특히 교육이수 명령에 의해 참석하여 참여 동기가 높지 않은 경우, 지나치게 많은 워크시트 작성은 참여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불만이 높아짐이 지적되었다. 이에 일부 회기에서의 워크시트를 삭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각 회기별로 살펴본 지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1회기의 경우, 텔레게임 워업은 참여자 간의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거나 성별이 섞인 경우 진행하기 어려웠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O, X 퀴즈는 재밌었지만 분량과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강의 시, 비난이나 일방적 전달보다 이해와 피해의 순환을 강조하는 것이 참여 부모들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접근임이 강조되었다. 2회기의

경우, 사례를 분석하고 다르게 대처하는 활동을 워크시트가 아닌 역할극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내 마음이 들리니’ 활동은 어려워하는 참가자들이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이나 자녀들의 입장이 담긴 영상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회기의 경우, 별도의 워업을 하기보다 ‘오빠vs.아저씨 퀴즈’를 워업활동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감정코칭 체크리스트의 실시와 전달이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4회기의 경우 강의에 대한 호응이 좋았으며, ‘훈육’이라는 표현을 ‘격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5회기의 경우, ‘나의 지지망’ 활동은 참여자들이 다소 지루해하기도 하고, 전문기관 리스트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전문기관 리스트에는 각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도록 양식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회기의 경우, 활동 및 영상 모두 반응이 좋았으나, 활동 순서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6.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회의 결과

회기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회기 명	의견
1	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게임 워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있음. - 퀴즈는 난이도 조정 필요, 분량 줄여도 좋음. - 동영상에 가해자/피해자/방관자가 모두 담긴 영상이라 좋음. - 가피해의 순환 강조 필요 - 율리툼 과제는 지속적으로 할 때 효과적임 - 워크시트 내용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음 - 부모 역할 설명: 워크시트 빼고 핸드아웃이나 설명으로 대체
2	우리 아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만 시청하는 것이 좋음. 부모 입장에 공감 - 실 사례의 활용 필요 - 내 마음이 들리니: 작성 어려워하며 연결성 떨어짐. 영상을 하나 보고 본 활동을 진행하는 방안. - 부모 자세 역할극으로 하니 반응이 좋음. - 절차 안의 공개 사과의 필요성과 내용 강조 필요
3	아이와 말이 안 통할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빠/아저씨 퀴즈를 워업으로 실시 - ‘누구랑 이야기 하시겠어요?’ 워크시트는 없이 가능 - 경청연습: 좋은데 시간 부족. 취지에 맞는 활동. - 감정코칭 체크리스트: 부모님들 어려워함.
4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글부글’ 활동 이후 대처에 대한 질문 많은데 스트레스 관리등과 연결 가능 - 참여자들이 강의 좋아함. - 칭찬과 격려를 강조하는 것으로 워크시트 수정 - 보석찾기 워크시트 수정.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회기	회기 명	의견
5	부모도 지칠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이 부모한테 오니까 반응 좋음. 지지받는 느낌. - 지지망 쓰기는 필요 없음. 또는 전문가 도움 + 지원부대를 합치기 - 부모의 지원기관을 더 추가했으면 함 +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여백 - 스트레스 쓰기/해소전략 쓰기는 좋음 - 자신에게 선물주기 활동 선택 가능 - 부모 간 피드백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6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이 좋아함. - 워크시트는 비어두되, 지도자 멘트로 설명 가능. 간격은 더 넓히기. - 20억년 사랑 영상이 좋음 - 진행 순서 변경 필요
	운영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폭력자치 위원회나 학내 선도 위원회 등에서 징계조치로써 교육에 참여한 부모가 대다수였음. - 지속적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 징계조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참석해야하는데 1회 5시간 교육이 아니라 매주 참석하게 되어 있어 양해와 동의를 구하기 어려웠음. - 1회기~6회기 중 필수회기와 선택회기를 구분하여 강의식 교육과 집단 상담식 활동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방식 가능 -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깊이 듣거나, 프로그램 내용 외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음. - 회기별 활동 내에서도 필수활동과 선택활동은 구분 - 프로그램 회기 시간을 120분으로 늘리는 방법, 2회기씩을 묶어서 120분 내로 진행하는 방법이 제시됨. - 워크시트가 다소 많다는 의견이 제시됨.

2) 전문가 감수

본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2인에게 감수를 받은 결과는 표 37과 같고,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그램 개요 및 사전 O.T의 경우, 프로그램 구성 부분에 소요 시간이나 필수/선택 회기를 표기하는 등 보다 보기 편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회기별로 살펴보면 1회기의 경우, 가해자 학생의 종합적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생물학적 요인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우리 프로그램 약속'에 참여자가 스스로 만든 약속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2회기의 경우, 3회기의 모든 활동이 포함되도록 차시 예고를 수정해야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가해자 부모에 대한 공감 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3회기의 경우, 차시 예고에 대한 수정사항이 지적되었고, '아이와 말문트기', '아이와 통하기' 활동을 역할연습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

이 제안되었다. 4회기 역시 3회기와 마찬가지로 차시 예고의 수정, 역할연습 등이 제안되었다. 5회기의 경우, 본 회기가 중요한 회기이므로 선택회기가 아니라 필수회기로 구성하는 의견과 부모의 장점을 잘 살리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회기의 경우에도 작은 변화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필수회기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가능하다면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또는 회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7.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감수의견

회기	내용
프로그램 개요 및 사전 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p.2 '프로그램 구성' 에 '소요시간' 과 '선택/필수' 에 관한 관련 정보가 제시되는 것이 더욱 좋을 듯함. (감수자1) - 개요와 전체구성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더욱 좋겠음. (감수자2)
1회기 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으로 가해자 학생을 이해에 도움이 됨. p.20 학교폭력 원인에 생물학적 요인이 빠진 것 같음.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이 영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감수자1) - p.13 우리프로그램 약속에 참여부모 자신만의 마음을 담은 약속을 쓸 수 있도록 5번을 만들어서 빈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음. (감수자2)
2회기 우리 아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26 차시예고 시 여러 차시를 예고해야할 것으로 보임. (감수자1) - p.33 '우리아이 뇌구조 그리기' 에서 단순한 그림이 아닌 실제 가해자 뇌를 소개한 후 우리아이의 뇌구조를 그려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음. 예컨대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전두엽(신피질, 이성의 뇌)이 거의 없고, 포유류의 뇌(감정의 뇌)와 파충류의 뇌(생명의 뇌)가 부각되는 그림. (감수자1) - 가해학생 부모로서 먼저 공감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하고 피해학생부문을 들어가면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감수자2)
3회기 아이와 말이 안 통할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44 차시예고 수정 (감수자1) - 말문트기와 통하기를 빈의자나 역할연기를 통하여 연습하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도 좋음. (감수자2)
4회기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62 차시예고 수정 (감수자1) - 3회기와 마찬가지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연습을 하면서 불편한 느낌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생각해보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 (감수자2)

회기	내용
5회기 부모도 지칠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80 차시예고 수정 (감수자1) - 5회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정 바람. 대부분의 가해자 부모들이 지쳐있고, 부모 자체가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런 맥락에서 '나도 괜찮은 부모' 영역이 조금 더 강화되면 가해자 부모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앞으로 자녀를 지도하는데 힘이 될 것임. (감수자1) - 지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찾아보고 좋은 점을 의식적으로 연습하게 하고 안 좋은 점을 대체하는 활동 제안. 부모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도 좋을 듯함. (감수자2)
6회기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회기는 필수로 지정 바람. 짧은 시간의 프로그램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작은 변화' 일지라도 이곳에서 정리/마무리하여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 필요. (감수자1) - 자신의 아이와 실제로 함께 하고 난 후의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나눠보는 시간 필요. 그리고 배운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어려움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고 다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안을 생각하도록 함. (감수자2)

나.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

1) 지도자 평가회의

지도자들과 평가회의를 진행한 결과는 표 38과 같으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및 회기별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참여자의 모집 및 참석과 관련하여, 피해자 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센터의 프로그램 공지나 안내를 보고 참여한 자발적 참여자였다. 자발적 참여자들이므로 동기가 높고 호응도 좋았으나, 가해자 부모와 달리 강제성이 없어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맞벌이 부모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지 못하거나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참여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학교의 부모들끼리 참석하기보다, 각기 다른 학교의 부모가 참석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여자 특성 상 학교에서 소문이 나는 것이나, 비밀보장에 민감한데 같은 학교의 참여자가 없는 경우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따라서 추후 프로그램 모집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둘째, 회기별 시간의 경우, 피해자 프로그램 역시 가해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내용을 80분~90분 이내에 소화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피해자 부모의 경우, 가해자 부모에 비해 비구조화 집단상담처럼 개인적 이야기를 깊이 다루기 원하는 욕

구가 높았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하기 위해 참여자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나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던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회기내 활동을 필수/선택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몇 개의 필수 활동을 깊이 다루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회기별 워크시트 활동과 관련하여, 피해자 부모 역시 워크시트 작성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몇몇 회기별 워크시트 활동을 역할극이나 구두로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넷째,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피해자 부모의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처 기술에 관심이 많고, 또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도자가 다양한 실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 부모 역시 피해 자녀의 마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확인해 보는 활동이나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지도자 의견을 각 회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회기의 경우, '학교폭력 OX 퀴즈'와 '어떻게 볼까요?' 활동은 주어진 분량이 많아 다소 지루할 수 있으므로 분량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마음색칠' 활동을 자녀에게 직접해보도록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2회기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마음이나 상황을 헤아려볼 수 있는 영상이나 교구재를 추가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검사'는 자연스럽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간략하게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3회기의 경우,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이 호응이 높았으나, 강의와 사례를 번갈아가며 보는 것이 다소 복잡하여 강의 부분과 사례분석 부분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피해자 부모 역시 가해자녀들의 마음이나 심리를 궁금해하므로, 이에 대한 강의를 추가되는 것이 제안되었다. 4회기의 경우, '누구에게 이야기하시겠어요?' 활동 시 워크시트가 굳이 필요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Bully Diary' 작성 시 참여자에게 노트를 선물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고, 활동제목이 너무 직설적이므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5회기의 경우, '나의 지지망' 활동은 참여자들이 다소 지루해하기도 하고, 전문기관 리스트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전문기관 리스트에는 각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도록 양식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회기에서는 '스필버그 이야기'가 교육을 마무리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부모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이어서 우리나라의 사례나 부모의 기다림에 관한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8.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회의 결과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회기	회기 명	의견
1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게임은 공간 제약이 있으면 어려움. - 퀴즈는 재밌었는데 뒤에는 다 O여서 흥미 떨어짐. 난이도 조정 필요 - 마음색칠: 아이에게 실시하기 숙제로 활용, 부모와 대화할 계기 마련 가능 - 어떻게 볼까요? : 분량 줄이기
2	왜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구조 활동 시, 부모들이 학교 상황은 잘 모르므로 아이의 영상을 보는게 필요. - 상호작용 검사는 삭제. 해석이 어려우며, 필요하다면 핸드아웃 자료로 대체 가능 - 실제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 자료 등 필요
3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학교생활 도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절차 부분에서 피해자 부모는 지침관련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반응 좋음. - 대응절차 만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음. - 강의를 앞, 사례를 뒤로 빼는 게 좋음. - 피해가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필요. 안 그러면 학교에 푸쉬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음. - 피해자 부모에게도 가해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4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집에서 도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하였느냐 워크시트 삭제 - 상황별 대화연습 상황은 앞에서 나온 이야기의 반복이 되는 경우 많음 - bully diary 쓰기 필요. 부모에게 노트 선물 등 가능. 단, 제목 변경 필요. 감정일기/비밀일기 등
5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부모도 지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이 부모한테 오니까 반응 좋음. 지지받는 느낌. - 지지망 쓰기는 필요 없는 듯. 전문가 도움 + 자원부대를 합치기 - 부모의 지원기관을 더 추가했으면 함 +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여백 - 스트레스 쓰기/해소전략 쓰기는 좋음 - 자기에겐 선물주기 활동 선택 가능 - 관참은 부모 활동에서 피드백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6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버그 영상: 마무리 느낌이 아니어서 오히려 부담감이 들 수도 있음. 보석찾기 쪽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
	운영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참여자들이 대다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모집 어려움. - 지속적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 비밀보장을 위해 여러 학교의 부모가 섞여 진행되는 것이 좋음 - 회기별 시간 부족. 프로그램 회기 시간을 120분으로 늘리는 방법, 2회기씩을 묶어서 120분 내로 진행하는 방법 가능 - 워크시트가 다소 많다는 의견이 제시됨.

2) 전문가 감수

본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2인에게 감수를 받은 결과는 표 42와 같고,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개요 및 사전 O.T의 경우, 프로그램 구성 부분에서 소요 시간, 필수/선택 회기 등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어서 1회기의 경우, '학교폭력 원인'에 대한 자료가 자녀에 대한 비난으로 비취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원인 기술에 주의해야한다는 지적과, '우리 프로그램 약속'에 참여자가 스스로 만든 약속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2회기의 경우, 3회기의 모든 활동이 포함되도록 차시 예고를 수정해야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집단괴롭힘의 이유에 대한 강의자료 역시 피해자녀에 대한 비난으로 다가갈 수 있으므로 다른 표현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보다 연습활동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3회기의 경우, 차시 예고에 대한 수정사항이 지적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변 친구나 선생님에게 도움요청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4회기에서도 차시 예고의 수정이 지적되었고, 가해자 프로그램과 같은 격려 및 칭찬하기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제안되었다. 5회기의 경우, 본 회기를 선택회기가 아니라 필수회기로 구성하자는 의견과 부모의 장점을 잘 살리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회기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효과를 실천하기 위해 본 회기를 필수회기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가능하다면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또는 회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9.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감수의견

회기	내용
프로그램 개요 및 사전 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p2 '프로그램 구성' 에 '소요시간' 과 '선택/필수' 에 관한 관련 정보가 제시되는 것이 더욱 좋을 듯함. (감수자1) - 개요와 전체구성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더욱 좋겠음. (감수자2)
1회기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20 학교폭력의 원인을 오해하면, 당신의 아이가 문제가 있어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전달될 수 있음. 이를 학교폭력 피해자의 원인을 따로 제시하거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원인으로 기술하기 바람. (감수자1) - 가해자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13쪽 우리프로그램 약속에 참여부모 자신만의 마음을 담은 약속을 쓸 수 있도록 5번을 만들어서 빈칸으로 하면 좋을 듯함. (감수자2) - 피해 학부모에 대한 공감 활동 필요.(감수자2)
2회기 왜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26 차시예고 시 차시를 예고해야할 것으로 보임. p.33 우리아이 뇌구조 그리기에서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닌 실제 피해자 뇌구조를 소개하고 우리아이의 뇌구조를 그려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p. 34 집단괴롭힘의 이유 또한 피해자 부모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달리 표현할 것(감수자1) - 자녀와 속말을 했을 때의 경험 찾기 활동을 통해 이야기 잘 할 때와 안 할 때를 느껴보는 활동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음. (감수자2) - 연습활동을 좀 더 첨가. (감수자2)
3회기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학교생활 도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42 차시예고 수정 (감수자1) - 부모가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할 때 가장 가까운 친구나 선생님에게 도움 요청하기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가까운 친구나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활동이 먼저 있어야 함). (감수자2)
4회기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집에서 도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53 차시예고 수정 (감수자1) - 피해학생 특징 중의 하나로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칭찬과 격려하기가 가해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좋을 듯함. (감수자2)
5회기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부모도 지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72 차시예고 수정. 5회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정. 대부분의 피해자 부모들이 지쳐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런 맥락에서도 '나도 괜찮은 부모' (p. 78) 영역을 좀 더 강화. (감수자1) - 지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찾아보고 좋은 점을 의식적으로 연습하게 하고 안 좋은 점을 대체. 부모로서 없는 새로운 것도 좋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음. (감수자2)
6회기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회기는 필수로 지정. 한 번의 프로그램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것을 최종 정리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 필요. (감수자1) - 피해를 당한 자신의 아이와 실제로 함께 하고 난 후의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 그리고 배운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어려움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고 다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안을 탐색하도록 함. (감수자2)

4.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 만족도 조사, 지도자 평가회의 및 전문가 감수를 통해 프로그램의 수정 방향을 수립하였다. 프로그램은 세부 지침과 교구재 등을 수정·보완하여, 개발을 완료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정 사항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수정 방향 및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회기를 필수 회기와 선택 회기로 구분하고, 또한 회기 내의 활동 역시 몇 가지 선택 활동들을 제시하는 모듈식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이는 부모교육의 경우, 6주에 걸쳐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운 집단이 많고, 특히 가해자 부모의 경우 징계조치로 인한 부모교육 이수 등을 운영할 때 집단 특성에 맞게 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기별 활동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회기 시간과 선택 활동 제시 등으로 회기별 운영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참여자 성별구성 등의 요건에 따라 워업 활동 등을 실시하기 쉬운 경우도 있고,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워업 활동을 선택 활동으로 제시하여 참여자의 특성에 맞춰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ction Plan 활동의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위해 필수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감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모듈식 구성에 따라 6회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Action Plan 활동은 프로그램의 마무리 활동으로 활용하도록 필수 활동으로 지정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기별 진행 시간을 90분~120분으로 조정하였고, 참여자 인원수 또한 6명~9명에서 4명~10명으로 조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지도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활동별 지도자 팁과 멘트를 보다 상세히 제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회기별 수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 분량이 다소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던 ‘학교폭력 OX 퀴즈’ 분량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과 학교폭력’ 강의시간을 보다 확보하였다. 이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나 강의를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부모 역할 3가지’ 활동에서 워크시트 삭제하고 설명으로 대체하여 참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마지막으로, ‘내가 찾은 유리틈’ 과제는 지속

적으로 수행했을 때 매우 효과적이기는 하나, 처음에 이해하고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었으므로 설명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도록 하였다.

2회기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음에서 출발하기’ 활동에서는 가해자 부모의 마음을 먼저 공감할 수 있도록 가해자 부모의 사연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해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강의 이후에 가해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어서 피해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는 참여자가 순차적으로 교육 내용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해 배치를 수정한 것이다. 특히 가해와 피해가 순환된다는 설명에서 부모들이 강의 내용을 더 잘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해보게 된다는 피드백이 많았으므로 이 점을 강조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내 마음이 들리니’ 활동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자녀의 뇌구조 그리기 활동으로 대체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활동에서 강의와 사례를 번갈아가며 보는 것이 참여자 입장에서 따라기 어렵다는 피드백에 따라, 강의를 앞에 하고, 사례 분석을 뒤에 하도록 배치하였다.

3회기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간 조정을 위하여 별도의 워킹을 마련하지 않고, ‘오빠vs.아저씨’ 퀴즈를 워킹 활동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누구랑 이야기하시겠어요?’ 워크시트를 삭제하고, 회기 흐름 상 다소 연결이 어려웠다는 감정코칭 체크리스트도 제외하였다. 연습활동이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주요활동에서 적극적 경청활동의 역할극과 공감적 대화하기 연습시간을 더 확보하였다.

4회기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회기는 필수 회기 중 부모들과 지도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회기이므로, 내용 구성을 많이 수정하기보다 세부 활동을 보완하였다. 우선 ‘부글부글 100°C’의 워크시트를 수정하여 작성하기 쉽도록 만들고, 다소 딱딱한 느낌의 ‘칭찬과 훈육’이라는 표현을 ‘칭찬과 격려’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보석 찾기’ 워크시트를 보다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했다.

5회기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소 중복되고 작성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나왔던 ‘나의 지지망’ 워크시트는 자세히 작성하기보다 간략한 설명으로 대체하였으며, ‘전문기관 리스트’ 워크시트와 통합하였다. 또한 워크시트가 아니라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하여 ‘나에게 주는 선물’을 선택 활동으로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6회기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하여, 지도자 평가회의에서 제안되었던 것과 같이 영상을 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6회기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Action Plan 활동을 필수활동으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마무리 활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40.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정사항

회기	내용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식 구성(회기 및 활동) - Action Plan 활동을 필수 활동으로 지정 - 회기별 진행시간 수정 - 참여 인원수 수정 - 활동별 지도자 팁과 멘트 상세화
1회기 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OX' 퀴즈 축소 - '우리 아이들과 학교폭력' 강의 시간 확보 - '부모 역할 3가지' 워크시트 삭제 - '내가 찾은 유리틈' 설명시간 확보
2회기 우리 아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 부모의 심정과 관련된 동영상 추가 - 강의 순서 변경(가해자 부모→가해자녀→피해자녀) - '내 마음이 들리니' 활동을 '뇌구조 그리기' 활동으로 대체 -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활동 순서 변경
3회기 아이와 말이 안 통할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빠vs.아저씨 퀴즈' 를 워업활동으로 실시 - '누구랑 이야기하시겠어요?' 워크시트 삭제 - 감정코칭 체크리스트 제외 - 연습활동 시간 확보
4회기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글부글 100°C' 워크시트 수정 - '칭찬과 격려' 로 제목 수정 - '우리 아이 보석찾기' 워크시트 수정
5회기 부모도 지칠 때는 어떡하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지지망' 워크시트와 '전문기관 리스트' 워크시트 통합 - '나에게 주는 선물' 선택 활동 추가
6회기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시청 순서 변경 - Action Plan을 필수 활동으로 지정

나.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정 사항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수정 방향 및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프로그램 역시 모듈식 구성을 활용하였다. 부모교육의 특성 상 일괄적이고 장기간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도자가 프로그램의 회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회기별 활동 내에서도 선택 활동을 제시하여 집단 특성에 맞게 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해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워업 활동을 선택 활동으로 제시하였고, 6회기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Action Plan 활동을 필수활동으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마무리 활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회기 당 시간을 90분~120분으로 연장하였고, 참여자 인원수도 4명~10명으로 제시하여 지도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도자 팁과 멘트를 가능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회기별 수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는 ‘학교폭력 OX퀴즈’와 ‘어떻게 볼까요?’ 분량이 많아서 다소 지루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분량을 줄였으며, ‘우리 아이들과 학교폭력’ 강의시간을 좀더 확보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워크시트 작성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부모 역할 3가지’의 워크시트 삭제하고 설명으로 대체하였다.

2회기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의 자녀 마음이해를 돕기 위해 시범운영 시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영상을 본 회기에서 시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참여자들에게는 영상이 다소 강할 수 있으므로 선택활동으로 제시하였다. 피해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강의 이후, 가해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 역시 선택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특성과 피해자 부모들 역시 가해자의 마음이나 특성을 알고 싶어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세부 활동으로 들어가기에는 내용이 방대하다고 평가되었던 ‘부모-자녀 상호작용 점검’ 활동을 삭제하고, ‘내 마음이 들리니’ 활동 시간을 보다 확보했다.

3회기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회기는 필수회기 중 부모와 지도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회기로, 회기의 구성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강의 이후 사례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학교폭력 강의를 먼저하고 사례 분석을 하는 것으로 배치하였다.

4회기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오빠-vs. 아저씨’ 퀴즈를 워업 활동으로 실시하고, ‘누구랑 이야기하시겠어요?’ 워크시트를 삭제하였다. 또한 적극적 경청 활동을 실습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황별 대화 연습’은 선택 활동으로 제시하여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고, 적극적 경청 활동 시간을 보다 확보했다. Bully Diary는 효과가 좋으나 어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Secret Diary’로 제목을 수정했다.

5회기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나의 지 지망’ 작성은 간략하게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기관 리스트’와 통합하였다. 또한 ‘나에게 주는 선물’ 활동을 선택 활동으로 추가하였다.

6회기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마무리에서 ‘스필버그 이야기’ 영상이 다소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른 영상을 선택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Action Plan 활동은 모듈별 마무리 활동으로 사용하도록 필수 활동으로 지정하였다.

표 41.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정사항

회기	내용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식 구성(회기 및 활동) - Action Plan 활동을 필수 활동으로 지정 - 회기별 진행시간 수정 - 참여 인원수 수정 - 활동별 지도자 팁과 멘트 상세화
1회기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OX' 퀴즈 축소 - '어떻게 볼까요?' 분량 축소 - '우리 아이들과 학교폭력' 강의 시간 확보 - '부모 역할 3가지' 워크시트 삭제
2회기 왜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녀의 입장이 담긴 동영상 시청 추가(선택활동) - 가해자녀의 어려움 강의 추가(선택활동) - '부모-자녀 상호작용 점검' 활동 삭제 - '내 마음이 들리니' 활동 시간 확보
3회기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학교생활 도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와 사례분석 순서 변경
4회기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집에서 도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랑 이야기하시겠어요?' 워크시트 삭제 - '학교폭력 상황별 대화연습' 을 선택활동으로 제시 - 'Bully Diary' 제목을 'Secret Diary' 로 수정
5회기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부모도 지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지지망' 워크시트와 '전문기관 리스트' 워크시트 통합 - '나에게 주는 선물' 선택 활동 추가
6회기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추가 제작 - Action Plan을 필수 활동으로 지정

V. 요약 및 논의

V

1. 연구의 요약

학교폭력은 관련된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가해 학생들은 공격성, 비행,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문제뿐 아니라 가해행동이 지속될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비행이나 범죄, 가정폭력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에 높게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 학생들은 주로 극심한 우울과 불안, 두려움, 극단적으로는 자살생각과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이는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학생들의 경우 가해나 피해집단보다 더 심각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폭력 가해/피해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복잡한 사회적 과정이 포함된 집단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학교폭력 관련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물리적, 제도적, 공동체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특히 인간이 태어나면서 접하는 최초환경인 가정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부모들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신체적인 처벌의 선호, 자녀의 행동이나 행방에 대한 지도감독의 결여, 부모-자녀유대관계의 결여 등과 피해부모의 지나친 과보호, 또는 통제 등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관심의 결여 또는 부정적인 태도는 자녀가 중요한 친밀감이나 공감의 결여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래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학교폭력의 가해/피해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더구나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지만, 적절한 지식과 대화기술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서 자녀와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자녀들이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크게 기획, 구성, 실시 및 평가단계를 거쳤다.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부모교육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정의, 실태와 특징, 그리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다양한 체계들이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관계와 학교폭력과의 관계, 가/피해경험으로 인한 자녀들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들의 특성, 부모교육에 대한 정의,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분석하면서 학교폭력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자들의 프로그램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둔 부모와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후 요구조사, 심층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프로그램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문헌연구, 현장 전문가 요구조사, 가해/피해 청소년 자녀들 둔 부모와 상담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은 첫째,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부모역할을 익히고 둘째, 부모 자신의 성장을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해 부모교육에서는 부모들이 자녀 성장의 조력자로서, 합리적 문제해결자로서 부모역할을 익히도록 하였고, 피해 부모교육에서는 자녀 성장의 조력자로서, 그리고 자녀의 권익옹호자로서 부모역할을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부모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부모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부모역할 습득,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자녀관계향상을 위한 의사소통법, 갈등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기술의 습득과 연습,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양육방식의 점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처리되는 방식과 결과에 의해 자녀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재정비, 처리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자원

의 활용, 나아가 가/피해의 징후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프로그램에 담았다. 이러한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부모들이 무기력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작은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회기당 90분-110분, 총 6회기, 6-8명이 참여하는 소집단 대상의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한 뒤, 가해와 피해 부모교육 각각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참여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효과성 검증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부모양육 효능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이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및 지도자의 만족도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지도자들의 평가회의와 학교폭력 및 부모교육 전문가 감수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가해부모들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으며 특히 부모로서의 효능감 하위요인에서 더욱 긍정적인 향상을 가졌다. 그 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는 증가를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감소를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역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긍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다소 낮아졌다.

피해부모들은 부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어머니의 양육행동 등 모든 측정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불안감이나 좌절감에서는 감소를, 관심과 흥미 하위요인에서는 증가를 보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에 해당하는 개방형 점수는 유의하게 높아졌고 부정적 의사소통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는 유의하게 낮아져,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프로그램 실시 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에서도 통제적 태도를 제외한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하위요인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참여부모의 만족도 및 평가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 참여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감과 대화법을 습득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조력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침, 실태 그리고 징후와 대처법 등에 대

해 알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부모가 합리적인 문제해결자, 권익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부모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해/피해부모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토론과 역할극 등을 통해 실습해 볼 수 있었던 점은 부모의 성장에 도움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회기별 진행시간이 부족한 점, 워크시트 작성이 어려운 점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시범운영 평가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나온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수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지침서를 제시하였다. 특히 지도자들을 위한 지침서에는 강의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자녀를 둔 부모와 피해자녀를 둔 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문헌연구, 현장전문가 요구조사, 현장전문가 및 학교폭력 가해/피해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면접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부모는 자녀의 성장조력자, 합리적 문제해결자로 피해부모는 자녀 성장의 조력자이자 권익옹호자로 각각 부모의 역할을 규명하고, 나아가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역할 규명을 통해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와 함께 초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둘째, 가해부모에 대해서 처벌적이거나 낙인적인 접근이 아니라 공감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가해부모들은 가해자녀를 두었다는 낙인감과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 등으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더구나 사안처리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분노감 등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부모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하여 먼저 이들의 마음을 다루어주는 공감적 접근을 함으로써 낙인감을 제거하고 프로그램 참여동기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프로그램 몰입도,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세 번째, 가해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서 비록 다른 측정도구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향상을 이루지 못했으나, 부모의 양육효능감 중 부모로서의 효능감 하위척도가 유의미한 향상을 이루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모의 효능감이 인지적인 측면을 측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해부모들의 인지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이루어졌음은 인지 - 정서 - 행동의 과정에서 이후 행동의 변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본 연구는 현장에서 물밑듯이 요구되는 가해 및 피해 부모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욕구들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특히 가해 및 피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전문가 대상의 요구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부모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부모들은 모든 측정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반면, 가해부모들은 부모 양육효능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점이다. 이는 피해부모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매우 높은 자발성을 가짐에 비해, 가해부모들은 특별교육 이수라는 명령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교육 이수 명령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해 부모들의 비자발적 특성을 좀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서 사전모임을 반드시 개최하여 낙인감을 제거하고 이 프로그램이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선형연구에서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 적어도 45시간의 프로그램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6 회기 정도의 짧은 회기가 아니라 보다 장기간의 상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가해/피해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각각 가족의 문제, 사안처리 과정, 사안의 정도와 지속적인 기간의 여부, 폭력의 유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성과 욕구를 가진다. 특히 처음 가해 및 피해를 경험하는 부모들과 가해 및 피해가 지속적이었던 부모들의 경우는 자녀의 문제 정도가 매우 상이하다. 또 보다 고위험군인 한부모 가정, 빈곤가정 등 가정의 위험요인이 중첩되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 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 개입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들의 집단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개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서비스 개입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집단을 특성과 욕구에 근거하여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개입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강진령, 유형근(2000). **집단 괴롭힘**. 서울: 학지사.
- 고성혜, 이완수, 정진희, 송말희(2003).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청소년보호위원회.
- 곽소현(2000). **청소년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가족치료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영길(2007).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간 발표**. www.mest.go.kr.
- 권오명(2005).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8, 257-279.
- 권현용, 김현미(2009).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1), 1-12.
- 김두현(2006).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6 CYS-Net 정책심포지엄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현재와 미래-네트워킹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미란(2005).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대처, **교육개발**, 32(5), 78-84.
- 김성환(1999).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학교폭력의 학술적 사회적 대안**, 129-137.
- 김수희 외(2008). **부모교육**. 학현사.
- 김연, 황혜정(2005).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0(4), 69-88.
- 김용태 외(1997). **따들리는 아이들, 따들림 당하는 아이들(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9)**.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재엽, 이근영(2010).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 김재엽, 이순호(2011). 청소년의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군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109-137.
-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2011).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209-234.
- 김재엽, 정윤경, 이진석(2008).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지지적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5(4), 89-115.
- 김정옥, 구향숙(2006). 청소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과학논총 제 5집**, 81-97.
- 김정옥, 장덕희(1999).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정희, 이장호 (1992). **현대심리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종미(1997).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성격과 유발요인.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10(1), 17-33.
- 김주숙(1999).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주희(2005).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피해 유형과 정서 행동문제 및 사회능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호(200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인간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중, 강영신, 오명자(2005). **Adler 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데이비드 클락 저, 이성옥, 최광수 옮김(2003). **자녀양육전쟁**. 도서출판 브니엘.
- 도기봉(200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사회복지개발연구**, 14(4), 309-326.
- 도현심, 권정임, 박보경, 홍성훈, 홍주영, 황영은(2003). 또래괴롭힘 피해아의 특성에 기초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4), 103-121.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두정일(2010). **파괴적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류지후(1997). **유아를 위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용린 외(2005).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 문용린 외(200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민경란(2003).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T)에 의한 초등학교 자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순진(2009).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가해 경험의 발전**. *형사정책연구*, 20(1), 71-94.
- 박정자(1998). **적극적 부모역할훈련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2008).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관련 변인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효(2003). **공격적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행동**. *교육학연구*, 41(3), 423-449.
- 박효정(2005). **학교폭력 절대불가 선언, 성인책임 강조**. *교육개발*, 32(5), 101-107
- 박효정, 정미경(2006). **질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현상의 이해**. *한국교육*, 33(4), 167-197.
- 박효정, 정미경, 박종효(2006). **학교폭력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정미경, 한세리, 한경아(2005).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배문주(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변귀연(2002). **집단괴롭힘 피해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미경(2002). **적극적 부모역할훈련(APT)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주(2008). **위기청소년의 부모교육과 상담사례연구**.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종호(2000). **적극적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숙(2011). **부모양육태도와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양시 중고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용주, 김혜수(2002). **새로운 부모교육**. 형성출판사.
- 신희경(2006).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297-323.
- 아영아, 정원철(2007). 부모위험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이르는 발달경로. **청소년학연구**, 14(3), 29-52.
- 안유자(2000).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a(2011). **2011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b(2011) **2011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c(2012) **2012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오경자, 이혜련(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 I: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 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9(1), 33-55.
- 오영희, 송영란, 강영식(2004).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 윤현영, 유외숙, 오혜영, 주영아(2007). **청소년 발달문제**.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경아 외 역(2004). **사회복지에서의 역량강화실천**. 서울: 양서원
- 이경우(1985). **당신도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창지사.
- 이문자(2003). **초등학생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생태체계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복실(2007). 중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공격성, 학교폭력경험 및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지**, 23, 25-50.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상균(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141-170.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2002). 내·외향적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의 관계에 대한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초등교육학회**, 15(2), 345-363.
- 이춘재(1999).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학교폭력의 학술적 사회적 대안**, 11-25.
- 이현림, 류현정, 김지혜 (2007). MBTI를 활용한 적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2), 533-547.
- 임미숙(1998).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임, 김예성(2010).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가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인간발달연구**, 17(1), 243-262.
- 장맹배(2011). **학교폭력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2000). **인간발달**. 박영사.
- 정무성(200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론**. 서울: 학현사.
- 정옥분, 윤종희, 도현심(2003). **청년발달의 이론**. 양서원.
- 정옥분, 정순화(2008). **부모교육**. 학지사
- 정정숙(2007). **인간발달과 상담(II)**. 도서출판 디모데.
- 정지민(1998). **학교폭력 피해-가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2011). **아동기 또래괴롭힘 가해/피해 경험과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간 관계와 예측 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복희, 정옥분, 유가호(1995). **인간발달**. 교문사.
- 조성호(1999).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의 허와 실. 학교폭력의 학술적·사회적 대안. **한국 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41-53.
- 조유진(2005). **집단괴롭힘 목적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정실, 차명호(2012).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지사.

- 조준범(2010).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 및 부모-자녀상호작용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게임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2(1), 93-121.
- 조혜진(2003). **또래괴롭힘의 피해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2). **200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 **2009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201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인자(2006).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T) 집단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인간관계 및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김경준 외(2007).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개발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백혜정 외(2008).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표갑수(2002). **사회복지개론**. 서울: 나남출판사.
- 한국청소년상담원(2006).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의 현재와 미래**.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준상(2002). **집단따돌림과 교육해체**. 서울: 집문당.
- 홍경자 역(1995). **현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비디오 1-6**. M.H. Popkin, *Active Parenting of Teens*). 한국심리교육센터 출판부.
- 홍경자(2005). **현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지도자용 지침서**. 서울: 중앙적석출판사.
- 황옥자(1987). **STEP 프로그램의 한국적용 가능성 탐색 연구; 어머니의 자아개념, 양육태도, 아동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girdag, O., Demanet, J., Houtte, M. V., & Avemaet, P. V. (2011). Ethnic school composition and peer victimization: A focus on the interethnic school climat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4), 465-473.
- Alvarado, R., Kumpfer, K. L., Kendall, K., Beesley, S., & Lee-Cavaness, C. (2000). *Strengthening America's families: Model family programs for substance abuse*

- and delinquency prevention*.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Department of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2012). *Bullying: A Module for Teachers*. Retrieved from <http://www.apa.org/education/k12/bullying.aspx>
- Ann, U. T. (1991). *A case study of the effects of an Adlerian parent education program on parent attitudes and rearing techniques*. Doctorial disserta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 Ary, D. V., Duncan, T. E., Biglan, A., Metzler, C. W., Noell, J. W., & Smolkowski, K. (1999). Development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141-150.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ldry, A. C., & Farrington, D. P. (1999). Types of bullying among Italian school children. *Journal of Adolescence*, 22, 423-426.
- Bandura, Ross, D., & Ross, S. A. (1963). Imitation of film-mediated aggressive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1), 3-11.
- Baumrind, D. (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J. Brooks-Gunn, R. Lerner, & A. Petersen (Eds.), *The encyclopedia of adolescence* (pp. 746-758). New York: Garland.
- Baumrind, D. (1989). *Rearing competent children*. In W. Damon (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San Francisco: Jossey-Bass.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765-785.
- Bond, L., Carlin, J. B., Thomas, L., Rubin, K., & Patton, G. (2001). Does bullying cause emotional problems?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teenagers. *British Medical Journal*, 323, 480-484.
- Bonin, Eva-Maria, Stevens, M., Beecham, J., Byford, S., & Parsonage, M. (2011). Costs and longer-term savings of parenting programmes for the prevention of persistent conduct disorder: a modelling study. *BMC Public Health*, 11, 803-813.

- Bosworth, K. Espelage, D. L., & Smith, T. R.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341-362.
- Boxer, P., Goldstein, S. E., Musher-Eizenman, D., Dubow, E. F., & Heretick, D. (2005). Developmental Issues in School-Based Aggression Prevention from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6*(5), 383-400.
- Bronstein, P., Duncan, P., Clauson, J., Abralms, C. L., Yannett, N., Ginsburg, G., & Milne, M. (1998). Preven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problems for children from lower income families: A program for aware parent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1), 1299-1352.
- Burke, K., Brennan, L., & Roney, S. (2010).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the efficacy of the ABCD Parenting Young Adolescents Program: rationale and methodolog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4*(22), 1-15.
- Carney, A. G., & Merrell, K. W. (2001). Bullying in schools: Perspectives on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an international problem.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 364-382.
- Cassidy, T. (2009).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identity problem-solving style, and family and school context.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2*, 63-76.
-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2000). *The national cross-site evaluation of high risk youth programs: Final report*. Rockville, MD: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 Colwell, M. J., Mize, J., Pettit, G., & Laird, R. (2002). Contextual determinants of mothers' interventions i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8*, 492-502.
- Connors-Burrow, N. A., Johnson, D. L., Whiteside-Mansell, L., Mckelvey, L., & Gargus, R. A. (2009). Adults matter: Protecting children from the negative impacts of bully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46*, 593-604.
- Costello, E. J., Angold, A., Burns, B. J., Stangl, D. K., Tweed, D. L., Drkanli, A., & Worthman, C. M. (1996). The great smoky mountains study of youth: Goals, design, methods and the prevalence of DSM-III-R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129-1136.

- Craig, W. M., Peters, R. D., & Konarski, R. (1998).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Canadian school children. Applied research branch strategic polic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 (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 1134-1142.
-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31-142.
- Crozier, M., Rokutani, L., Russett, J. L., Godwin, E., & Banks G. E. (2010). A Multisite Program Evaluation of Families and Schools Together(FAST): Continued Evidence of a Successful Multifamily Community-Based Prevention Program. *The School Community Journal, 20*(1). 187-207.
- Culp, A. M., Culp, R. E., Horton, C. H., Curtner-Smith, M. E., Palermo, F., & Culp, K. (2003). *Head Start children's playground aggression and teachers' and maternal reports.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Curtner-Smith, M. E., Culp, A. M., Culp, R., Scheib, C., Owen, K., Tilly, A., Murphy, M., Parkman, L., & Coleman, P. W. (2006). Mother's parenting and young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s relational and overt bully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2), 181-193.
- Dinkmeyer, D., & McKay, G. D. (1976). *STEP :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 Leader' s manual*. Cride Pines, Minnesota: American Guidance Seervice.
- Dreikers, R. (1996). *Children: The challenge*. New York: Hawthorn Books.
- DuBois, B., & Miley, K. (1999). *Social work: An empowering profession*(3rd ed.). Boston: Allyn & Bacon.
- Einsberg, M. E., & Aalsma, M. C. (2005). Bullying and peer victimization: Position

- paper of the Society for Adolescent Medicin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 88-91.
- Espelage, D. L., & Holt, M. K. (2001). Bullying and victimization during early adolescence: Peer influences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Journal of Emotional Abuse, 2*(2/3), 123-142.
- Espelage, D. L., Bosworth, K., & Simon, T. R. (2000). Examining the social context of bullying behavior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326-333.
- Estell, D. B., Farmer, T. W., Irvin, M. J., Crowther, A., Akos, P., & Boudah, D. J. (2009). Students with exceptionalities and the peer group context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late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Child Family Study, 18*, 136-150.
- Galen, B. R., & Underwood, M. K. (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 Georgiou, S. N. (2008). Parental style and child bully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at school. *Social Psychological Education, 11*, 213-227.
- Gilban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Toronto.*
- Gordon D. (2000). Parent training via CD-ROM: Using technology to disseminate effective prevention practice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1*, 227-251.
- Greenbaum, S., Turner, B., & Stephens, R. (1989). *Set straight on bullies*, Malibu, CA: National School Safety Center.
- Gutierrez, L. (1994). Beyond Coping: An empowerment perspective on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1*(3), 201-220.
- Gutierrez, L., Parsons, R., & Cox, E. (2006).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Thomson.
- Hoard, D., & Shepard, K. N. (2005). Parent Education as Parent-Centered Prevention: A Review of School-Related Outcome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0*(4), 434-454.

- Hunter, S. C., Boyle, J. M. E., & Warden, D. (2004). Help-seeking amongst child and adolescent victims of peer-aggression and bullying: The influence of the school-stage, gender, victimization, appraisal, and emo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4*, 267-283.
- Isabella, R. (1993). Origins of attachment: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across the first year. *Child Development, 64*(2), 605-621.
- Kaiser, A., & Mahoney, G. (1999). Rejoinder: Toward a contemporary vision of parent education.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3), 173-177.
- Kalliotis, P. (2000). Bullying as a special case of aggression: Procedure for cross-cultural assessment.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2), 47- 64.
- Kazdin, A. E. (1987). Treatment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2*(2), 187-203.
- Kokkinos, C. M., & Panayiotou, G. (2004). Predicting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Early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Aggressive Behavior, 30*, 520-533.
- Kumpfer, K. L. (1999). Factors and processes contributing to resilience: The resilience framework. In M. D. Glantz & J. L. Johnson (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s*(pp. 179-224).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Kumpfer, K. L., & Alvarado, R. (2003). Family-Strengthening Approaches for the Prevention of Youth Problem Behaviors. *American Psychologist, 6*(6), 457-465.
- Kumpulainen K., Räsänen E., & Puura, K. (2001). Psychiatric Disorders and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Children Involved in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27*, 102-110.
- Leung, P., Wong, W., Chen, W.Q., & Tang C. (2008). Prevalence and determinants of child maltreat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ern China: A large scale school based survey. *Child Adolesc Psychiatry Ment Health, 2*:27.
- Lodge, J. (2008). Working with families concerned with school-based bullying, *AFRC(Australian Family Relationships Clearinghouse) Briefing, 11*, 1-9.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 Simons-Morton, B. G.

- (2001). Bullying behavior among the U. 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5*, 2094-2100.
- Nash, J. K., & Kim, J. S. (2007). Patterns of change over time in beliefs legitimizing aggression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Risk trajectori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rious aggression. *Social Work Research*, *31*(4), 231-240.
- Nordhagen, R., Nielsen, A., Stigum, H., & K hler, L. (2005). Parental reported bullying among Nordic children: a population-based study.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6), 693-701.
- Olweus, D. (1988). Bullying in the schools: How educators can help. *The Education Digest*, *53*(7), 30-34.
- Olweus, D. (1995). Bullying or peer abuse at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 196-200.
- Olweus, D. (1996). Bully/Victim problems at school: Facts and effective interventio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5*(1), 15-22.
- Olweus, D. (2003). A profile of bullying at school. *Educational Leadership*, *60*(6), 12-17.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4.
- Patterson, G. R., Dishion, T. J., & Chamberlain, P. (1993). *Outcomes and methodological issues relating to treatment of antisocial children*. In T. R. Giles (Ed.), *Handbook of effective psychotherapy* (pp. 43-88). New York: Plenum Press.
- Patterson, G. R., & Narrett, C. M. (1990). The development of a reliable and valid treatment program for aggressive young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19*(3), 19-26.
- Paulos, S. K. (2007). *Examining the roles of family environment and internalizing symptoms on early adolescent social aggression: A one-year longitudin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University, Texas at Austin.
- Pehrson, K. L., & Robinson, C. C. (1990). Parent education: Does it make a difference? *Child Study Journal*, *20*(4), 221-236.

- Perry, D. G., Hodges, E. V. E., & Egan, S. K. (2001). *Determinants of Chronic Victimization by Peers: A review and a New Model of Family Influence*. In J. Juvonen & S. Graham(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73-10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ichard, K. J., & Burl, E. G. (2003). *Theories and strategi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oston: Allyn and Bacon.
- Rigby, K. (2008). *Children and Bullying: How parents and educators can reduce bullying at school*. Malden, MA: Blackwell.
- Rigby, K. (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 rel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4).
- Rigby, K., & Barnes, A. (2002). To tell or not to tell: The victimized student's dilemma. *Youth Studies Australia*, 21, 33-36.
- Roberts Jr, W. B., & Morotti, A. (2000). The bully as victim.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4(2), 148-156.
- Salmon G., James A., Cassidy EL, & Javaloyes MA. (2000). Bullying a review: Presentations to an adolescent psychiatric service and within a school for emotionally and behaviorally disturbed children. *Clin Child Psychol Psychiatry*, 5, 563-579.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84.
- Sheidow, A. J., Strachan, M. K., Minden, J. A., Henry, D. B., Tolan, P. H., & Gorman-Smith, D. (2008). The relation of antisocial behavior patterns and changes in internalizing symptoms for a sample of inner-city youth: comorbidity within a developmental framework.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7, 821-829.
- Simons, K., Paternite, C., & Shore, C. (2001). Quality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young adul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2), 182-203.
- Slee, P. T. (1995).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mong Australian primary school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57-62.
- Smith, D. M.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hildhood maltreatment and bully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Smith, P. K., Cowei, H., Olafsson, R. F., & Liefoghe, A. P. D. (2002), Definitions of Bullying: A Comparison of Terms Used, and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 Fourteen-Country International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73(4), 1119-1133.
- Smith, P., & Shu, S.(2000). What good schools can do about bullying: Findings from a survey in English schools after a decade of research and action. *Childhood: A Global Journal of Child Research*, 7, 193-212.
- Smokowski, P. R., & Kopasz, K. H.(2005). Bullying in school: An overview of types, effects, family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Children & Schools*, 27(2), 101-110.
- Solomon, B. S., Bradshaw, C. P., Wright, J., & Cheng, T. L.(2008). Youth and parental attitudes toward fight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 544-560.
- Spera, C. (2005). A review of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practices,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school achieve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7(2), 125-146.
- Stevens, V., De Bourdeaudhuij, I., & Van Oost, P. (2002). Relationship of the family environment to children's involvement in Bully/Victims problems at scho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6), 419-428.
- van Hoof, A., Raaijmakers, Q. A., van Beek, Y., Hale III, W. W., & Aleva, L. (2008). A multi-mediation model on the relations of bullying, victimization, identity, and family with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7, 772-782.
- Veenstra, R., Lindenberg, S., Zijlstra, B. J. H., De Winer, A. F., Verhulst, F. C., & Ormel, J. (2007). The dyadic nature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Testing a dual-perspective theory. *Child Development*, 78(6), 1843-1854.
- Woods, S., & White, E. (2004). The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behaviour, arousal levels and behaviour problems, *Journal of Adolescence*, 28(3), 381-395.
- Zhou, Q., Eisenberg, N., Losoya, S. H., Fabes, R., Reiser, M., Guthrie, I. K., Murphy, B.C., Cumberland, A. J., & Shepard, S. A. (2002). The relations of parental warmth and positive expressiveness to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3, 893-915.

부 록

1.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조사 설문지
2.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조사 결과 분석
3.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의미단위 분석
4. 학교폭력 가해부모대상 심층면접 의미단위 분석
5. 학교폭력 피해부모대상 심층면접 의미단위 분석
6.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8.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9.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 만족도 의견
10.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만족도 의견

부록 1.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조사 설문지

학교폭력 가 ·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요구조사

안녕하세요?

항상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보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에 요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현재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경험 청소년들과 부모를 접하고 있는 상담 선생님들에게 학교폭력 가
·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향후 지원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문항이라도
누락되면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바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 문 의 : 프로그램개발팀(02-2250-****)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 하거나, 해당내용을 작성해주시요.			
성별	①남() ②여()	연령	()세
소속	①시·도 청소년상담(종합)지원센터() ②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③기타 기관()		
직위	①소장() ②팀장() ③선임상담원() ④상담원() ⑤청소년동반자() ⑥상담자원봉사자() ⑦기타()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실시	사례수()개 총 ()회기	부모 교육 진행	총 교육 수 ()회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실시	사례수()개 총 ()회기		
학교폭력 가해 부모상담 실시	사례수()개 총 ()회기		
학교폭력 피해 부모상담 실시	사례수()개 총 ()회기		
전공 분야	()학과 ()전공 ①석사 과정() ②석사 수료() ③석사 취득() ④박사 과정() ⑤박사 수료() ⑥박사 취득() ⑦기타_____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교육 관련 설문

*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1. 학교폭력 가해자녀의 부모가 겪는 주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이하로 선택해주세요.

- ①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 ()
- ②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 ()
- ③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
- ④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 ()
- ⑤ 어려운 경제적 여건 ()
- ⑥ 부부 갈등 혹은 가족 구성원의 갈등 ()
- ⑦ 기타 (귀하의 의견을 쓰시기 바랍니다 _____)

⑧ 가해자 부모 상담경험 없음 ()

2. 귀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를 상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 ① 매우 많음() ② 많음() ③ 보통()
④ 적음() ⑤ 전혀 없음() ⑥ 상담경험 없음()

2-1.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_____

3.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4.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교육의 형식**으로는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 () ② 집단 ()

5.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의 실시 **회기**로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2회기() ② 3~4회기() ③ 5~6회기()
④ 7~8회기() ⑤ 9회기 이상()

6.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1회기당 시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60분 미만 ② 60분~90분 ③ 90분 이상 ④ 기타(____분)

7.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집단으로 구성한다면, **구성원 수**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명입니까?

- ① 2~3명 ② 4~5명 ③ 6~8명 ④ 기타(____~____명)

8.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지도자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9.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1개 택)

- ① 대상 확보의 어려움()
② 지도 인력 및 예산 부족()
③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부재()
④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 대한 낙인감이나 편견()
⑤ 기타(귀하의 의견을 쓰시기 바랍니다. _____)

10.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대상 교육을 개발할 때, 다음 내용이 각각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영역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내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필요
1	학교 폭력 이해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2		학교폭력 가해 징후 파악하기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사안처리 절차					
4		기타()					
5	자녀 이해	학교폭력 가해 자녀의 분노 조절 방법					
6		학교폭력 가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7		학교폭력 가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배려, 공감하기 등)					
8		기타()					
9	부모 이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10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감정 다루기					
11		자녀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어려움(음주, 가정폭력 등)다루기					
12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과 관련된 부부 갈등 해결 방법					
13		기타()					
14	부모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15	-자	학교폭력 가해자녀와의 갈등 시 대처방법					
16	녀	학교폭력 가해 자녀와의 친밀감 제고 방법					
17	상호	자녀와의 효과적 대화방법					
18	작용	기타()					

※ 아래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학교폭력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셨나요?
(프로그램 명, 내용 등)

12. 부모교육 시 부모님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13.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안점이 있다면 적어주시시오.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교육 관련 설문

*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1.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부모가 겪는 주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이하로 선택해주세요.
 ①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 ()
 ②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 ()
 ③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
 ④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 ()
 ⑤ 어려운 경제적 여건 ()
 ⑥ 부부 갈등 혹은 가족 구성원의 갈등 ()
 ⑦ 기타 (귀하의 의견을 쓰시기 바랍니다. _____)
 ⑧ 피해자 부모 상담경험 없음 ()

2. 귀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를 상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① 매우 많음() ② 많음() ③ 보통()
 ④ 적음() ⑤ 전혀 없음() ⑥ 상담경험 없음()

- 2-1.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_____

3.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4.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교육의 형식으로는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 () ② 집단 ()

5.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의 실시 회기로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2회기() ② 3~4회기() ③ 5~6회기()
 ④ 7~8회기() ⑤ 9회기 이상()

6.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1회기당 시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60분 미만 ② 60분~90분 ③ 90분 이상 ④ 기타(____분)

7.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집단으로 구성한다면, **구성원 수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명입니까?
 ① 2~3명 ② 4~5명 ③ 6~8명 ④ 기타(____~____명)
8.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지도자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9.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1개 택)
 ① 대상 확보의 어려움()
 ② 지도 인력 및 예산 부족()
 ③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부재()
 ④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에 대한 낙인감이나 편견()
 ⑤ 기타(귀하의 의견을 쓰시기 바랍니다 _____)
10.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대상 교육을 개발할 때, 다음 내용이 **각각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 호	영역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내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 요	전혀 필요
1	학교 폭력 이해	학교폭력 피해자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2		학교폭력 피해 징후 파악하기					
3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처리 절차					
4		기타()					
5	자녀 이해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정서·심리적 상처 다루기					
6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7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자기주장하기 등)					
8		기타()					
9	부모 이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10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감정 다루기					
11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소진 방지하기					
12		자녀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어려움(음주, 가정폭력 등) 다루기					

구분	영역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내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필요 없음
13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과 관련된 부부 갈등 해결 방법					
14		기타()					
15	부모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16	-	학교폭력 피해자녀와의 갈등 시 대처방법					
17	자녀	학교폭력 피해 자녀와의 친밀감 제고 방법					
18	상호	자녀와의 효과적 대화방법					
19	작용	기타()					

※ 아래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학교폭력 피해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셨나요?
(프로그램 명, 내용 등)

12. 부모교육 시 부모님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13.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안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질문에 응답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조사 결과 분석

1. 조사의 목적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및 가해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경험 청소년 부모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로 내용을 나누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는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종류, 적절한 프로그램의 회기와 시간, 부모 교육 프로그램 구성요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의견 등이 포함된다.

2. 표집방법 및 조사대상

본 조사는 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었고, 응답자는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근무자 총 85명이었다.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부록 표 1. 응답자 성별 분포

구분		빈도(명)	유효 백분율(%)
성별	남자	14	16.5
	여자	71	83.5
전체		85	100.0

부록 표 2. 응답자 소속 분포

구분	빈도(명)	유효 백분율(%)
시·도 센터	24	28.6
시·군·구 센터	60	71.4
기타 기관	0	0.0
전체	85	100.0

부록 표 3. 응답자 직위 분포

구분	빈도(명)	유효 백분율(%)
소장 및 팀장	21	25.0
선임상담원 및 상담원	54	64.3
청소년 동반자	7	8.3
상담자원봉사자, 기타	2	2.4
전체	84	100.0

부록 표 4. 전공 분야 분포

구분	빈도(명)	유효 백분율(%)
상담·임상 심리	33	39.3
사회복지	21	25.0
교육심리/교육	4	4.8
아동	1	1.2
청소년상담	6	7.1
기타	4	4.8
무응답	15	17.9
전체	84	100

부록 표 5. 응답자 학력 분포

구분	빈도(명)	유효 백분율(%)
석사과정	7	8.5
석사수료	10	12.0
석사취득	43	51.8
박사과정	2	2.4
박사수료	5	6.0
박사취득	2	2.4
기타	14	16.9
전체	84	100.0

부록 표 6. 학교폭력 관련 상담 경험

구분		평균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사례 수	6.8
	회기 수	21.1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상담	사례 수	5.2
	회기 수	7.7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	사례 수	9.4
	회기 수	30.6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상담	사례 수	5.1
	회기 수	6.2
부모교육진행	교육 수	10.0

3. 조사결과

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조사

1)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겪는 주된 어려움(중복 선택)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 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23.4%), 부부 갈등 혹은 가족 구성원의 갈등(16.2%),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13.0%),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12.3%), 어려운 경제적 여건(0.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부록 그림 1.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겪는 주된 어려움

2)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상담 시 어려움

상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 상담하는데 겪는 어려움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 중 평균 3.29점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를 상담하는데 ‘보통’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 상담 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응답되었다.

부록 표 7.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상담시 어려움

구분	내용
부모의 정서문제	부모로서의 무기력함
	자녀의 행동 반응에 대한 무기력감
	‘맘대로 하세요. 나도 어쩔 수 없네요.’ 라는 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모의 왜곡된 지각	자녀의 가해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함
	본인의 자녀들은 문제가 없는데 친구를 잘 못 만나서 그렇다 생각
	주위 선배 또는 친구 때문에 학교폭력을 가해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식은 착하다 등의 비현실적 생각
	자녀의 문제와 심각성을 부인하는 경향
	방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

	<p>부모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생각을 관철하는 경향이 강함</p> <p>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잘 모름</p> <p>가해학생만 잘못이 아니다 피해학생이 가만히 있으면 가해할 일이 없다는 생각</p> <p>가해행동에 대해서 정당화 하려는 모습</p> <p>피해학생에 대한 이해부족, 자신의 아이도 피해자로 인식</p> <p>자녀행동 인정하기 및 부모의 대처능력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기</p> <p>사건을 축소시키려 하며 아이의 가해사실을 부인</p>
자녀 이해 부족	<p>자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이해시키기</p> <p>자녀에 대한 이해부족</p> <p>자신의 아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때</p> <p>청소년 이해의 부족</p>
양육방식 문제	<p>부모의 비밀관적 태도, 방관적 태도</p> <p>자녀에게 가하는 폭력</p> <p>자녀에 대한 불신으로 개선의 의지가 약함.</p> <p>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p> <p>부모들과 자녀간의 비효율적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의 심화</p> <p>부모가 자녀를 방치</p> <p>지나치게 틀에 가두어 양육</p>
부모의 문제해결 능력 부족	<p>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려함이 없이 현재 상황만 벗어나려는 모습</p> <p>경험부족으로 인한 대처 기술 부족</p> <p>부모가 초기에만 개입하는 부분</p>
상담에 대한 낮은 동기	<p>상담에 비협조적</p> <p>낙인 찍힌다는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음</p> <p>가해자 부모의 상담 거부</p> <p>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p> <p>미참여 -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점</p> <p>상담시간 지키지 않음</p>
경제적·가족구조적 문제	<p>가정 환경적, 경제적 어려움,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 상담을 진행하기(시작까지도) 어려움</p> <p>가정 내 열악한 환경</p>

3)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은 리커트 5점 척도 중 평균 4.7점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4)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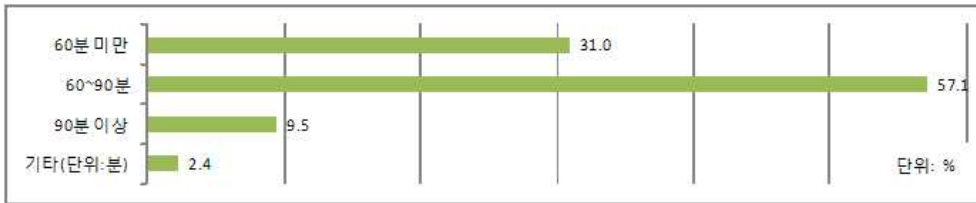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적절한 교육 형식으로는 개인 형식(50.6%)과 집단 형식(49.4%)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의 적절한 실시회기로는 3~4회기(42.9%), 5~6회기(3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 시 1회기 당 시간으로는 60분~90분(57.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집단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적절한 구성원 수로는 4~5명(45.2%)이라는 응답과 6~8명(38.1%)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부록 그림 2.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교육의 형식



부록 그림 3.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의 실시 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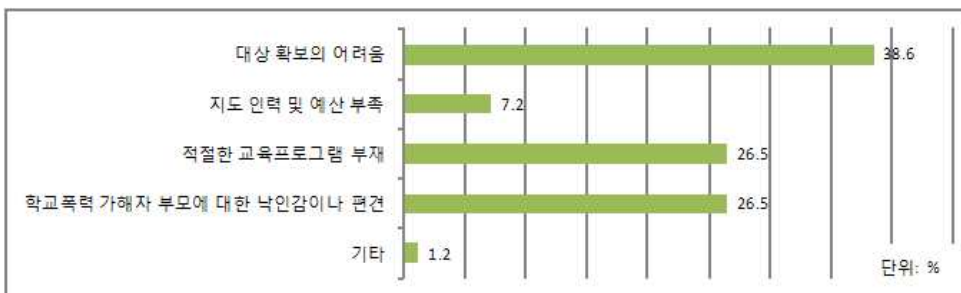
부록 그림 4.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1회기 당 시간



부록 그림 5.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집단 구성원 수

5)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 예상되는 어려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대상 확보의 어려움(38.6%)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부재(26.5%),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 대한 낙인감이나 편견(26.5%), 지도 인력 및 예산 부족(7.2%) 기타 의견(1.2%)순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6.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 어려움

6)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별 요구도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각각의 요소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 8.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별 요구도

영역	문항	평균(M)
학교폭력 이해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4.57
	학교폭력 가해 징후 파악하기	4.50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사안처리 절차	4.47
자녀 이해	학교폭력 가해 자녀의 분노 조절 방법	4.75
	학교폭력 가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4.60
	학교폭력 가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배려, 공감하기 등)	4.75
부모이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4.64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감정 다루기	4.75
	자녀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어려움(음주, 가정폭력 등)다루기	4.67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과 관련된 부부 갈등 해결 방법	4.54
부모-자녀 상호작용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4.79
	학교폭력 가해 자녀와의 갈등 시 대처방법	4.77
	학교폭력 가해 자녀와의 친밀감 제고 방법	4.56
	자녀와의 효과적 대화방법	4.75

7)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시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 받은 내용(개방형 질문)

구분	내용
부모의 자기 이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본 것
	자녀들의 표현을 부모의 편견이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던 부분을 알게 됨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들의 모습이 자식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지
	자신의 삶 재확인
부모의 정서적 지원	공감
	아이를 도와주려 한다는 마음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진정성
	희망과 지지
	자신에 힘을 북돋아 주었던 점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지지
	부모감정 다루기
자녀 이해	자녀의 마음 이해하기. 공감연습
	학교 내에서의 자녀의 입장(내 아이 이해-case 별)
	자녀의 강점을 알아 적용해 보는 것에 대한 호응이 높음
	자녀에 대한 성격의 이해
	자녀에 대한 파악
	청소년 발달심리
	학교폭력 가해자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의 이해
부부 관계	부부간의 대화를 살펴보고 개선하기
	다정한 부부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학교폭력 대응 정보	학교폭력에 대한 실제적인 대처방법
	법적인부분에 대한 도움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 교류
	정확한 법적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양육방법	가족과의 소통(대화)
	양육방법
	비폭력 대화법
	자녀(청소년)이해 대화법
	선택권 , 자녀의 이해, 책임감 길러주기
	자녀와의 관계개선
	부모의 역할
	감정이해와 자기표현하기
	자녀의 학습지도
	의사소통 방법
기타	이론보다 시뮬레이션이나 역할극, 또는 공감 연습 등의 실습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음

8)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 사항(개방형 질문)

구분	내용
부모의 자기 이해	자녀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어려움
	부모의 폭력적 행동 탐색하기
가족 관계	부모자신의 가족구조에 대한 이해와 수정방안
	가해자는 대부분 비행을 동반함. 공통적으로 가족갈등이 있으며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청소년이 밖에서 대체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학교폭력도 발행함
	부부대화법이 필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가정의 역동
가족의 역할과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함	
부모의 마음 다루기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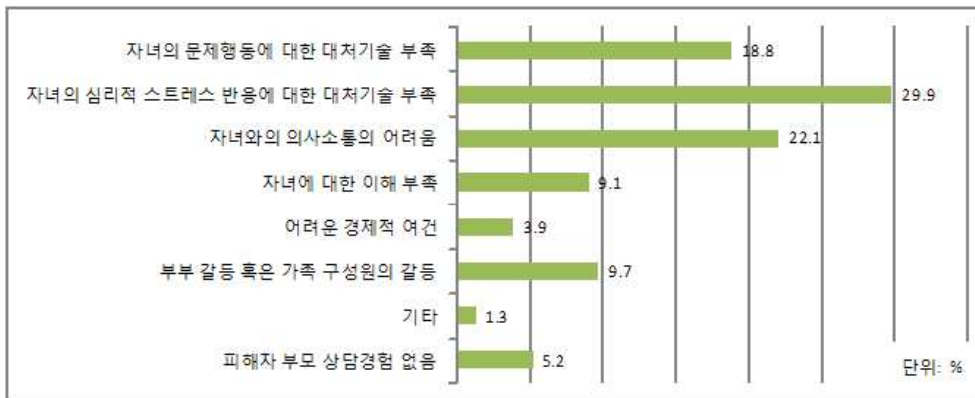
구분	내용
	<p>가해학생어머니도 부모로써 느끼는 어려움 공감</p> <p>부모님의 감정을 다뤄 거부감을 줄일수록 우선 되어야 됨</p> <p>부모의 자기 돌봄</p> <p>자녀에 대해서 실망감으로 인한 부모 자신의 분노 감정 조절</p> <p>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p> <p>정서적인 접근으로 자신이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p> <p>갈등 및 분노상황 대처</p>
자녀 이해	<p>자녀이해(행동유발이유)</p> <p>아이의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p> <p>자녀에 대한 이해</p> <p>자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한 우리 자녀 새롭게 보기</p> <p>학교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강점파악과 개선의 여지에 대한 낙관적 관점제시</p> <p>마음 알아주기</p>
학교폭력 대응	<p>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p> <p>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p> <p>현재 상황 자체에서 가해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함</p> <p>내 아이가 한 것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에만 초점 맞추는 점</p> <p>재발방지</p>
양육태도 및 방법	<p>올바른 자녀양육 방법에 대한 지식 획득</p> <p>자녀와의 대화법</p> <p>가해자 부모들이 가해자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이고 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돕는 내용</p> <p>친구관계에서 나아가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기술 교육</p> <p>가해자 부모가 자식을 보듬을 수 있도록 지도교육</p> <p>자녀들의 올바른 분노 표현 방법에 대한 기술 훈련 등</p> <p>자기 자녀에 책임감</p> <p>자녀와 부모의 대화방법</p>

구분	내용
프로그램 참여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의뢰된다고 할지라도 참여할 의지가 없어서 형식이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음
	반드시 참석하도록 제도적 지원
	대상자 확보가 어렵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교육 편성
	강제성이 없어서 참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짐
실제적인 프로그램	
신변보호	낙인찍지 않기
기타	결국 학교교육정책이 함께 변화되어야 함

나.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조사

1)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가 겪는 주된 어려움(중복 선택)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21.6%),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18.8%), 부부 갈등 혹은 가족 구성원의 갈등(9.7%),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9.1%), 어려운 경제적 여건(3.9%), 기타 의견(1.3%)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부록 그림 7.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가 겪는 주된 어려움

2)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상담 시 어려움

상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 상담하는데 겪는 어려움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 중 평균 3.15점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를 상담하는데 ‘보통’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 상담 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응답되었다.

부록 표 9.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상담시 어려움

구분	내용
부모의 정서문제	학교폭력 피해 외의 분노나 스트레스가 많았음
	감정다루기 / 부모의 감정조절
	마음의 상처 치유
	피해의식, 불안 ⇒ 상황에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며, 상담진행시에도 상담자의 말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과 생각에 상담자가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아이의 슬픔을 이해 못하고 부모님들 자신의 힘든 상황만을 요구할 때
	자녀를 보호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부모의 무기력, 자녀 돌봄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부모의 자녀를 위한 에너지 부족, 낮은 자존감
부모의 문제해결 능력 부족	결정의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많이 의지함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 부모들은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상담을 통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이 어려웠음.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름, 보복을 두려워하여 문제를 덮어 버리려 함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되고 상담자에게 모든걸 떠맡겨 버리려는 모습
적극적 대처방법을 알려주나 부모의 내적 원인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자녀 이해 부족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갈등

구분	내용
	아이 자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 아이 내면에 분노가 조절이 안 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지
	아이에 대한 관심부족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자녀에 초점이 되지 않고 사안처리에만 주력을 하는 경우
상담에 대한 낮은 동기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
	학교에서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및 강제성은 있어서 가해학생들은 상담에 참여하는데 피해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참여율도 적고 드러나지 않음.
	상담을 하는 것이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생각함. ⇒ 빨리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경제적 문제	생계로 인한 내방의 어려움
	방임이나 가정 내 문제가 많은 경우가 흔해서 잘 오시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조손가정이나 맞벌이 등 생업이 바빠 부모교육이 어려운 경우도 많음
	부모들의 어려운 환경
	사회취약계층이 많음. 부모 상담을 하기에 너무나 생활이 바빠 참여하기가 어려움. 아이가 힘든 상황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임.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과 가정의 부재인 경우가 많음

3)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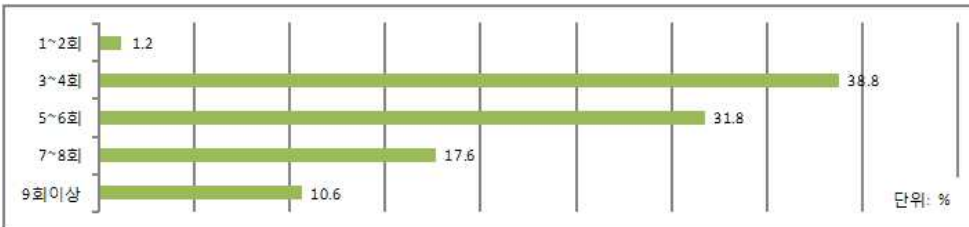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은 리커트 5점 척도 중 평균 4.6점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4)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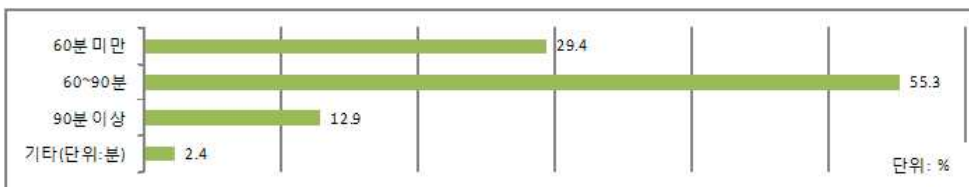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적절한 교육 형식으로는 집단 형식(58.8%)이 개인 형식(41.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의 적절한 실시회기로는 3~4회기(38.8%), 5~6회기(3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 시 1회기 당 시간으로는 60분~90분(55.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집단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적절한 구성원 수로는 4~5명(45.9%)이라는 응답과 6~8명(38.8%)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부록 그림 8.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교육의 형식



부록 그림 9.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의 실시 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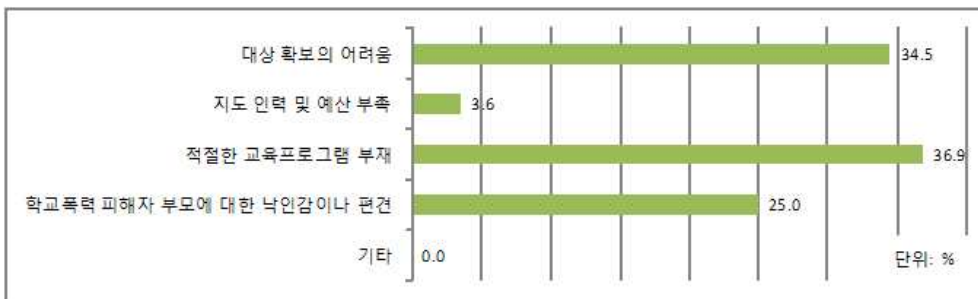
부록 그림 10.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1회기 당 시간



부록 그림 11.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집단 구성원 수

5)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 예상되는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부재(36.9%)가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대상 확보의 어려움(34.5%),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에 대한 낙인감이나 편견(25.0%), 지도 인력 및 예산 부족(3.6%) 순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12.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 어려움

6)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별 요구도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각각의 요소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 10.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별 요구도

영역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내용	평균(M)
학교폭력 이해	학교폭력 피해자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4.67
	학교폭력 피해 징후 파악하기	4.79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처리 절차	4.67
자녀 이해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정서·심리적 상처 다루기	4.87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4.87

영역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내용	평균(M)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자기 주장하기 등)	4.80
부모이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4.48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감정 다루기	4.73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소진 방지하기	4.65
	자녀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어려움(음주, 가정폭력 등) 다루기	4.59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과 관련된 부부 갈등 해결 방법	4.50
부모-자녀 상호작용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4.66
	학교폭력 피해자녀와의 갈등 시 대처방법	4.78
	학교폭력 피해 자녀와의 친밀감 제고 방법	4.62
	자녀와의 효과적 대화방법	4.79

7)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시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 받은 내용(개방형 질문)

구분	내용
부모의 자기 이해	부모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 한 점
	자신이해
	부모 모습 점검하기
	심리검사를 통한 부모와 자녀의 이해
부모의 정서적 지원	마음 공감
	부모의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
	감정 및 상황에 대한 공감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것이 부모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심어준 것
	자신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어서 위로가 되었음
자녀 이해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의 이해 감정코칭
	또래 관계에 대한 설명

구분	내용
	아이의 마음을 이해
	부모 앞에서의 아이 모습과 폭력상황 앞에서의 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된 것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자녀의 상처를 우선적으로 보듬어 주도록 집중하라는 것.
	아이들이 행복해 지는 방법
학교폭력 대응 정보	법률적 절차
	피해 시 대처방법
	학교 대응법
	대처방법이나 학교 선생님과 의 낙인찍힌 것에 대해 조절하고 관계 형성하는 것
	학교폭력 관련 사례
	학교폭력 사건후 진행되는 절차 소개 및 중재자로서 접근한 것
양육방법	자녀양육 태도 교육
	자신의 양육방법에 대한 반성
	부모자녀와의 대화방법 및 부모의 역할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
	부모 자녀의 효과적인 대화법
	자녀 대처기술

8)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 사항(개방형 질문)

구분	내용
부모의 자기 이해	피해자 부모의 가족력 관련 자아성찰 프로그램
	부모자신이해
	가족의 역동이해
	합리적인 사고
부모의 마음 다루기	부모의 자책에 대한 위로

구분	내용
	자조집단 같이 서로의 아픔을 공유
	공감하고 피해의식 느끼지 않도록
	부모님의 불안 다루기, 대처방법
	낙인 및 피해에 대한 인식구조 변화
	자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분노감
	부모님들의 감정조절,
자녀 이해	'왜 내 아이인가?'가 아닌 피해자녀에게 '많이 힘들었지?'라는 눈으로 바라보기
	피해 청소년에게 이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우울, 자살 등)에 대한 이해와 예방
	청소년심리이해
학교폭력 대응	학교와의 개입
	자녀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 강화시키기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강조해서 교육이 필요.
	피해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자신감 기르기
양육태도 및 방법	자녀와의 대화방법
	자녀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
	자녀가 피해를 잊고 새롭게 생활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교육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존감을 높이기위한 교육
	또래관계 회복 프로그램
	환경변화와 부모태도변화가 우선임을 알기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함
	자녀와의 의사소통
신변보호	신상 비밀
	비밀보장
기타	실제적이고 현장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학년별, 연령별 피해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
	피해자 학생이 학교로 다시 나갈 수 있는 환경분위기 조성

부록 3.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의미단위 분석

FGI 분석(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 교육청, 상담지원센터)		
사례발굴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수강명령 ■ 경찰서에서의 사례의뢰 ■ 학교에서의 의뢰 ■ 교육청에서의 의뢰 ■ 개별적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가해부모들에 대한 교육실시(사례1,2) 8시간 실시 중 교육 2회기, 나머지는 부모상담(사례1) - 경찰서에서 오는 사례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힘든 경우가 많음(사례1) -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피해아이와 어머니 상담의뢰(사례1) 가해/피해 모두 학교에서 의뢰(사례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실시(사례1) - 교육청에서 가해부모에 대한 교육은 센터에서 의무로 실시하도록 협의(사례2,3).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풀에 센터지도자들 포함(사례1). 가족관계개선사업 협의(사례1,2,3) - 교육청 통해 학교로 피해자 상담/부모교육 홍보 필요(사례2) - 피해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개별적으로 부모가 전화로 개인상담신청(사례1,2)
피해부모의 특성, 심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배경 ■ 자녀에 대한 이해부족 ■ 대처능력의 부족 ■ 부모의 심리 ■ 반응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녀방임 또는 몰이해(사례1,6) -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거나 이해부족(사례6) - 부모가 충격을 받아 대처를 못하는 경우 발생(사례6) - 자녀의 증상이나 상처에 대해 대처를 못하는 경우(사례6) - 각자가 가진 피해로 인한 아픔이 너무 크다(사례6) - 무조건 가해학생불러서 야단치치는 행동은 찌질이로 낙인, 보복이나 전체 따돌림 불러옴(사례5) - 힘없는 부모, 자녀에게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올해만 참어’, ‘니가 문제겠지’ 또는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라는 반응보임(사례1,2) - ‘그거 하나 극복 못하면 네 인생은 끝나는 거야’, ‘너는 맞고만 있었냐, 너도 때려야지...’ 등 상처주는 이야기(사례1,2) - 자존심 구겨짐, 자녀에 대한 불신, 분노, 흥분 등 다양. 문제는 감정에서부터 시작됨(사례6) - 감정적 대응(사례6) - 자녀를 못 지켜 주었다는 자책감, 바보같이 당한 자녀에 대한 원망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한 비판(사례6) -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면서 감정싸움(사례1,2) - 과다반응; 아이의 욕구나 도움필요부분은 간과, 본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경로에 따른 반응 ■ 유형구분 ■ 자녀는 사라지기 ■ 자녀의 폭력행동 ■ 무조건 참다가 폭발하기 ■ 학교에 대한 대응 - 무기력 ■ 주변의 따가운 시선 	<p>감정적 흥분을 보이는 유형. 아이의 욕구 미파악 상태에서 부모의 갑작스러운 개입은 부모끼리의 싸움으로 번짐 과소반응;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며 가해자 용서. 아이의 욕구나 도움필요부분은 간과, 자녀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름(사례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에 대해 교사로부터, 아이로부터, 제3자로부터 듣는 경우로 나뉨. 제3자로부터 듣게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 자존심상하면서 자녀에 대한 불신감 가짐. 여기서부터 갈등발생(사례6). - 과보호 vs. 무기력한 부모 vs. 억압형 등 다양(사례6) - 과보호와 기대 vs. 과잉반응부모 과보호와 기대형은 부모가 너무 자녀를 보호하고 규범적으로 키우는 경우 부모님이 속상해 할까봐 자녀들은 이야기를 못하고, 과잉반응부모는 이야기를 해도 도움보다 상처를 주거나 당장 쫓아가서 일을 더 벌려놓는 유형. 자녀들은 불신(사례5) - 억압형의 경우 자녀에게 강하게 이겨낼 것을 요구. 자녀는 위축(사례5) - 아이는 밀려나고 어른들이 자기 기준으로 해서 해결하려는 성향 보임(사례5, 6) - 부모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원망으로 어머니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는 피해자들이 많음(사례5) - 부모가 견디다가 피해자녀에게 상처줌(사례5) - 참기만 하다가 못 견디고 폭발, 자녀에게 다시 상처(사례5) - social skill의 부족으로 교사와 대화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되거나 교사의 방어적 반응 나타나기도 함. 교사에게 원망, 책임전가(사례5, 6) - 무기력한 모습.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없으며 그 상태에서 중지하는 무기력한 모습(사례3) - 사건이 오래 지속될수록 '적당히 해라. 심하다' 는 반응(사례5)
<p>가해부모의 특성, 심리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특성 ■ 가해부모가 보이는 심리상태 ■ 가해부모의 유형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고로 인해 교육참여 자체가 어려움(사례1,2,6) - 분노조절의 어려움(사례6) - 공감능력의 결여(사례6) -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한 수용의 어려움(사례6) - 창피함, 누구에게도 자녀의 문제행동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가슴속 응어리(사례4) - 서러움. 애가 잘못했지만, 돈없고 뺨 없다고 나의 인격까지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서러움(사례1) - 가해자녀가 자살할까봐, 또 사고칠까봐 두려움, 불안(사례5) - 훈계형; 자녀를 혼내는 유형 vs. 회피형 vs. 방임형(사례6) - 훈계형 vs. 방어형 훈계형은 자녀에게 막 난리를 치고 야단을 치는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방식 	<p>방어형은 아이가 잘못되거나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봐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는 유형(사례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굉장한 과보호(사례6) - 생활이 어려울 경우 방임형(먹고살기 힘들어 자녀에게 신경쓰지 못함)(사례6) - 하지만 부모의 유형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집단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사례6) - 권위적이거나 처벌적인 부모(사례6) -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의사소통방식(사례6)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처리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처리에서 가해나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처리가 되어야 감정적 흥분이 되지 않음(사례6) - 사건은 한 건씩 분리해서 봐야 함(사례6) - 피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장기적인 사건으로 가게 됨(사례6)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위 인원구성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절반 이상 구성, 논의의 객관성, 전문성 결여 문제발생 가능성 높음(사례6)
부모교육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과 단계에 따른 분류 필요 ■ 가/피해 유형에 따른 교육방식 ■ 회기구성 ■ 개인상담으로의 연결 ■ 집단지도자의 중요성 ■ 가/피해 유형에 따른 교육내용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뉘는 것 같다 -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교육이 다르고, 예방교육과 대응에 관련한 교육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능. 크게 보면 의무화된 교육과 대응하는 교육(사례6) - 피해자 부모는 교육 또는 집단상담으로 구분 - 반면 대단위 교육은 불가능(사례6) - 가해자 부모는 20명 정도의 대단위 교육도 가능(사례6) - 교육과 상담의 배합비율 중요 - 가해의 경우 한, 두 번 했을 때 만족을 느끼면 계속 온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융통성있게 구성해야 한다(사례4) - 모둠식 구성 바람직, 부모교육에 대한 총 백과사전(사례1,2) - 개인, 집단 모두 가능하도록(사례2) - 가해부모는 개인상담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사례1) - 집단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함(사례1,2,3) - 가해자 부모의 경우, 학교폭력 개념, 소년법 등 관련법에 대한 교육, 재발을 막기위한 부모님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초점필요. 가족간의 의사소통이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수용, 자녀의 발달적 특성 등과 관련한 교육 진행(사례1,2,3,6) - 생활이 어려운 방임형의 경우, 가족과 관련된 긍정적인 면들 반추하는 시간,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게 하는 시간 등이 포함되면 좋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양 ■ 활동중심 프로그램 ■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 활용 ■ 자녀들의 학교공부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것 같음(사례6) – 피해자 부모의 경우, 부모의 유형이 다양 – 피해부모의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혀주는 것 필요(사례1,6) – 피해부모의 치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사례6) – 처리절차에 대한 교육필요(사례1,2,3) – ‘만날 듣는 이야기이다. 이런거 싫다’ 오히려 아이를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사례4) – 몸을 쓰는 방식이 훨씬 효과도 크다. 아이와 함께 하는 스킨십-손풀기 등. 부모들도 애들이랑 똑같다(사례4) – 아이들과 가족캠프에서 같이 퍼즐풀기와 같이 아웃풋이 나오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필요(사례4) – 결국 아이들의 코드 이해하도록 돕기(사례4) – 가해부모의 인지수준이 높지 않음(사례1) –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동영상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사례1,2) –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버티는지에 대해 체험 필요(사례4)
가 해	예방교육 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자녀와의 대화 ■ 부모-자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의 복불복, 만연화 현상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내 아이만 안당하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사례6) –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현상 특히 여러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교육, 발달경로, 전조증상과 대처방법 등(사례1,2,5,6) – 학교폭력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사례1,2,5,6) – 아이들과 관심있는 대화노력, 의사소통방법(사례1,4, 5, 6) – 어떤 이야기든지 자녀들이 얘기할 수 있는 집안분위기(사례6) – 가장 중요한 도움세력은 부모라는 점을 자녀와 이야기해야(사례6)
	개입단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 조속한 처리에 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에 관한 정확한 교육필요 – 학교폭력이 범죄이고 다시 저질러서는 안되며, 부모님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교육제공. 피해에 대한 감정적 배려(사례1,6) – 가해부모들도 빠져나갈 구멍 필요함. 중재필요(사례5)
	개입단계II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다루기 ■ 심리극으로 위로 ■ 피해부모의 입장이해 ■ 부모교육-자녀양육 ■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억울함, 속상함 공감해주는 시간 필요(사례1,6) – 가해자이지만 내가 조금 위로받는 시간 필요(사례1) – 피해부모입장에서의 역할극 등을 통해 피해부모의 입장공유하는 시간 필요(사례1) –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양육방식, 어떻게 문제행동을 통제해야 하는지와 같이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교육필요(사례6) – 자녀에게 초점 맞추기, 공감하기, 이해하기(사례2,6)

		<p>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장점 찾기 ■ 성교육 ■ 미술치료 ■ 용서프로그램 ■ 희망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게 상처주는 대화법 지양, 자녀의 힘을 복돋는 대화법 필요(사례1,2) - 배우자의 장점, 가족의 장점, 자녀의 장점 찾아보는 시간 필요,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의 장점 찾기 필요(사례1,2) - 자녀들의 성문제에 대해 부모는 불안해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미 더 이상 감추거나 그럴 상태가 아닌 경우 부모들이 성교육 필요성 인정(사례4) -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타트지점일 수 있다(사례4) -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부터 돌아보자. 내가 문제에서 좀 벗어나 보자' 를 목표로. 단점은 장기로 가야한다는 점(사례4) - 가/피해 모두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법과 관련하여 역할극 등을 통해 교육 필요(사례1,2,3) - 사안이 심각하더라도 학교나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아이는 돌아온다고 하는 희망이 제시되어야(사례1,2)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교육 ■ 예방교육의 과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사례6) - 학교폭력에 대해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신고라고 가르쳐야 한다(사례5) - 예방교육은 넘쳐난다. 지금 시점은 대처교육이 필요(사례5)
	개입단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자로서의 역할 ■ 사례별 정보제공 ■ 아이를 위해 물러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의 주인공은 아이들이고, 아이가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부모는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점 교육필요(사례6) - 사례별 처리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제공 필요(사례1,2,6)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한 정보 - 피해부모도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다. 자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법 필요(사례5)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필요(사례5)
	개입단계II-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에 대한 지지 ■ 부모간 정보공유의 시간 제공 필요 ■ 사건처리에 대한 정보 ■ 아이의 욕구에 초점두기 ■ 아이의 작은 성취 이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부모들은 단단하게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필요(사례1,2,5,6), 피해부모의 분노를 달래주고 공감해주기 필요(사례1,2,5) - 부모의 심정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야(사례1,2) - 서로 공감이 잘됨. 본인들만의 공감과 정보를 나누는 장을 원함. 서로 필요한 정보, 힘들었던 감정들을 서로 공유하고 풀어내는 시간 필요(사례6) - 사건이 미해결된 상태이면 효과적인 상담 어려움. 따라서 실질적인 사건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필요(사례6) - 아이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상담 필요(사례6) - 아이가 원하는 욕구에 근거한 작은 성취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상담. 이름 바꾸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사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은 신중히 ■ 의사소통, 갈등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부른 자조모임이나 부모끼리의 모임에서는 잘못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쉬움(사례5) - 자녀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패턴, 갈등해결하는 방법 필요(사례1, 2)
피해자녀를 위한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 환경 바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개념의 프로그램 필요(사례5) - 거리벽화, 춤치료, 난타, 연극치료, 숲치료, 봉사활동 등(사례5) - 거리벽화의 치유기능 높음; 성취감, 소통, 위축되어 있는 자아개념의 회복(사례5) - 숲치료의 치유기능; 두려워하던 것을 직면하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배움.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사례5) - 지속적인 피해는 환경을 바꾸어주는 노력 필요(사례5)

부록 4. 학교폭력 가해부모대상 심층면접 의미단위 분석

가해 부모 심층면접 분석		
가정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로 바쁜 생활 ■ 대화부족 ■ 행복한 가정 ■ 결혼가정 ■ 경제적 어려움 	<p>- 제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 가족끼리 밥도 제대로 못먹고..(사례g)</p> <p>- 그때 그당시엔 몰랐었어요.. 바쁘게 사니까.. 근데 가족간에 대화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사례g)</p> <p>- 되게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사례g), 별 문제없는 가정...(사례f)</p> <p>- 결혼가정이라고(사례h)</p> <p>-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거기는 주변이 다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비교 같은 거.(사례j)</p>
부모-자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나쁘지 않음 ■ 집에서는 착한 아들 ■ 애교떨며 마음 약하게 	<p>- 그런데 웃긴게 그런 이야기를 와서 다 해요.. 어디 나가서 피시방에서 술을 마셨다하고.. 그런걸 거리낌 없이.. (사례 f)</p> <p>- 집에서는 또 엄마 말은 잘 들어요. 지 동생도 잘 보고. 그러는데 나가면 그게...(사례j)</p> <p>- 엄마 한 시간만 나갔다면 안 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못 내보낸다고 그러면 옆에서 계속 애교떨어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1시간이 아닌 거죠.(사례j)</p>
부모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 약한 엄마 ■ 크면서 그럴수도 있지 하는 아빠 ■ 심한 체벌로 키우다 - 체벌과 비난 <p>-자녀의 말을 안듣는 엄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받아주는 아빠 ■ 엄격함 	<p>- 전에는 애가 우기면 저도 마음이 약하고 애기 아빠는 아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놀아도 된다고.. 허용하고...(사례 f)</p> <p>-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엄하게 키웠어요.. 체벌을 하고.. 규정에서 벗어나면 안돼요... 제가 클 때 그렇게 커서..(사례g)</p> <p>-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지니까.. 삶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배신당했다 그런게 느껴지고..그러니까 입에서 좋은 말이 안나오고 계속 지적하고 왜 이것밖에 못해!! 하고.. (사례g)</p> <p>- 왜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니 하니까.. 엄마는 매사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너 잘못이다.. 너 잘못이니까 인정을 해라.. 거의 그런식이라는 거예요..그러니까 엄마랑 대화가 안돼 그러고..- 이제 중학교 2학년때 연락이 왔어요.. 돈 뜯었다고.. (사례g)</p> <p>- 근데 애아빠는 안그렇거든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좀 애가 잘못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게 되는데..(사례g)</p> <p>- 저희는 교육을 엄격한 편입니다. 집에서 TV도 없어요. 없애 버리고 책을 많이 읽는 편이고요. 집에서는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편..(사례j)</p>
자녀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 ■ 장난 좋아하는 성격 	<p>-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사례 f)</p> <p>- 애가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은 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분의 굴곡이 심함 ■ 화를 참지 못함 - 욕하는 성격 - 지기 싫어함 ■ 건장한 체격 ■ 학교짱과 친한 자녀 ■ 정의파 	<p>선생님이었는데 힘들어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사례 f)</p> <p>- 00의 기분지수가 1에서 10이래요.. 기분지수가 1일때는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00와 00랑 어울리는 친구들을 어려워 해서 반 아이들이 까라지는 거지 00가 욕박지르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기분이 10이면 애들한테 너무 잘해준대요.. 그런 기분의 굴곡을 좀 다르려야 하지 않겠나.. 하고..(사례 f)</p> <p>-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화가 나면 자제가 안 되니까.(사례i)</p> <p>-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처음에 상담으로 집사람이 왔는데 원래 문제는 욕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애들하고 쉽게 부딪히고 지는 성격이 아니라 이기려고 하다보니까 학기 초는 항상 투닥투닥..(사례j)</p> <p>- 애가 덩치가 아무래도 있거든요....(사례 f)</p> <p>- 학교짱이 00랑 친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사례 i)</p> <p>- 옆의 친구들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TV에 나오는 그런 애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중략)전학온 애 하나가 친구들을 못살게 굴고 하니까, 이지들끼리 어떻게 해서 밀어냈더라고요. 그런 걸 싫어해요.(사례j)</p>
가해자녀의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도 무서워요 ■ 낮은 자아개념 ■ 내쳐지는 것에 대한 실망 ■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 ■ 안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물어봐서 억울함 	<p>- 한번은 집근처에서 선배가 불러 나가서 같이 담배피우는 걸 보고 아는 분이 문자를 준 거예요.. (중략).. 아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나도 그 걸 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엄마가 그마음을 알아? 라고.. 그래서 그게 네 마음에서 우러나서 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하고..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사례 f)</p> <p>-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우리 아이가 나는 사고뭉치고 꼴통이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고... 자기 비하같은... 뭘해도 엄마 마음에 안들고.. 그런 생각을...(사례g)</p> <p>- 애도 그게 기분이 나뻐던 거야. 교감선생님이 전학가라고 그랬대.(중략) 그러니까 애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나 붙잡고 내가 너한테 사랑 받는 거 같으면 애들도 노력해요.(사례h)</p> <p>- 잘 못 한 일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뺏겨봤고 뭐 계속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중략) 내가 한 번도 안 뺏기고 한 번도 안 그랬으면 분하고 억울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초등학교 때 언니들한테 당했었고 주변에서 다 그랬는데 우리만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거죠. (사례h)</p> <p>- 오늘 아침에도 “저거 봐 바. 애 한 명 저렇게 죽잖아.” 지는 짜증나는 거죠. “엄마는 왜 나한테 그래?” “화내라는 게 아니고 너는 장난으로 그러지만 개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야.” “안</p>

		한다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개는 억울하면 울거든요. “왜 나한테 그래?” (사례i)
학교폭력 가해의 징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피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피해자 - 쫓아가서 따지기 - 담임은 그냥 넘어가기.. ■ 비행또래와 어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밤에 어울려 놀기 - 친구집에 가서 자고 오기 - 친구데려와 자기 - 음주와 흡연 - 훔친 자전거 같이 타기 - 빈건물 불지르기 ■ 무단조퇴, 수업 빠지기 ■ 학교 규칙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귀걸이 착용 - 교사에 반항 - 지각 ■ 가출 ■ 왕따시키기 ■ 괴롭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4학년때인가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다고 얘길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전학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적응을 못하면 어딜가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다 흡족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 극복해라.. 커가면서 더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러면서..(사례g) - 계속 애들이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휩쓸려 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고(사례h) -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올라가는 그 시기에 저희 애가 조금 어울리는 친구들과 밤에 만나서 동네에서 논다고 하고 나가서 놀고... 노래방, 피씨방..(사례 f, g) - 친구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몇 날 며칠을 조르고..(사례 f) - 하도 졸라서 친구를 데려와서 자라고 했는데 점점 인원수도 많아지고 자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게 이제 안되겠더라고요.(사례 f) - 중학교 올라가서 친구들과 소소한 그런 것들에 휘말리고.. 같이 놀다가 담배 피는 걸 동네 이줌마한테 들켰다던지..(사례 f) - 애들하고 같이 담배피고..(사례g) - 요즘 애들 담배도 피우잖아요. 애도 그랬던 거 같아요. 집에선 안 그러는데 문자를 보면..(사례i) - 친구가 훔치 자전거를 같이 탔다던지..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면서 빈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 스파클러가 터져서 물어주고..(사례f) - 학교에서는 무단조퇴나 양호실가서 자고.. 그러는거..(사례f) - 수업시간에 맨날 빠지고 안 가고 시험은 엉망으로 보고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집에 오고(사례h) - 학교 선생님이 계속해서 00가 수업시간에 즐기거나 자고 양호실 가서 누워있다고 애가 지금 없어졌다고 연락오고..(사례 f) - 애가 무단 외출하려고 했다는..(사례j) - 중학교 올라가서 귀걸이를 하고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학기초에 문제가 된거예요..그러면서 전화오고.. 반항적이라고.. 교복두 짧게 입는다고.. (사례g) - 선생님이 머라 하니깐 반항적으로 말하고..(사례g) - 전에는 집도 나갔었거든요.. 제가 막 맨발로 쫓아나가서 잡아도 보고.. 이제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지가 그러더라고요..(사례f, g) - 초등학교 6학년때 선생님이 전화오셔서 00가 여럿이서 애 하나를 왕따시켰다고.. (사례i) - 그전에도 괴롭히고 이런 건 조금씩 있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전화 오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학교생활도 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때리기 - 아이들이 무서워 함 - 언어폭력 	<p>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그런데 한 번씩은 꼭 그런 소리는 들었거든요. 한 번씩 때린다고. 한마디로 애가 학교에 가면 애들이 애를 무서워하니까(사례i)</p> <p>- 애들한테 너희 선생님한테 이르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언어폭력하고..(사례h)</p>
학교폭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박 ■ 심부름 시키기 ■ 때리기 ■ 집단폭행 ■ 금품갈취 	<p>-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심부름도 시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진술서에 보니까.. 가슴도 때리고 일시키기도 했다고.. 형사처벌 수위까지는 아니고..(사례f)</p> <p>- 옆에서 때리니까 자기도 같이 한 거 같아요. 폭행도 하고 돈도 뺏었나 봐요. 자기는 돈은 안 뺏었나본데 친구가 때리니까 자기도 한 대씩 때렸다고 하더라고요.</p> <p>- 이제 중학교 2학년때 연락이 왔어요.. 돈 뜯었다고.. (사례g)</p> <p>-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뺏어 쓰기 시작했나 봐요. 장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돈 뺏었는데..(사례h)</p>
처리절차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조사와 반성 - 경찰 신고 - 법원 ■ 학교 선도위원회 개최 ■ 강제전학 ■ 학교 간 의뢰 ■ 경찰 신고 ■ 반성문, 교육 ■ 봉사활동 	<p>- 그쪽 부모님들도 치료를 요한다던지 정신적인 그런 거는 아니어서 일단 면담을 하고 저쪽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 애가 반성하는 걸로 마무리된 사건이에요(사례f)</p> <p>- 개가 112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괴롭혔냐 했더니 우리 아들도 있고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조사를 받고 지금은 00법원에 넘어갔어요.(사례i)</p> <p>-</p> <p>- 우리 애가 돈 뜯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선도위원회해가지고.. 대안교실 가서 교육받고..(사례g)</p> <p>- 이제 금품갈취로 강제전학이 떨어지고..(사례g)</p> <p>-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중학교에 의뢰해서 경찰에 민원이 들어가니까, 엄마들이 민원을 넣으셔서 크게 문제가 돼서(중략) 학교에서 처벌도 하고 반성문도 쓰고 교육도 받고 강제전학이라는 조치도 받고(사례h)</p> <p>-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사례h)</p>
학교(교사)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 전화하는 선생님 ■ 옥박지르기에서 지켜보기로 ■ 담임의 관심과 칭찬 - 선생님의 관심 	<p>- 중학교 올라가서 귀걸이를 하고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학기초에 문제가 된거예요..그러면서 전화오고.. 반항적이라고.. 교복두 짧게 입는다고.. (사례g)</p> <p>- 지금은 수시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담임선생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00를 옥박지르기만 했는데 어머님처럼 좀 얘기해보겠다.. 하시면서 지금은 00뿐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사례f)</p> <p>- 00가 복도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서 우리 반이 1등한 것보다 더 기뻐다고.. 문자도 주시고.. 00는 투덜투덜하면서도 자기 할 일은 다 해서 예쁘다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사례f)</p> <p>- 여기 선생님이 아이한테 사랑합니다 하고..아이한테 칭찬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스쿨 참여 반대 	<p>많이 해주고.. 아이가 선생님한테 따뜻함을 느낀 것 같아요.. (사례g)</p> <p>- 위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거기 가면 안 좋다고 또 선생님이 말리시더라고요. 정말 안 좋은 걸 배워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사례h)</p>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로 인한 수업결손 ■ 처벌효과 없음 ■ 일관성 없는 처벌 ■ 책임지지 않으려 함 ■ 비밀보장이 되지 않음 ■ 피해부모만 편들기 ■ 일진 만들어주기 	<p>- 학교에서 하시는 게 난 뭐가 불만이었냐면 애네들이 어차피 수업을 잘 못 들어요. 학습이 떨어지는 애들을 수업시간에 빼서 벌도 세우고 학생과장님이 반성문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 학습결손이 더 커지는 거예요.(사례h)</p> <p>- 애네들은 그게 아니고 수업을 안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당장은. 그게 너무 전 화가 났어요.(사례h)</p> <p>- 정말 엄하게 하시려면 그렇게도 하셔야 되고 이게 그 날 말고 다른 날 한 건 안 걸린 거예요. 잣대가 똑같아야 되요.(사례h)</p> <p>- 학교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못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엔 체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핑계만 대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사례h)</p> <p>- 학교 상담을 가다보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길 했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엄마하고 선생님들 사이에 돈 거야.(사례h)</p> <p>- 처음에는 아이가 뺨을 맞고 왔어요. 어느 학부모한테(중략)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은 뺨을 맞은 사람의 입장을 잘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그 쪽 부모 편을 드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은 ‘아 이게 불거지면 안 되겠구나. 감춰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사례j)</p> <p>- 학교에서 일진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은 그냥 지들끼리 노는데.(사례j)</p> <p>- 2학년 때 애가 반장으로 뽑혔는데 학교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옛날에 품행이 안 좋았으니까 라고..(사례j)</p>
부모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간에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 같이 분담하기 ■ 매 들기 	<p>- 저희가 서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부부가.. 그런데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애기아빠랑 대화를 해야 겠구나.. 그런데 애기아빠는 처음에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00는 그렇지 않다고 너무 많이 믿고.. 제가 예민하다고..(사례 f)</p> <p>- 아 그게 부부 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구나.. 저도 밤 열한시가 됐든 열두시가 됐든 애기아빠가 늦게 오더라도 다 이야기하고..(사례 f)</p> <p>- 지금까지 내가 갔으니까 경찰서 가는 거 아빠가 같이 가보면 어떻겠냐 하고..(사례 f)</p> <p>- 아이가 하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놀다가.. 갑자기 학교를 안간다고 그러다가 아빠한테 학교를 못갈 정도로 옆드려 뺨치를 시키고 매를 맞았어요.. 아빠도 많이 속상해하고..(사례 f)</p> <p>- 애가 5시까지 논다고 하면 3시까지 놀다가 오라고 시간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제정과 준수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되는 건 안된다고 하기 - 규칙준수와 보상 ■ 데리러 가기 ■ 자녀와 대화노력 ■ 원하는 일 지원 ■ 아이의 마음 이해하기 ■ 자율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와 자율 ■ 선생님과 상의하기 ■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 ■ 주변 도움청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과외활동 교사 	<p>줄인다면지.. 그렇게 룰을 정하고..안되는 건 끝까지 안된다고 하고..(사례 f)</p> <p>- 안되는 건 안된다고.. 끝까지 안되는 거.. 친구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것도 애가 아무리 저한테 회를 내고 부탁을 해도 그건 절대로 안되는 거.. 대신 2박 3일을 애기아빠가 아는 선배 콘도에 개네들 친구를 다 데리고 가서 그 선배가 보는 하에 지켜주는 하에 마음껏 놀다오도록...(사례 f)</p> <p>-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데리러 가요. 다른데 못가도록.. 그래서 00는 갈 시간이 되면 엄마가 데리러 오는 애가 된 거예요..어디든... (사례 f)</p> <p>- 이제 데리고오면서 아이랑 이런 애기 저런 얘기를 했죠.. 하루 있었던 일을 하면서 운동이나 머나 다른 걸 해보자 하고.. (중략) ... 어느날 뜬금없이 테니스를 해볼까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듯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선생님을 섭외했어요.. (사례 f)</p> <p>- 엄마는 왜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걸 생각안해? 그 얘길 하는데 그래 니가 무서웠겠다 정말.. 저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니가 무서웠을 수 있겠다.. 엄마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00야 앞으로도 나가면 그런 일이 또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사례 f)</p> <p>-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 소위 선생님들이 말하는 나쁜 친구들이랑 놀게하고 충분히 거기서 놀게 하고.. 제가 테니스 배우러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사례 f)</p> <p>- 이제 저도 수시로 선생님이 전화 오시기 전에 먼저 하고.. 담임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하고도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도...(사례 f)</p> <p>- 책도 많이 읽고 방송 EBS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던지 다큐멘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그런거 울면서 보고 나면 그래도 우리 아이는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애가보지 않았나? 하고... (사례 f)</p> <p>- 좋은 글귀 같은게 있으면 스크랩해서 문 안쪽 벽에 붙여놓고..보든 안 보든 마음속으로 비는 거예요..(사례 f)</p> <p>- 코치님한테도 미리 이야기를 해서.. 코치님도 농담처럼 요즘 애들이 그런다며 하고 물어보면 애가 신나서 요즘 애들 학교폭력이나 비리 그런거 죽 이야기하고 코치님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고.. 학교선생님에게도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사례 f)</p> <p>- 무조건 예쁘게 봐달라고 믿어달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거 보다는 아이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냐고 저도 집에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 그러고.. (사례 f)</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하기 ▪ 과정을 노력하기 ▪ 같이 노는 아이들을 자식처럼 품어주기 ▪ 아빠가 엄마 상담신청 ▪ 감사와 너그러지기 ▪ 대안학교 입학 ▪ 상담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신청하고..(사례 f, g) -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하나하나 풀어야지.. 애한테도 몰아쳐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안되고.. 딱 그 부분만...(중략).. 제가 노력을 안한 만큼의 노력을 애한테 해야 하지 않나.. 둘 다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부부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 과정을 노력해야 하지 않나.. 다른 엄마들도..(사례 f) - 저는 아이들에게 오라고 해서 간식 먹이고.. 00가 그런거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해야 하나.. 너희들은 이렇게 해도 집에 가서 야단 맞지만 나는 야단맞지 않는다 라는 그런 눈빛이.. 아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다들 가정이 소홀해요.. 안타까워요.. 애들이 너무 순수한데..(사례 f) - 애 아빠가 지혜롭게.. 상담신청도 하고.. 방송에서 보고 너무 바쁘게 살던 사람이 손을 다 뉘어버리면 우울증 비슷하게 그런거 온다고.. (사례g) -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지혜롭지 못했구나.. 우리 아이가 다섯 번째 집을 나가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그러다 보니깐..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그전에는 나는 내 선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준것같은데 너넨 나한테 뭘해줬어?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사례g) - 그 이후로도 말썹이 커서 대안학교로 옮겼어요. 왜냐면 개네들하고 자꾸 힘쓸리니까.(사례h) - 단 여기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을 받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사례h)
<p>부모의 잘못된 대응이나 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계 ▪ 엄마 입만 막으면된다 ▪ 학교에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기 ▪ 심한 체벌과 싸우기 ▪ 부부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아빠가 ‘엄마 속상하게 하면 안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깐..아이는 엄마가 자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빠한테 얘길 해버려가지고 그런다고 더 화를 내고..(사례 f) - 그건 “니가 행동을 좀 더 잘해야 된다.” 교과서 적인 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 짹하니깐 몰래 숨어서 해라.” 이러진 않잖아요. “니가 처음에 짹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앞으로 니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잘 먹히진 않죠.(사례j) - 네 생각에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봐라 하면서 아이 잘못된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엄마 입만 막으면 된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하니깐.(사례 f) - 제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보고싶지 않다고 선생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사례g) - 하루가 멀다하고 맨날 싸웠어요.. 아이하고..(사례g) - 애 아빠도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거예요.. 허구헌날 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언 ■ 방법 없음 - 얘기해도 소용 없음 	<p>뜨면 싸운다고.. 그럼 제가 다독거리고 그래야 하는데 들어오기 싫으면 들어오지마 나도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야.. (사례g)</p> <p>- 일단 애한테 화가 많이 나니까, 엄청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때리기도 하고 언어폭력도 기본으로 하고. (사례h)</p> <p>- 방법이나 답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사례i)</p> <p>- 아빠랑 싸우는 게 그거예요. 왜 애가 맨날 늦게 들어오는데 뭐라고 안 하나. 맨날 뭐라고 하면 뭐하냐고요. 자기가 깨달아야지. 내가 붙잡아 올수도 없고(사례 l)</p>
<p>학교폭력 사건 후 아이와 가족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순응 ■ 공부에 관심 가지기 - 공부에 관심 보이기 - 같이 공부하기 - 아쉬워하기 ■ 자녀의 자제 노력 ■ 화 덜내기 ■ 이유를 설명하기 ■ 대화하기 ■ 성적하락 ■ 문제아 낙인 	<p>- 아이가 '엄마 친구 누구 생일인데 나 테니스 빠지고 놀래' 그러면 전에는 저도 호들갑을 떨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고 그랬는데.. 막 절대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OO야 다른 날짜로 미룰수 있으면 어떨겠니? 니가 테니스 가는 건 니친구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친구들이랑 전화해서 바꿔놓고 하니깐..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사례 f)</p> <p>- 엄마 나도 이제 공부 좀 해야 할 것같다고.. 그러면서 자기 시간을 조금씩 쪼개쓰는 거예요..(사례 f)</p> <p>- 문제집 사주고 조금씩 조금씩 제가 내놓은 분량을.. (중략)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아이 말로는 엄마하고 공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아이도 아쉬워하고...(사례 f)</p> <p>- 본인이 요즘에는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쁜 친구들도 안 만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중략)개들하고 놀면 공부는 공부고 생활자체가 엉망이 된다는 걸 본인이 깨달았으니까. (사례h)</p> <p>- 그 때도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중략) "엄마 나 진짜 참았다." 그래요.(사례i)</p> <p>- 엄마 아빠 말을 지가 수긍하기 어렵더라도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요.(사례j)</p> <p>- 일단 화를 덜 내려고 해요. 일단 애가 무슨 얘길 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화를 덜 내려고 하고.(사례h)</p> <p>- 그리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안 된다는 소리보다는 생각을 해 보겠다 라고 하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사례h)</p> <p>- 말도 많이 하고 지가 잘못된 거 있으면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뭘 일 있었냐고 하면 아니 없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사례i)</p> <p>-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데.(사례j)</p> <p>- 다른 친구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말썽을 피웠는데 같이 노는 친구니까 너도 와. 이런 식이죠.(사례j)</p>
<p>가해부모의 심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식의 흉허물이 내 흉 	<p>- 자식의 흉허물이 제 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고..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사례 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터널을 걷는 느낌 ■ 인생의 회의감 ■ 미칠 것같은 ■ 무기력과 미움 ■ 아이를 설득하기 힘들 ■ 보호하지 못할까봐 걱정됨 ■ 또 사고칠까봐 걱정 ■ 자녀의 장래가 걱정됨 ■ 피해부모에게 미안함 	<p>- 저는 긴 터널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던거거든요... ‘빛이 나오는 저기를 언제 나가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있나’ ... 이런 생각.. (사례 f)</p> <p>-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고.. 애가 저 모양이고 지금은 이제 지 잘났다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인제 그런 소리가 애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집에 잘 안들어올라고 하고..애들이...(사례g)</p> <p>- 막 미칠지경이에요 하는 짓마다 그냥 다 꼴 보기 싫어요.. 이런 마음 다 필요없다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구요..(사례g)</p> <p>- 제가 마음이 그렇다보니까.. 아이들 보기도 싫고 같이 앉아서 밥 같은거 먹는것도 싫고.. 무기력하고.. 삶의 회의 같은게 오고.. 나는 뭔가.. 헌신적으로 살았던 것같은데...(사례g)</p> <p>- 애한테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를 대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사례h)</p> <p>- 앞으로 니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금은 부모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보호할 수도 없고... (사례h)</p> <p>- 맨날 걱정이죠. 애가 좀 늦게 들어오면 사고 안치나.(사례i)</p> <p>- 우리 애한테 무슨 불이익이 올까? 이게 두려워요. 이게 남아서 애한테 장래 무슨 문제가 생긴단건가. 그게 정말 두려웠어요.(사례h)</p> <p>- 어려운 건 없었는데 그 쪽 어머니한테 미안해서요.(사례i)</p>
--	--	--

부록 5. 학교폭력 피해부모대상 심층면접 의미단위 분석

피해 부모 심층면접 분석		
가정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신체질병 ■ 빈곤 ■ 맞벌이 ■ 엄마같은 누나 	<p>- 개네 아빠가 개가 서너살 때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고 한쪽이 지체장애인이 되셨고. 그래 인제 개가 5학년때쯤 내가 암수술을 해가지고..(사례c)</p> <p>- 맞벌이를 하면서 신경을 못쓰게 아닌가..(사례d,e)</p> <p>- 제가 맞벌이를 하니까 누나가 거의 엄마처럼.. 그렇게 따르고.. 누나한테 이야기하는게 더 많으니까.. (사례e)</p>
부모-자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같은 관계 ■ 개인성향이 강한 집 	<p>- 난 아들하고 방을 같이 써요.. 제가 아들을 좋아해요.. 남편보다.. 너무 아들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사례c)</p> <p>- 아이들하고는 친구처럼 지내려고..(사례a)</p> <p>- 티비를 보거나 끝나면 각자 방으로 흩어져서 개인생활 하다가 잠이들고 아침이면 밥먹고.. 서로 이렇게 개인성향이 강한 집이라..(사례e)</p>
부모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사 긍정적 ■ 성실하고 규범적 ■ 여리고 소심한 성격 	<p>- 항상 감사해요..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씩 일해서 애들한테 더 해줄수 있고 남편한테 더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사례c)</p> <p>- 저희 부부가 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사례d)</p> <p>- 우리가 다 여리고 소심하고 착하고 말 못하고 그래요...(사례d)</p>
자녀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리고 착한 성격 - 겁많고 순한 성격 - 여리고.. ■ 순진하고 착하고 ■ 소심한 성격 ■ 생각이 깊은 애늬은이 ■ 모범생 ■ 자존심이 강한 아이 ■ 키가 작은 편 ■ 말썽한번 안피운 아이 ■ 언어장애 	<p>- 우리 아들은 마음이 되게 여려요... 좀 여자애 같이 여린데...(사례a)</p> <p>- 우리 애는 이제 순진하고 착하니까...(사례b)</p> <p>- 여리고 겁도많고 굉장히 순해요(사례d)</p> <p>그렇게 착하고 이쁘던 아이가...(사례d)</p> <p>- 그런 아이들있잖아요.. 피해를 주지않고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 소심한 성향...(사례b)</p> <p>- 우리 아이는 어른들 표현대로 하면 애늬은이라고 하면 되요. 굉장히 깊어요. 생각이(사례c)</p> <p>-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사례a, c, e)</p> <p>- 아이가 한 고집하는 애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애고.. 자기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애니까...(사례e)</p> <p>- 키가 나이에 비해 좀 적은 편이고...(사례c)</p> <p>- 진짜 강직하고 말썽한번 안피웠는데...(사례a, c)</p> <p>- 언어장애가 있어서.. 뇌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언어장애가 있어서 말을 잘 못하고.. 잘 못알아듣고 그러거든요...(사례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골수 ■ 형제의 피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은 우리 애는 뭐하겠다고 하면 외골수로 나가는 아이라.. 굉장히 집념이 강해요...(사례d) - 우리 애 누나도 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었나봐요...성격이 내성적이예요..누나도...(사례c, d)
피해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점을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그러는데 발로 툭툭 차더래요..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정색을 했는데.. 니가 감히 나한테 그랬어? 하면서 꽃혀버린 거예요.. 인제.. 아들이 그래요 나는 개네들한테 찍혀서 계속 그런 것같다...(사례c)
가해부모의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무가내 거부 ■ 무조건 큰소리치고 화내기 ■ 가해자의 아빠가 피해부모에게 사과 ■ 가해아이 체벌 ■ 가해가족간 갈등 ■ 발빠르게 대응하기 ■ 자기 아이만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애는 공부밖에 모르는 애인데 우리애 이야기를 들어야지...어떻게 당신 얘기만 듣고 평하겠냐...(중략) 화를 내며 돌이 장난식으로 한 건데, 너희 아이가 과민반응일으킨거다...' (사례a) -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과민반응이다(사례a) - 돌이 치고박고 싸웠는데 왜 우리애한테만 그러냐고... 생각이 있는 여자냐고 소리지르고...(사례a) - 그 애 아빠가 그날 저녁 전화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전화기 너머로 무릎 꿇고 사과하고...(사례a) - 제일 짱 역할을 하는 아이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그래...(중략) 내가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자식 점검못했다고...(사례c) - 그 애 부모가 물어봤더니 '그 애는 맞아도 돼'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아빠가 애를 두 시간이나 때렸다고...(사례a) - 그 애 엄마가 아들을 체벌을 심하게.. 왜냐면은 아들이 하도 말을 안들으니깐.. 손 마디마디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못쓰게.. 그 엄마도 애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불안하다고...(사례c) -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키우냐며 부인에게도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대요...(사례a) - 가해부모가 학교교사래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그런 거를 너무 빠삭하게 아는 거야... 학교에서 자기네들 입장을 봐 줄 수 있게 처리를 싹~해서 온거예요...(사례b) - 사과 한마디 없이 생기부 올라가는 거만 무서워가지구... 퇴학당하는 것만 무섭구... 용서해달라고...(사례b)
피해경험에 대한 자녀의 반응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로 관심 돌리기 ■ 신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 애가 참 고마운게 '엄마 너무 신경 쓰지마.. 나 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책으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원래 책을 좋아하는 애였는데...(사례a) - 갑자기 열이 40도에서 안떨어지고... (사례a)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고싶다... - 자살생각 표현 - 자살시도 ■ 낮은 자아개념 ■ 죽을 것같은 표정 ■ 전학가고 싶다고 이야기 ■ 부모에게 숨기기 ■ 자존심상하고 수치스러움 ■ 불안과 안절부절, 히스테리, 스트레스, 짜증, 우울 ■ 부모에게 반항 -반항, 분노표출 ■ 교사에 대한 불신 ■ 게임몰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 나 죽을 거 같애.. 근데 너무 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야...00하고 △△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사례a) -초등학교 때도 자기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울더라구요.. 지금도 자꾸 나 죽을꺼야 그냥.. 이려고.. (중략) 저랑 투닥투닥 싸웠는데 목에다 줄넘기 줄을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나 죽을라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중략) 최근에는 침대가 창가에 있는데 침대를 밀치고 의자를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지낸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의자에 올라가서 창밖으로..(사례d) - 자기는 재수없는 아이래요.. 누나에 비해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나오니까..자기는 손금이 재수없는 손금이라 그걸 뜯어고치면 운명이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사례d) - 표정이 그때는 집에 올때마다 죽을 것같은 표정이었어요.. 올때마다 다 죽었거든요..(사례e) - 전학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달고 살았고요..(사례a,d,e) - 쪽팔리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이 없는 거고.. 그런 거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 거죠(사례b)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쓰러져 버리면 또 병원가야되고.. 아빠도 아프고..우리애가 생각이 깊어서..(사례c) -내가 힘이 없어 맞는다는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다..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사례c, e) - 개네들한테 연락없니 그러면 엄마 생각하면 기분나쁜 일인데 왜 자꾸 얘길 해요.. 그래요..(사례c) - 아이가 심할때는 안절부절 못하고, 워낙 심하게 당해서, 막 무슨 말만하면 짜증내구 승질내구. 말도 잘 안하고(사례b) - 옷지도 않고 밥도 잘 안먹고 누워만 있더라구요.. 학교가니까 두려움? 학교선생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불안해 하고..(사례e) - 우리 아이가 우울증같은게 왔고.. 그렇게 활발하던 애가 아무것도 뭘 못해.. 조울증같은게 오면 어떡하나 겁이 나더라구요.. 왜 애들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애인데 더 이상 못참겠다 그리고.. 자살생각같은 거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서...(사례e) - 말 한마디 하면 굉장히 반항적으로 나오고.. 재가 우리 아들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제 얼굴만 보면 화난다고 그래서 일요일에도 내내 말을 안하고 있었고..(사례d) - 우리 애도 선생님은 못믿는 거죠.. 비밀 지켜준다하고 더 커져버렸으니까..(사례c)(사례 d) - 담임선생님이 여자분인데다가 키도 왜소하고.. 저 분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했다하더라구요(사례e) - 큰 아이 때문에 며칠 집을 비웠는데 알고보니 하루종일 게임을 했다고 하더라구요...(중략) 지금도 집에 오면 컴퓨터나
----	---	--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뭐 그거로 일관되죠(사례d)
학교폭력 징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폭력의 징후 ■ 신체징후 부인 ■ 안경 부러뜨려오기 ■ 짜증과 시무룩 ■ 의욕상실 ■ 답답함 ■ 게임몰두 ■ 말수 적어지기 -어두워진 얼굴 -시무룩, 힘이 없고.. ■ 성적 하락 ■ 데리러 오라고 전화 ■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 -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p>-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얼굴에 무슨 자국이 있길래...(사례a,c)</p> <p>- 분명히 맞은 명인데도 축구하다 다쳤다... 그러는거야.. 그런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사례c)</p> <p>- 2년동안 3-4개 안경을 해먹고... 땀방 뚫려오고...(사례c)</p> <p>- 저희 애가 1년을 고생했기 때문에... 집에 오면 다시 시무룩해지는거예요... 약간 짜증을 내고 책가방을 휩 던지고 말을 잘 안해요...(사례a, b)</p> <p>- 학교가서 공부도 의미없고 자꾸 애들은 놀리고 애가 자꾸 의욕을 많이 잃었어요.. (사례d)</p> <p>- 애가 집에 오면 티를 두 번씩 세 번씩 갈아입고 막 이래요.. 이걸 또 뭐가 싫어서.. 너 왜이러니 하니까 답답하대..(중략).. 언제까지 아이가 그때 상처받은 거로 얼마나 이걸 더 해야 하나.. (사례e)</p> <p>- 큰 아이 때문에 며칠 집을 비웠는데 알고보니 하루종일 게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중략) 지금도 집에 오면 컴퓨터나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뭐 그거로 일관되죠(사례d)</p> <p>- 말수가 적어지고 힘이 없고.. 시무룩하고.. 무기력하고..아무 의욕이 없어요. 얼굴이 어둡고 방문 혼자 닫고 들어가서 그냥 멍하니 있고...(사례b)</p> <p>- 옷지를 얹아요 애가.. 인상을 계속 쓰고...(사례e)</p> <p>- 중학교때도 연합고사를 앞두고 공부를 못하고... 그애랑 얽혀가지구...바닥을 기는 거예요...고등학교 올라와서도...(사례b)</p> <p>-우리 애가 항상 평균 95점 이상 맞았어요.. 근데 70점대까지 내려갔어.. 6학년되려는 중학교 대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중략) 나중에 이제 공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례c, e)</p> <p>- 엄마 나 다리미가 무서워 그러는데, 나 데리러 오면안되요? 하고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챈 거죠.. 내가 (사례c)</p> <p>- 애가 울면서 엄마 도와달라고 전화를..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고 얘기를 주욱 해서.. 지가 1년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사례e)</p> <p>- 아이가 엄마가 느껴졌으면.. 들어줬으면 하고.. 제가 안듣고 있으면 계속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포기하지 말라’ 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사례d)</p>

<p>폭력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 한 팀에 안넣어주기 ■ 때리기 ■ 장난을 가장한 폭력 ■ 이동수업시간에 둘러싸고 상납받기 ■ 수업시간 놀리기/쉬는 시간에는 모르는 척하기 ■ 따돌림 ■ 대놓고 무시하기 ■ 심하게 놀리기 ■ 담배피우기 강요 ■ 고자질했다고 으박지르기/ 때리기 ■ 보복협박 ■ 금품갈취 ■ 후유증 	<p>- 체육시간에 남자 애가 13명인데, 저희 애를 항상 안뽑는 거예요...(사례a)</p> <p>- 그 애가 '재는 6학년때 우리반 왕따였는데 이런 애는 맞아도 돼' 그러면서 발로 찼대요. 다른 애들이 '어떻게 그러냐' 고 하는 데도 따귀를 때리고... '이 새끼는 맞아도 된다니까, 너희도 해' 그런 거예요(사례a)</p> <p>- 굉장히 심하게 맞았어요... 머리, 배, 다리.. 그냥 완전 영화랑 똑같아요.. 100여대도 넘게...(사례b)</p> <p>- 교내에서 옥상올라가는데... 야자끝나구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어두운데 그런데 데리고 다니면서 물불을 안가리구 때리구...(사례b)</p> <p>- 한겨울에 가다보면 다리밑에서.. 항상 끌고가서 팬거예요.. 한 30분씩 패고.... (중략) 끌려 갔다가 내가 전화하니깐 그러니까 그래서 빠져나오다가 돌계단을 받아버려가고.. 저는 아들이 영구장애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눈에 피가나고..안구골절되고...(중략).. 어마어마하게 맞았더라구요...(사례c)</p> <p>- 계속 때리고...(사례e)</p> <p>- 노는 애들 행실이 바르지 못한 애들하고는 같이 놀고 싶지 않는데 방과후 축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전부 날라리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개네들이 장난을 걸어도 굉장히 심하게 걸고.. 어느날은 우리 애가 하루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게 하니까...(사례d)</p> <p>- 영어같은 거 이동수업이거든요.. 딱 이동할 때 딱 여섯명이 싸고.. 그러니까 무조건 상납해버리는 거여...(사례c)</p> <p>- 수업시간에만 놀린대요... 쉬는 시간에는 모르는 척하고...(사례a)</p> <p>-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을때가有大요...(사례d)</p> <p>- 대놓고 무시하고...(사례d,e)</p> <p>- 지우개 가루를 머리에 던지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사례a)</p> <p>- 막 담배피우라고 강요하고...(사례b)</p> <p>- 담임선생님이 괴롭히는 걸 보시고 훈계를 하셨는데... '병신새끼.. 너 선생님한테 고자질했냐?' 라며...(사례a,e)</p> <p>- 우리 애 아빠가 가서 혼냈거든요.. 그런데도 꿈적도 안하고... 그 다음부터 돈을 계속 요구하다가 안가져다 주니까 너 아빠한테 일렸지 하면서 때리기 시작한거죠...(사례b)</p> <p>-야, 너 잘먹고 잘 사냐? 니 덕분에 나 이렇다...(사례c)</p> <p>- 넌 내손에 언젠간 죽어.. 머리치고 땡기면서..이렇게...(사례e)</p> <p>- 그 애가 일진한테 상납해야 한다고 우리 애한테 돈 가지고 오라고...(사례b, c)</p> <p>- 일주일에 두 세 번은 상납하고.. 왜 그랬냐니까.. 맞기</p>
--------------	---	---

		<p>싫으니까..그러더라고요(사례c)</p> <p>- 지금도 배꼽에서 계속 물이 나와요. 지금도 치료를 받아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장에 습열이 차면 그러더라고요..(중략)..치료가 안될 수도 있다..(사례c)</p>
부모의 심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는 줄 알았던... ■ 노심초사와 불안 ■ 미칠 것같은 마음 ■ 울타리가 되지 못한 부모의 미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안함 - 죄책감 ■ 분노 ■ 재발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 우울 ■ 매일매일이 지옥 ■ 그냥 눈물나기 ■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 자녀가 자살할까봐 극도로 두려움 ■ 교사불신 ■ 포기해버리고 싶음 ■ 위축 	<p>- 진술서를 보는데 나는 죽는줄 알았어.. 개 옆에 있었으면 나 목살부터 잡고싶을 정도로...(사례c)</p> <p>- 문제는 내가 되어버렸어.. 쪼그만 일에도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게 되고.. 이게 인제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가 문제가 돼 버린거여...(사례c)</p> <p>- 진술서보면서 이때이때 그랬구나 딱 나오니까 미쳐버리겠더라니까요 근게... (사례c)</p> <p>-그 부모를 믿을 수 없는 입장에서 애가 경찰서에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제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는데 못되어 주었으니까..그게 마음이 아프죠...(사례c)</p> <p>-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하는 죄책감.. 모든 엄마들이 그러거든요.. 그건 가해아이 엄마도 마찬가지이고..(사례e)</p> <p>- 처음에는 분노였어요.. 이놈을 일벌 백계로 다스린다. 너를 그래. 너 끝장을 보게 해주마..이런..(사례e)</p> <p>- 지금도 멍만 조금 들어도 혹시 뭐, 혹시 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그런 의심을..(사례c)</p> <p>- 너무 우울해요 제가.. 애 페이스에 휘말리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서.. (사례d)</p> <p>- 하루하루가 지옥같아요.. (사례d)</p> <p>- 저 혼자 밥 먹다가 울고 같이 차타고 가다가 훌쩍거리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어느날은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죽는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울었어요...(사례d,e)</p> <p>- 중학교 1학년때도 놀렸나봐요.. 싸워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낮은 거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애가 머리가 나쁜 줄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둔한 거예요(사례d)</p> <p>- 우리 아이가 우울증같은게 왔고.. 그렇게 활발하던 애가 아무것도 뭘 못해.. 조울증같은게 오면 어떡하나 겁이 나더라고요.. 왜 애들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애인데 더 이상 못참겠다 그리고.. 자살생각같은 거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서...(사례e)</p> <p>-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었으니까..(사례 c, d)</p> <p>-믿을 만하지 못하죠..선생님들은...(사례 d,e)</p> <p>- 그래 넌 그런 애야 하고 포기하고 싶을때가 많아요.. 이제는 보기도 싫고 미워지려고 해요 하도 힘들게 하니까.. 미운거로 쉽게 끝내버리고 싶은 거죠..(사례d)</p> <p>- 사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분도 안나는 거예요 피하게 되고.. (사례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신고를 후회 	<p>- 형사들이 죽 둘러서서 정확히 쓰라고 하고.. 그러니까.. 경찰서가서도 쓰고 면담도 하고.. 아이가 그때 일을 너무 상세하게 생각을 해내고 새록새록 더 생각나고.. 내가 참 아이들 더 힘들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학교 들러서 훈계하고 자치위 열어가지고 징계주고 끝났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례e)</p>
<p style="text-align: center;">처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 부모에게 전화 ■ 사과받고 넘어가기 - 보복하지 않게 다짐 받기 - 각서받기 ■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 사건 축소/처리지연 - 방어적 반응 ■ 소리지르고 화내는 교사 ■ 담임교사에게 도움청하기 ■ 자치위 개최 ■ 학교에는 예의차리기 ■ 주위사람에게 도움청하기 	<p>- 안되겠다 싶어서 그 애 엄마에게 전할했어요(사례a)</p> <p>- 가해아이 아빠가 전화와서 사과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갔어요(사례a)</p> <p>- 경찰에서는 소년원 가게 때려라.. 나는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상 원하지 않고, 대신 조건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대신에 두 번 다시 우리 애하고 그런거 얽히지 않게 해 줘라 했어요.. (사례c)</p> <p>- 짱이라는 애한테 문자오고.. 다시는 안그런다고..(사례c)</p> <p>- 내 선에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아이를 불러다가 한 시간 넘게 경찰서에서 얘기를 해서 각서도 받고 해서 상황을 종결한 거죠.. 절대 이런일을 하지 않겠다..(사례e)</p> <p>- 담임교사에게 문자를 했어요...(중략) 담임선생님이 토요일밤 11시였는데도 너무 걱정마세요 하고 문자주시고...(사례a)</p> <p>-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이지 몰랐기 때문에.. 3월에 학교를 찾아갔는데... 처음엔 학교를 믿고서 계속 기다리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심각하니까 덩기에 급급하고... 평교사들은 처리하려고 하는데 교장,교감선생님에게로 올라가면 축소하려고 하고.. 쉬~하고 덩고... 방학전까지 질질 끄는 거예요... 아이에게 진술서 몇 번씩 쓰게 하고... 정리하라하고...(사례b)</p> <p>- 담임선생님에게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거는 없다. 애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지만...(사례d)</p> <p>-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예민하신 거 아니냐고...(사례b)</p> <p>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왜 고등학교를 입학해 가지구 이렇게 여기서 처리하려고 하냐고 하면서...(사례b)</p> <p>-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선생님께 공을 드리고 도움을 청한거죠. 선생님을 믿고 맡기는 거..(사례a)</p> <p>- 사건이 경찰에서 종료되고 그뒤에 학교자치폭력위원회가 또 열렸어요.. (가해)아이가 인제 그 벌을 받았죠.. 봉사 80시간.(사례e)</p> <p>-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고.. 가능하면 아빠랑 같이 가면 대응이 다르더라고요(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남기기 ■ 보복방지를 위해 노력 ■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 ■ 경찰에 신고 ■ 경찰이 비밀보장 ■ 해외로 보내기 	<p>- 00언니가 저희집에 오니까.. (중략) 언니가 일기를 쓰라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그 애가 너에게 한 행동과 네가 느낀 감정을 매시간 쓰라고 했어요...(사례a)</p> <p>- 증거남겨야 해요. 오리발을 내미니까...진단서도...(사례b)</p> <p>- 전학을 가더라도 방학중이나 주말에 만나면 불안하니까.. 저쪽 부모들에게 보복금지에 대한 각서를 받고...(사례b)</p> <p>- 애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교육청하고 관내 경찰서에 신고하고.. 지구대 가서 진술서쓰고..경찰서가서 진술서 쓰고...(사례e)</p> <p>- 인제 더 이상은 안되겠다.. 인제 막바지에 한번 얻어터지고 텔레비를 보니까 당장 신고하면은 바로 조치해주고 비밀유지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경찰서에 전화를 했나봐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 모르게 비밀로 해달라고..00형사님이 바로 쫓아온거예요.. (사례c)</p> <p>-학교에서 설문조사했더니 그 애들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문조사에 우리 애 이름이 있더라 하면서 가해애들한테 비밀 유지해주시고...(중략) 우리 애보고도 절대 니가 전화했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시고...(사례c)</p> <p>-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자기는 미국가면 뭐라도 할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이미지로...(사례d)</p>
<p>학교의 대응</p> <p>- 교사의 폭력예방교육</p> <p>-미숙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의 폭력교육 ■ 인성교육 ■ 사건 축소/처리지연 - 방어적 반응 ■ 소리지르고 화내는 교사 ■ 돈으로 합의보려고 하기 	<p>-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이 우리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신거예요.. 그래서 종례시간에 ‘언어폭력이 제일 나쁜 거다. 언어폭력하는 학생은 무조건 전학시키겠다’ 고 하시고...(사례a)</p> <p>- 1년동안 선생님이 계속 우리안에 내가 있고 너가 있다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라는 인식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고...(사례a)</p> <p>-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이지 몰랐기 때문에.. 3월에 학교를 찾아갔는데... 처음엔 학교를 믿고서 계속 기다리고 그랬는데...학교에서는 심각하니까 덮기에 급급하고...평교사들은 처리하려고 하는데 교장,교감선생님에게로 올라가면 축소하려고 하고.. 쉬~하고 덮고...방학전까지 질질 끄는 거예요...아이에게 진술서를 몇 번씩 쓰게 하고.. 정리하라하고...(사례b)</p> <p>- 담임선생님에게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거는 없다. 애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지만...(사례d)</p> <p>-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예민하신 거 아니냐고...(사례b)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왜 고등학교를 입학해 가지구 이렇게 여기서 처리하려고 하냐고 하면서...(사례b)</p> <p>- 학폭위도 열지않고 질질 끌다가...1. 경제적으로 보상해주겠다 그리고 이익제기하지 마라... 2. 가족 모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 야단치기 - 가해자 불러서 야단치기 - 보복으로의 악순환 - 대놓고 무시하기 등 	<p>이사가서 전학가됐다. 3. 가해자가 반성하는 거를 보여주겠다. 이러는 거야.. 웃기잖아.. 돈으로 보상해주고 없던걸로 하자고...우리는 돈 필요없다고.. 법 절차대로 해달라했더니.. 퇴학조치가 전학조치가 된거지...(사례b)..</p> <p>-초등학교 5학년때 선생님이 비밀로 지켜줄테니까 폭력당하고 경험있는 애들 손들라고 했는데 우리 애가 든거예요.. 당당하게.. (종락) 근데 선생님도 웃긴게 비밀에 부쳤으면 비밀로 해결해야 하잖아요..그런데 00가 맞았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가꼬 더 꽃힌거예요 애네들한테...(사례c)</p> <p>- 초등학교 5학년때 제가 한번 선생님께 알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후로 더 견제를 당한 것같더라구요.. 그래 엄마한테 또 일러라.. 그런식으로 보복을 하던가 대놓고 무시를 하던가...(사례d)</p>
<p>학교폭력 사건후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공부로 관심돌리기 ■ 성적 오르기 ■ 경찰관 꿈꾸기 	<p>- 엄마 나 00를 이기고 싶어.. 내가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00이를 이겨보고 싶어.. 개는 학원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푼대... 근데 나는 학원 안다니잖아...(사례a)</p> <p>- 정말 시험을 잘 본거예요...(사례a,b) 저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너무 칭찬해주고...(사례a)</p> <p>-잘 봤다하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와서.. 기다려봐야죠...(사례c)</p> <p>-그 형사님이 너무 친밀감있게 잘 해주시고.. 삼촌이다 그래라 하시고.. 근데 우리 아들 장래 꿈이 경찰관으로.. 하하하,...(사례c)</p>
<p>부모의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 대화 ■ 자녀와 스킨십 ■ 자녀의 상처 달래주기 ■ 자녀의 마음 들여다보기 ■ 아이들에게 오버를 하면서 감정 맞춰주기 ■ 기다려주기 & 인정하기 ■ 유머 	<p>- 매일매일 2시간씩 가족끼리 대화했어요...(사례a)</p> <p>- 저는 아들딸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사례c)</p> <p>- 저는 아직까지 아들을 굉장히 스킨십을 잘해요.. 그러다보니까.. 사건 이후에는 슬쩍 슬쩍보느라고.. 혹시 명같은 거 있나.. (사례c)</p> <p>- 예전에 어느 독일교육책에서 본 게 있어서... 동생이 여자애거든요.. 둘이 불러서 종이를 주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엄마 안읽을 거니까 구겨서 휴지통에 버려..하고 ‘행복찾아 마음에 담기’ 하고...(사례a)</p> <p>- 우리 아들에게 딸과 다르게 많이 규정했던 것같아요...바르기 의뭉하게만... 감정은 억누르고...(사례a)</p> <p>- 저는 아이들에게 좀 오버를 많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파티하자고 하고, 최고라고 해주고...(사례a)</p> <p>- 엄마는 기다려주는 거 같아요. 너 왜 이거밖에 안돼 하는게 아니라 이거만큼이나 해줘서 고마워하고 기다리는 거...(사례a)</p> <p>- 그냥 바라보고있는거? 옆에서 내가 해줄수 있는거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리고 기다리고...(사례e)</p> <p>- 우리끼리 맨날 용감한 녀석들 따라하고 그래요...서로 막 웃다보면 안했던 얘기도 얼떨결에 한마디 하고.. 진지하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세력 되어주기 ■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중심에 ■ 폭력일기쓰기 ■ 유연한 아이로 키우기 ■ 가해와 대면하도록 하기 ■ 처리절차나 아이의 보호를 위한 방법 알아야 ■ 가족 공동의 노력 ■ 드러내고 주변에 도움청하기 ■ 정보수집 ■ 상처받는 자녀의 치유를 위해 상담신청 - 드러내기 - 아이의 스트레스 풀기 - 치유 ■ 기관에 도움 청하기 	<p>물어보면 절대 안해요(사례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애를 많이 웃기려고 노력도 하고...(사례e) - 마음을 잘 만져서... 부모가 너의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너의 든든한 그런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사례b) -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처음에는 전학가자고 했는데 아이가 싫다고.. (사례e) - 00언니가 저희집에 오니까.. (중략) 언니가 일기를 쓰라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그 애가 너에게 한 행동과 네가 느낀 감정을 매시간 쓰라고 했어요...(사례a)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애들은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그러면서 키웠어요...(사례d) - 그 많은 애들이 너희 둘을 주시하고 있는데.. 서로 인사하고 아는척하라고...(사례e) - 우리가 전혀 몰랐어서... 선도위원회, 사회봉사 그런거 특별교육 있는 거 그런걸 몰라서.. 전학조치가 있는 것도 몰랐고.. 그런 것도 미리미리 알아두어야 요구를 할 수 있더라구요(사례b) - 처리를 이성적으로 잘 해서... 아이도 잘 보호하고 가족도 화목하게... 아빠랑 이렇게 하나가 돼서...(사례b) - 막 다른 엄마들에게 물어보고... 청소년 수련관에 도움 받고.. 경찰서도 가보고...발품을 팔아야...(사례b) - 가해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정보도 수집하고.. 법적인거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해요...(사례b) - 우리 아이가 계속 피해를 당하는 그런 입장의 아이였기 때문에, 쌓인게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얘기 잘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서...(사례b,c,d) - 애가 한번도 웃지를 않고 밥도 잘 안먹었어요.. 학교 가서도 두려움? 불안해 하고...그래서 학교에 이야기를 했죠.. 치료를 받게 하겠습니다.. 하고...(중략)..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집에서만 아이를 데리고 있었으면 아이가 이렇게 웃고 행복해 할까.. 드러내길 잘했다...(사례e) - 주변사람들이나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되요.. 감정이 섞여서..내가 가장 가까운데서 보호받으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제대로 가게끔 만들어줄수 있는 기관 그런 기관에대가 도움을 청해야.. 그래서 저도 시청, 교육청, 경찰청.. 다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 (지원선테) 소개해 줘서...(중략) 우리 아이가 상담하고부터 밝아져서 일단 좋고..경찰에서는 학교 전체 분위기로 몰아가는게 좋았고..이쪽으로 온게 절대적으로 잘한 일이다.. (사례e) - 사건 일어나고나서는 교육청에 먼저 전화하니까 정보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기 ■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생활태도 가지기 	<p>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구대에 전화하고.. 심리치료는 내가 가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알아보고...(사례e)</p> <p>- 내가 그래서 아들을 교훈삼아서 자모회도 가입했잖아요.. 아들뿐아니라 딸도.. 딸이 회장이 되버렸어.. (사례c)</p> <p>-네.. 너무너무 감사한거예요..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씩 일해서 애들한테 더 해줄수 있고 남편한테 더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사례c)</p>
부모의 잘못된 대응이나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무관심한 태도 ■ 자녀에게 화내기 ■ 방치하기 ■ 학습에 매진 ■ 자녀말을 귀담아 안듣기 	<p>- 저희 신앙은 일기를 쓴다고 난리났어요.. 옛날엔 이것보다 더 심했는데 다 넘어갔다고... 언론에서 너무 떠드니까.. 애를 마마보이로 키운다고...(사례a)</p> <p>- 우리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애한테 막 화내구 그랬어요...너가 그러니까 맞았지...(사례b)</p> <p>-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방치를 해뒀던 것같고.. 그냥 좀 잘 적응해 주기를 바랐는데... 못하니까...(사례d)</p> <p>- (수술후) 사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보습학원을 가서 애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상위권까지 올라갔어요.. 꽤 많이 잘했죠.. 그런데 애가 너무 힘들었던거예요.. 너무 질리도록 공부를 했구요... 거기서 한번 좌절을 느꼈던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사례d)</p> <p>-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말을 좀더 들어줘야 싶어요.. 제 생각이 바쁘고 생활이 바빠서 애 말을 귀담아 못들었던 것같요...(사례d)</p>
사건 처리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 자녀와 나의 문제 재인식 ■ 관점의 변화 ■ 아빠도 관심가지기 ■ 가족간 대화노력 ■ 학교분위기의 변화 	<p>- 우리 애가 왜 아팠을까를 생각했거든요...맨 처음에는 우리 애가 단점이 없는 것같았는데... 근데 우리애는 너무 끝이곧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연해지도록 이야기하고(사례a)</p> <p>- 아.. 우리애가 왕따 당할 짓을, 행동을 좀 했겠구나...(사례a)</p> <p>- 제 친구가 ‘너 얼마나 재수없었는지 아니?’ 그러면서.. 제가 지나치게 규범적이었던 거예요.. 우리애처럼...(사례a)</p> <p>- 내가 보는 모범생 틀과 아이들이 보는 모범생 틀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학교다닐 때 모범생 틀을 우리 아들한테 강요한 거죠...그게 잘못된 거예요(사례a)</p> <p>- 우리 아빠가 경상도 무뚝뚝한 남자라.. 근데 처음으로 아이랑 같이 자고..출근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래요... 인터넷에서 좋은 아빠되는 거 찾아도 보고...(사례a)</p> <p>- 오히려 서로 가족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게되고...(사례a)</p> <p>- 다른 반 애가 와서 우리 애를 딱 때리려고 그러니까 □ □란 애가 와서 ‘야 ○○ 건드리면 너 전학가야 돼’ ,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냐 나뿐 아니라 그 누구를 건드려도 전학가는 거야 그건 폭력인거야’ 하고...아이들이 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같아요...(사례a)</p>

<p>또래중재</p>	<p>■ 보호해주는 친구</p>	<p>- 우리 아이 반에 아주 똑똑한 애가 있는데.. 되게 활발하고 수영도 잘하고... 정말 멋진 아이 있잖아요... 공부도 운동도 잘하고...동화나 소설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합해서 한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한반 32명중에 거의 10명이 넘는 애들이 근데? 근데? 하면서 듣고... 그러니까 치고박고 할 시간이 없는 거죠..(사례a)</p> <p>- 한 아이로 인해서 왕따반이 생길 수도 있고, 한 아이로 인해서 그 반 아이들 전체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아이의 에너지가 정말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사례a)</p> <p>- 우리 아이가 친구들을 통해서 위안받고..조언도 받고... 그래서 친구를 의지하면서 같이 그렇게...(사례b)</p>
<p>교사의 개입</p>	<p>■ 교사의 지지</p>	<p>- 우리 애가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정말 잘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빠해주시고... '난 학교에 가면 나를 인정해주는 내 편인 선생님이 있다' 는 생각이 빨리 극복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사례a)</p>
<p>경찰의 개입</p>	<p>■ 경찰의 적극적 대응과 사후지지</p> <p>■ 전문적인 사건처리</p> <p>■ 아이의 속마음 들여다보아주기</p>	<p>- 그니까.. 별일 없냐... 한번씩 전화해주시고.. 문자 주시고 그러나봐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안정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사례c)</p> <p>- 학교안에서 이런걸 좀 쭈욱 관찰하고 그래서 저하고 계속 통화를 했었어요.. 이를 넘어서 한번씩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했죠...(사례e)</p> <p>- 형사님들이 다르더라고요.. 애들 편에서 대화하시는 것도 그렇고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그렇고.. (사례c)</p> <p>- 음.. 내가 저렇게 물었으면 재가 그 말을 안했을텐데 이렇게.. 경감님이 너는 어때니..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하고 왜 그래야되는지 말해줄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울컥했어요..외려 우리 아들이 더 명확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고 있어요..(사례e)</p>
<p>바람직한 방법</p>	<p>■ 재발방지를 위한 분리</p> <p>■ 분리를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필요</p> <p>■ 기관에 도움 청하기</p> <p>- 사건처리를 위한 도움</p> <p>- 자녀의 치유를 위한 기관의 도움</p>	<p>- 제일 힘든거는요 또 재발될까봐.... 아이가 또 맞을까봐...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분리되는 게... 법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는 그냥 겁주기 위한 거고.. 진짜 완전히 더 이상 피해가 없게 분리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사례b)</p> <p>- 언제 어떻게 부딪힐이지 모르는 거니까... 내들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그러니까 강력한 법적 대응책이 꼭 필요한 것 같애...(사례b)</p> <p>- 주변사람들이나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되요.. 감정이 섞여서..내가 가장 가까운데서 보호받으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제대로 가게끔 만들어줄수 있는 기관 그런 기관에다가 도움을 청해야.. 그래서 저도 시청, 교육청, 경찰청.. 다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 (지원선테) 소개해 줘서..(중략) 우리 아이가 상담하고부터 밝아져서 일단</p>

		<p>좋고..경찰에서는 학교 전체 분위기로 몰아가는게 좋았고..이쪽으로 온게 절대적으로 잘한 일이다.. (사례e)</p>
<p>부모의 견디기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등산하기 ■ 주변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 공부하기 ■ 회피하기 ■ 상담받기 	<p>- 매일매일 혼자서 등산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가 문제였지? 우리 애는 착한 애인데...' 그생각만 했어요(사례a)</p> <p>- 주변 언니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들은 들어주기만 했어요...(사례a)</p> <p>- 우리아이뿐 아니라 저도 정말 책을 많이 봤어요... 아동심리학, 부모대화법...어머니 상담, 강의 그런거 쫓아다니고...(사례a)</p> <p>- 솔직하지 못하고... 일부러 어려운 철학수업 듣고...회피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요...' 하고(사례a)</p> <p>- 내가 불안해 미치겠으니까.. 형사님이 한번 여기 센터 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담받으려..(사례c)</p>

부록 6.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 다음의 문항은 부모로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답을 하나만 골라서 O표 해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1	2	3	4	5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관찰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1	2	3	4	5
9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1	2	3	4	5
10	나는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1	2	3	4	5
12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1	2	3	4	5
13	나의 흥미와 관심을 부모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1	2	3	4	5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15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1	2	3	4	5

부록 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 다음은 여러분들이 최근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니, 잘 읽고 평소에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의 소신을 아이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1	2	3	4	5
2	내 아이가 나에게 하는 말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내 아이는 내 말을 늘 귀담아 들어준다.	1	2	3	4	5
4	내가 원하는 바를 아이에게 부탁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1	2	3	4	5
5	내 아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이 어떤지 잘 안다.	1	2	3	4	5
6	내 아이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1	2	3	4	5
7	내 아이와 대화를 하면 매우 만족스럽다.	1	2	3	4	5
8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못하도록 한다.	1	2	3	4	5
9	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아이에게 모두 말할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할 땐 조심스럽고 꺼려진다.	1	2	3	4	5
11	나는 마음 놓고 내 아이에게 애정을 표시한다.	1	2	3	4	5
12	내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땐 내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1	2	3	4	5
13	나의 질문에 내 아이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준다.	1	2	3	4	5
14	나는 내 아이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많다.	1	2	3	4	5
15	내 아이는 내 의견을 이해해주려 애쓴다.	1	2	3	4	5
16	내 아이는 나의 속을 썩인다.	1	2	3	4	5
17	나는 내 아이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의논을 잘 한다.	1	2	3	4	5
18	내 아이는 나 때문에 화가 나면 나에게 모욕을 준다.	1	2	3	4	5
19	나는 나의 느낌을 내 아이에게 솔직하게 잘 털어 놓는다.	1	2	3	4	5
20	나는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내 아이에게 그대로 말할 수 없다.	1	2	3	4	5

부록 8.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MBRI)

양육행동 척도

※ 다음 내용을 읽고, 어머니의 견해나 행동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 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2	어머니께서는 사물에 대한 판단을 잘하고 이해도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행동을 못 본체 할 수 없어 야단을 치거나 비평을 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4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5	자녀에게 문제되는 행동이 있을 때 거리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고 도움을 받으십니까?	1	2	3	4	5
6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어 내지 않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7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보이는 흥미, 관심거리에 대해서 자녀와 이야기를 자주하여 도움을 주십니까?	1	2	3	4	5
8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사귀는 친구와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잘 보살펴서 나쁜 친구나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9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버릇들이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표현이나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0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놀거나 공부할 때 되도록 집안에서 하도록 하십니까?	1	2	3	4	5
11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할 수 있다면 비록 힘든 일이라도 혼자서 하도록 하십니까?	1	2	3	4	5
12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 하도록 자유를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1	2	3	4	5
13	어머니께서는 자녀를 일일이 돌봐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리를 찾아 놀게 하는 편입니까?	1	2	3	4	5
14	다른 사람이 어머니를 대할 때 어려워하거나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하는 편입니까?	1	2	3	4	5
15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다른 친구나 어른과 잘 사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6	어머니께서는 직장(가정) 일을 하다가 권태롭거나 지겹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1	2	3	4	5
17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1	2	3	4	5
18	어머니께서는 자녀에게 가능한 한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도록 격려하여 보다 더 성공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9	어머니께서는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20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하고 바라는 편입니까?	1	2	3	4	5
21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주 살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22	어머니께서는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3	어머니께서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것이 딱 기쁘다고 자녀에게 말해주십니까?	1	2	3	4	5
24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그림, 만들기 등)에 관심을 갖는 편입니까?	1	2	3	4	5
25	어머니께서는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겉으로 잘 하십니까?	1	2	3	4	5
26	어머니께서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7	어머니께서는 자녀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까?	1	2	3	4	5
28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무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계십니까?	1	2	3	4	5
29	어머니께서는 자녀양육이 즐거울 때보다 짐스러운 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0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행동 및 태도에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1	자녀가 속을 섞이는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께서는 참으려하다가 외락 성을 내거나 큰소리를 치는 때가 있습니까?	1	2	3	4	5
32	어머니께서는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많으십니까?	1	2	3	4	5
33	어머니께서는 자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34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35	어머니께서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 하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36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의 행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칭찬도 하시는 편이십니까?	1	2	3	4	5
37	어머니께서는 어린 자녀들이 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노는 방식으로 허물없이 함께 놀아 주십니까?	1	2	3	4	5
38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정서적 특성이나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9	어머니께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독서도 하고 강연회 등에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십니까?	1	2	3	4	5
40	어머니께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및 여러 방면에 대해 폭넓게 흥미를 갖고 계십니까?	1	2	3	4	5
41	집이나 어머니를 떠나 자녀가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42	어머니께서는 자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시는 편입니까?	1	2	3	4	5
43	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녀 혼자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1	2	3	4	5
44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머니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45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에게 '장손' '말뭍' 또는 집안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1	2	3	4	5
46	자녀가 바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47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48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부록 9.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 만족도 의견

1.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 만족도 의견

회기	부모 의견	
1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대 형성이 되는 부모님들과의 대화. -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정말 다양하며 특별한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음. 그러므로 가해자 아이를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음. - 영상물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소홀했던) 학교 폭력의 실태를 다시금 알게 되어서 조심스러웠음. -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 -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보고 대화. - 가해자 입장도 많이 이해해주시는 것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초등상담교사2년 했었는데 청소년 상담과 어른(부모)상담의 방식은 좀 달라야 할 것 같음.(이름표 쓰기 등) - 말할 시간 부족. - 많은 학부모님이 참석 안함. - 직장시간에 문제가 있어 시간 내기 힘든 게 가장 문제. - 학부모 텔레게임 시 성별이 다른데 게임자체가 좀 문제. - 그냥 아쉬웠음. -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 - 글로 자주 표현하게 하는 건 학생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
2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사고 이후 대처 방법과 절차를 알게 된 것. - 피해학생들의 동영상, 상처가 크다는 것. - 생각해보지 못한 나의 행동이나 말이 아이가 받아들일 때는 전혀 다른 각도로 변할 수도 있음을 깨달음. - 학교 폭력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음. - 마음에서 출발하기 : 우리 아이 마음에서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는 계기를 느끼게 되어 보탬이 됨. - 폭력의 예의 따른 사례들을 보고 부모로서의 대처방법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됨. 아이들이 이런 일들이 혹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해결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음.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현 상황에 맞는 예제가 있었으면 함. 상담사가 대충이라도 사건 개요에 대해 알고 있으면 설명만 듣는 것보다 막연하지 않을 것 같음. - 서로간의 의견전달 시간부족. - 동영상이 많아서 임팩트가 좀 약함. - 시간이 좀 촉박했다는 것.
3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음. - 부모와 아이의 이야기 방법 배우기, 아이의 마음 이해하기가 좋았음. - '1-Message' 로 대화하기를 실천해야 겠음.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남(상대방)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의사소통에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았음.

회기		부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essage 연습: 상대방을 배려하기 보다는 내 자신의 상황 설명에 급급했던 나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좋았음. 다음부터 자녀뿐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점을 다시금 느꼈음. - 아이와 대화 시 짜증이나 꾸중을 배제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대화방법 (소통이 원활하면 문제 해결의 도움) -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과 빗대어 아이와의 교감을 일깨워 준 내용.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시 시간부족. - I-Message 연습 필요한 시간 짧았음. - 좀 더 상세히 했으면 함. - 교육이 너무 어려움.
4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 나의 감정조절이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되었음. - 우리 아이의 보석찾기: 아이의 알고 있었던 것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음. - 부글부글 100°C-예전 아이를 혼내던 때가 떠오르며 그 당시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며 두 번, 세 번의 경험을 반복하지 말자 라는 다짐을 하게 함. - 칭찬과 격려의 중요성을 알았음. - 우리 아이의 장점을 뒤돌아보니 너무 많다는 걸 알게됨. 이 장점을 되새겨 칭찬을 많이 해야 겠음. - 역할 바꾸기가 가장 도움이 됐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음. 또 다른 상황이 오면 좀 더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음.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위로받을 수 있는) 무언가도 필요한 듯. - 교육받은 내용의 인쇄물이 있었으면 좋겠음 - 좋은 내용과 대화의 시간부족. - 항상 시간이 너무 짧음.
5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도움 받기 - 정보를 공유해 줌. - 나의 중요성. 나도 괜찮은 부모였다는 일부사실 확인. - 오늘은 자녀보다 '나' 를 중심으로, 나도 괜찮은 부모라는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음. 다시 힘을 얻어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서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음. - 혼자서만 가슴앓이 하지 않고서도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 이 사항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택함.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목록에 관한 대화시간 부족. - 많은 부모들이 알았음 좋겠음.
6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 plan - 계획과 목표의식을 갖게 해 줌 - 나의 action plan! 다시한 번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한 태도를 반성하고 실천을 다짐하게 만들어줌.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교육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초점, 재범 학생 분류해서 - 시간 모자람.

회기		부모 의견
전 체	도움 되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됨. - 지침서 등 구체적인 정보, 토론에 의한 정보교류. - 대화방법. - 스트레스 확인과 해소법. - 아이와의 관계(강점)에서 민감성을 갖게 되었음. - 분노조절과 나 전달법. - 부모의 자아발견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음 - 아이들과 소통을 함으로써 아이의 주체성을 더욱 더 올곧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 - 공통분모를 찾거나 유지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점.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이 조금 보임. 부족한 사랑을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해야겠음. - 부모 사회, 학교의 단절된 프로그램 운영(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 시간이 짧고 현장에서 쓰일 때 자연스럽게 되려면 횟수가 많아야 할 것 임 - 프로그램 회기가 연장되었으면 함. - 프로그램 내용에 비해 시간이 부족. -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 힘들었음. -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음.

2.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 만족도 의견

회기		의견
1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폭력에 폭넓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어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이 학교 폭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되었음. 학교에서 친구가 장난삼아 거는 일들로 불평하는 일이 있었는데 별로 문제삼지 않고 괜히 소심하게 그런다고 야단쳤는데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음. -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새롭게 알았음. - 다시 한 번 일어서는 마음. 부모로서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정말 올바른 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됨 -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공감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에 비해 시간이 좀 짧음. - 서로의 아픔에 대해 조금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 - 가해학생 입장을 학교폭력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함. - 동영상이 일반 마스크에 많이 다른 것보다 좀 더 간절함이 느껴지는 동영상이 있었으면 더 나올 것 같음.
2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뇌 구조 그리기 → 우리 아이의 생각 알기 → 공감해주기 - 자녀의 맘을 먼저 이해 할 수 있는 맘을 키우는 시간이었음. - 뇌구조 그림 등을 통해 아이가 생각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내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음. - 아이와의 소통의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음.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기 다른 문제점을 지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아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예가 더 있었으면 좋겠음. - 서로 시간에 쫓기는 느낌
3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알게 된 것. - 사례에서 좋은 점, 아쉬운 점을 기록하고 생각하게 해본 점 - 적절한 대처법을 알게 되었고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알게 됨. -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해야 하는 방법들. 막막했던 방법들에 대해 알게 되었음. - 지침서가 좋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배워서 좋았음.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더 친밀한 관계 및 넉넉한 진행시간. - 우리 아이들이 지나온 시간이었기에 좀 더 일찍 이런 프로그램을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미 지난 시간이라 조금은 아쉬웠음. - 다음 번엔 더 많은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4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아이 보석 찾기로 아이의 작은 보석들을 발견하였음. 작은 보석 같지만 다듬으면 큰 보석으로 빛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음. - 도형만들기 게임과 우리 아이 보석찾기 - 도형만들기 게임은 눈을 감고 우리가 행동했을 때의 감정이나 움직임에 대한 불편함을 다시 느끼며 또 다른 협동심이 발휘될 수도 있음. - Bully Diary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아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다음에는 적용해야겠음. - 자녀와 대화하는 부모가 도움이 되었으면 많이 공감되어 자녀에게 적용해 볼까 함.

회기		의견
		- 아이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나의 관점으로 보아왔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음.
	아쉬운 점	- 수업 내용의 워크시트가 프린트로 있었으면 좋겠음. - 자녀의 장점 찾기를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시간이 부족하여 경험 등 많은 대화가 필요함.
5 회기	도움 되는 점	- 항상 부족하다고만 생각한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면서 장점을 찾는 점 - 아이들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나 자신의 생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구나라는 것을 느낌. - 나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음. 나 역시 지친 부분을 상담 받고 힘을 얻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다른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들을 수 있어 좋았음. - 전문적인 도움 받기를 프린트 받았는데 평소에 알고 싶었던 전화번호가 모두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음.
	아쉬운 점	- 구체적으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상담, 교육) 더 자세하게 알고싶음.
6 회기	도움 되는 점	- 나의 'Action Plan'을 통해 이제껏 배워왔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험 방안을 생활의 연장선 상에서 할 수 있다는 것. - 지난 회기에서 작성한 보물상자에 쓴 것들을 그냥 쓴 글씨로만 흘러 넘겼을 것을 plan으로 작성해 구체화 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음. - Before&After 사후 마음 가짐이 확연히 달라졌음.
	아쉬운 점	- 피해학부모 뿐만 아니라 가해학부모 프로그램도 널리 알려 졌음 좋겠음. - 좀 더 많은 분이 참가해 더 많은 사례를 듣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함. - 할 수만 있다면 아이와 함께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음.
전체	도움 되는점	- 아이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였음. - 나의 보물상자: 나의 보물 상자에 적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점 - 내 아이의 감정 공감, 소통하는 이유, 방법과 그리고 '학교폭력 자체의 무지함을 깨칠 수 있었음. - 자녀와의 공감과 장점 찾기: 자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며 자녀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임. - 초기대응에 대한 매뉴얼 - 아이의 관점에서 시각을 보게 된 점
	아쉬운 점	- 시간부족과 좀 더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한 듯함. - 회기마다 조금은 부족한 시간으로 부모들이 간직하고 있는 속내를 터 놓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 - 폭력 문제 대두, 해결 및 대처 방안 쉽게 청소년 등이 근접된 신호를 빨리 찾도록 지도해주었으면 함.

부록 10.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만족도 의견

1.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만족도 의견

회기		의견
1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부모님들께서 마음을 열고 개방적으로 이야기 하셔서 분위기가 편안했음. - 서로 속상했던 점을 나누었던 것, 그리고 내 자녀가 왜 그랬을까? 에 대한 대답을 공유하면서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 같음. - 마음열기 - 자녀의 잘못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어디에서도 말을 못했던 부분을 프로그램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점 - '사소한 힘' 영상을 보고 나서 부모가 가진 유리틈을 찾은 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와 기대감이 높아짐.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모임을 갖지 못해 프로그램 사전검사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 그래서 프로그램을 모두 진행하는데 시간이 촉박했음. - 텔레게임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음. 아빠들도 있어서 쑥스러워 하고 공간도 좁아서 한 번만 하고 그만두었음. - 내용이 너무 많아서 1회기에서 빠진 부분도 있었음. 내용 조절이 필요. - 프로그램 내용이 많음. 강의 내용이 많아서 구성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음. 억울한 것들 하소연을 해야 교육이 들어올 듯. - 비자발적이고 교육의 필요성보다는 강제성에 대해 기분 상해있는 입장이라 초기부터 교육형태의 진입은 반발이 있는 듯함. - 1회기는 라포 형성과 구성원 소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음. - 웹업(텔레게임)은 처음 만나는 가해부모에게 적합하지 않음. 경직된 분위기를 천천히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2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대처 사례에 따른 분석, 객관적인 시야 확보. - 각 사례를 보고 자신과 어떻게 같고, 다르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었던 점 - 부모님들이 가/피해 순환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며 가해자였던 내 아이가 이제 반에서 소외는 당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는 한 집단원의 개방이 전반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해 공감하도록 하였음. 프로그램 내용 구성이 매우 적절했음. - 동영상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피해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음.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 제공.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분량에 비해 시간부족. 1회기 유리틈 과제 적응할 수 있는 회기 간 여유 필요. -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에 대한 파가해자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음.
3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랑 이야기 하시겠어요?” : 자녀에게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음. 부모 역시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을 때가 가장 대화하기 좋을 때임을 느끼면서 자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음. - 오빠 Vs 아저씨 퀴즈. 부모에게 아이와의 공감 및 이해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는지 재확인하는 시간이 됨.

회기	의견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essage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았고, 여전히 내 감정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형식에 맞춰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집단원끼리 역할연습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도자가 집단원과 짝이 되어 시범을 먼저 보여주었다더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으리라 생각함. - 적극적 경청활동에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할 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상황을 제시하여야 함.
4 회기	<p>도움 되는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를 다스리는 방법, 칭찬을 할 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강의한 점 - 칭찬 격려 방법제시(실사례에 대한 피드백 공유) - 칭찬과 훈육의 구체적 사례 및 방법에 대한 반응이 좋았음 <p>아쉬운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를 이해하지 못해 해오지 못하는 집단원이 있었음: 과제를 너무 어렵게 설정하지 않고(형식을) 좀 더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부모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음. - 참여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
5 회기	<p>도움 되는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안내와 함께 부모로서 한계를 느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원군이 있음을 알게 된 점. 부모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음. - 나도 괜찮은 부모: 자녀를 떠나서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공감, 이해 받음에 편안함. 긍정적 피드백에 에너지 생김. <p>아쉬운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찬편지 쓰기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 위축감 발생할 수 있음. 공통의 규칙을 정해 모두가 지지받고 공통의 공감이 되어야 함. - 시간부족.
6 회기	<p>도움 되는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 Plan: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실천덕목 구체화. - 생각보다 구체적인 계획 잘 할 수 있음. 첫 회기에 비해 점점 분위기가 좋고 워크시트를 적는 것보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됨. <p>아쉬운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운영자도 집단원들에게 많은 피드백과 소감을 나누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 회기를 더 늘려서 진행했으면 좋겠음.
전 체	<p>도움 되는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칭찬과 훈육의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 것. -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교육 및 영상, 그리고 부모의 마음 만지기에 대한 내용이 도움 -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도 필요했는데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좋았음. - 부모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 <p>아쉬운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기 당 내용이 많아서 내용을 선택/필수로 구분해야 할 것 같음. - 워크시트를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았음. - 시간이 부족. - 6회기를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부담. -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 회기가 짧은 것이 다소 아쉬웠음. - 학교 폭력 처리 과정을 거의 마친 상태의 부모에게는 큰 공감을 받지 못함. 월업의 경우,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준비함.

2.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만족도 의견

회기		의견
1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일어서는 마음(내 마음의 색깔): 부모의 상처 치유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감 및 프로그램 적극적 참여. - 학교폭력에 대한 실제 동영상과 퀴즈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심각성을 부모님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 좋았음. - 피해 부모님들끼리의 공감적인 개방, 서로 비슷한 입장에서 부모의 역할을 알고 싶어 하시고 동기부여가 첫 회기에서 중요한 것 같음.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부족. - 내용 구성상 전달할 내용이 많아 교육시간이(15분정도) 연장하게 됨. 첫 회기의 경우는 사전 구성원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사전 친해지기 등의 시간이 30분 정도 구성 안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음. - 시간적인 제한-속마음 깊이 개방 하시려 해도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없는 여건.
2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공감훈련에 도움이 됨. 부모로서 나의 행동 반응에 따른 자녀행동결과 고민하게 하는 기회. - 부모와는 무슨 일이? - 자신의 사례에 대해서 적고 내 마음과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적어보고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이끌어 냄. - 실제 부모-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소통의 장면이 직면되면서 스스로 대안을 찾음.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태도 점검에서 부모의 태도 결과에 대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질문지로 자신태도 수정 필요성 확인시킬 필요 있음 -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것 등을 영상이나 아이들이 직접 쓴 글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음. - 다 할 수 없었음.
3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대처 방식에 대해 모의 시연 및 분석이 간접 경험화, 대응 능력 - 구체적인 지침서를 제공하며 학교폭력에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음. - 강의 부분 유익해하시고 본인들의 경험을 나눔.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부족 - 자녀의 학교 생활 수칙을 강의: 5번 문항에는 모순이 있어 보임.
4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별 대화연습→실습으로 교정 - Bully Diary라는 새로운 틀을 제공한 것이 도움이 되었음. 특히, 피해 아이들의 경우 말로 자신의 상황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참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아이와 다가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이어리 쓰는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lly Diary 쓰기는 자녀가 거부하는 경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음. 부모님도 굳이 상처를 들추어 내는 것 같아 자녀의 의견을 수용 (사전교육이나 사안 발생 직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음) - 우리 아이 보석 찾기 : 내 아이의 보석 찾기

회기		의견
5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도 관참은 부모: 1-4회기 동안 자녀에게 집중되었다면 5회기 부모 자신을 향한 긍정적 에너지 축적 - 나의 지지망(지원부대)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알아봄으로 추구 대처 능력이 생길 것 같음. - 서로의 장점을 찾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분위기가 아주 좋았음.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부족 - 전문적인 도움 부분에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는 곳이 더 추가되면 좋겠습니다.(상담 뿐 아니라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등)
6 회기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fore&After: 변화 과정을 탐색, 만족감 재확인 -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나누는 부분에서 서로가 나눔을 통해 도전도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음. - Action plan을 아주 진지하게 하였고 구체적으로 했음.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시간 - Action Plan!을 정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 필요.
전 체	도움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처방법: 죄책감에서 차후 부모로서의 준비자세 점검 - 자녀의 입장을 이해한 점 -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 점 - 집단 안에서 서로에게 힘 -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상담이 병행되는 특징이 피해자 부모님들에게는 장점으로 다가간 것 같음. 공감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효과가 증대되는 것을 느꼈음.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는 부모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 깨닫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함.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길게 하거나 단기 상담용으로 나눠 개발 필요. - 프로그램 개발이 다소 늦음. -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 -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움.

Development of a Parents' Training Program for Bullies & Victims of School Violence

ABSTRACT

School violence is becoming more severe despite the efforts of multilateral government policies designed to eradicate this problem. Many youths today are suffering from this epidemic of school violence.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re significant factors in preventing school violence as well as vulnerabilities to school violence. As such, interventions targeting parent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efforts to end school violenc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parent-training programs to develop and empower parents' capability in preventing recurrences of school violence.

Program development was performed as follows. First, in the design phase, the program's goal was established as preventing a recurrence of school violence; a variety of documents on concepts of school violence and parents' training programs were examined. The data was collected in a variety of ways, which were claim inquiries of youth counselors and youth experts, focus group interviews of youth counselors, and in-depth interviews of the parents of school violence bullies and the parents of victims. Second, based on implications of data from the design phase, the principles of program organization and models were developed, and the draft program was developed. Third, the implementation/evaluation phase consisted of a test operation of the program, evaluation of its effectiveness, and supplementation of the program according to evaluation.

The program model is as follows. First, the programs for parents of bullies and parents of victims are developed separately because previous studies reveal these parents' face different difficulties. Secondly, three parent roles were drawn to

achieve the program's goal, preventing a recurrence of school violence. The roles of parents of bullies consisted of three components, which were aiding children's development, facilitating rational problem solving, and the parents' own growth. The roles of parents of victims also consisted of three components; aiding children's development, advocating children's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parents' own growth. Third, each program consisted of six group sessions with each session taking approximately 90-110 minutes and involving six to eight parents. However, participants' educational needs from the program can vary, depending on the stage of an incident's process. As such, the program was made up of modular programs so the leader may select activities as required.

To verify the program's effectiveness, participants (twenty-five parents of bullies and eighteen parents of victims) took pretests and follow-up tests, and a t-test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e program improved a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n both parents of bullies as well as parents of victims. The results also revealed improvement in 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and parental behaviors. Instructors, as well as participants, all reported great satisfaction. Detailed evaluations were reflected as changes and revisions to the program.

These results imply this program is useful for cognitive changes in parents of school violence bullies/victims through enhancement of a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This program also suggests future development of long-term interventions and specialized programs according to school violence stages or types.